2016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생활문화 다시보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016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생활문화 다시보기

CONTE

01 개요 5

02 사전간담회

1차 간담회 19

2차 간담회 31

3차 간담회 49

03 동아리운영사례 및 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 방향성 모색

연구편

1.생활문화센터를 통한 문화원 생활문화사업의 확장가능성 모색 66

2.기존문화예술동아리의 지역네트워크 및 지역간 네트워크의 확장가능성 모색 104

3.지역 내 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 및 지원의 HUB기관으로써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148

4.문화원은 지역전통문화(옛 생활문화라는 관점에서)를 진정 잘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190

5.기존 강좌중심에서 탈피한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228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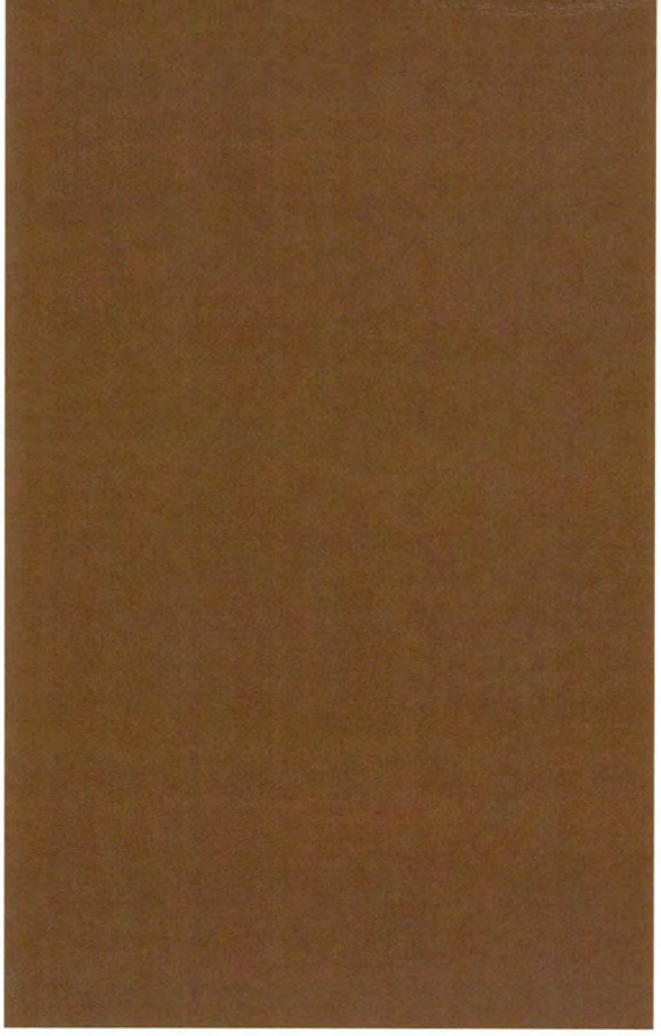
생활문화 활동의 지역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역할 찾기 269

TS

실행편 경기도 문화원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1.문화원 프로그램은 착해야만 하는가? 306
2.활동가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은 가능한가? 336
3.문화원 활동, 동네 골목으로 나가다 344
4.강좌활동의 적극적 확장, 관계가 문화가 되다 364

04 문화원 활동에 대한 재점검과 가치부여하기 375



이 개요

여 백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현재와 미래의 문화향유 방식은 기관 중심에서 지역민 개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미 2004년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시작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지방문화원 대다수는 아직도 시설 중심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강사 중심의 문화학교 운영과 같이 문화원 시설 중심으로 시민들을 모집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원 차원에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구조다. 강좌를 통한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해소한다는 공급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전환으로의 '대안 찾기'가 가능할까는 고민의 시작이다.

이에 지역의 문화예술 동아리는 지역성, 자발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전제를 다시 설정하고 문화원은 동아리들의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고 지역 내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플랫폼 형태로의 사업구조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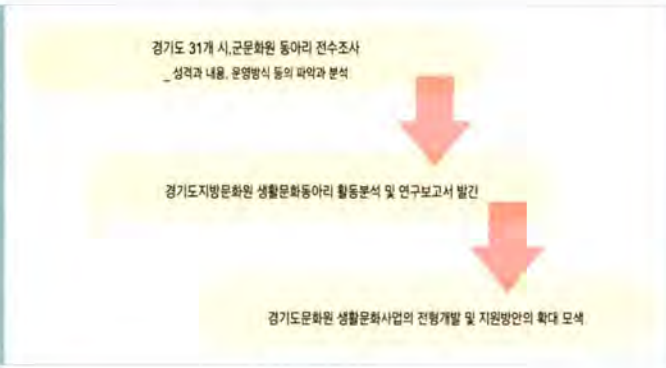
문화원 차원에서의 생활문화의 육성, 지원, 발전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고민하고, 찾아보기로 했다. 향후 지방문화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지역차원에서 생활동아리 육성지원을 통한 개개인의 문화향유를 연결시켜 주는 형태로의 전환이라 설정하게 된다.

지난해(2015년) 발간된 경기도지방문화원 총람 <경기도문화원과 만나다>에 근거한 경기도 지방문화원 동아리 수는 99개이다. 31개 시·군인 점을 감안한다면 한 개 문화원당 3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다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적은 수치였다. 이유는 문화원에서 일관되고 합의된 동아리 개념을 설정해 두지 않았고 합의된 운영 매뉴얼도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동아리에서 발전된 형태로의 전환이 봉사단체, 산하단체, 부설기관의 형태로 저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아니 합의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동아리의 현황과 지역특성에 따른 운영방식 등의 흐름과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설정하게 된다.

연합회 본연의 역할인 '개별문화원 차원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광역단위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그것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지방문화원 홍보, 마케팅을 실질적으로 지원 한다.'는 과정 설정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고민이 생긴다.

첫째,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방향이 실제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즉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의 사업구조가 연합회만의 또는 기존에 실패해 왔던 전문가들에 의해 세팅된 사업이라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사업을 통해 향후 경기도 문화원 차원의 생활문화사업(동아 리를 중심으로 한)의 원칙과 방향을 세울 수 있을까의 문제이다. 즉 도연합회 차원에서의 로드맵이 지역문화원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합의의 과정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합의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지역문화원 차원에서의 생활문화에 대한 고민과 합의의 구조가 없는 것이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문화예술교육법에 녹아있는 시민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생활문화차원으로 확대, 발전된다.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가 법으로 규정되면서 삶과 지역, 문화의 영역에 대한 지역차원의 보다 심화된 고민이 요구되었고, 그에 따른 문화기관, 단체들의 사업의 성격도 재점검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생활문화조례가 제정되고 그에 따른 정책과 과제 등이 이미 수립되어 있었다.

경기도의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역문화 중 주민의 생활문화를 지원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문화적 활동 지원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장려를 통한 문화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고 정하고 있다.
조례에서는 생활문화를 조례 상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생활문화 정의와 동일하게 생활문화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지원 /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1.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 및 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2. 지원 대상을 경기도에 소속되거나 거주지를 두고 있는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에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도생활문화진흥을 위해 계획하고 수립해야 하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생활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생활문화 육성
3. 생활문화전문인력의 양성
4.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5.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문화예술단체 또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지원사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2. 동호회 등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3. 동호회 등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그 밖의 생활문화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지점에서 동호회나 동아리의 개념에 대해 쟁점화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지점이라 판단,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몇 번의 전문가 간담회와 국장협의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본 사업의 성격과 내용이 결정되고 최초에 가졌던 생각이 변하기도 하고,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상당부분 수정되었다.

먼저 본 사업의 성격규정을 다시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은…

-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과 이에 수반한 생활문화 지원 방식의 사업화 확대일로 상황에서 문화원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며
- 이에 지역의 향토문화연구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담당해 왔던 문화원의 제반활동에 대한 재점검 및 가치 재확인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에 따라
- 경기도 31개 시, 군 생활문화동아리 현황 및 활동사항 사례 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각 문화원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생활 문화 활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 생활문화 개념 및 활동의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 경기도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협력네트워크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사업의 성격과 정의 규정에 따라 기존에 경기도문화원 연합회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경기도 31개 시,군지방문화원 동아리 현황조사 및 분석된 2차 고급데이터 확보 및 보고서 발간사업'의 성격에서 탈피하고 사업내용을 전면 수정하게 된다.

▣ 추진체계 및 방법

○ 경기도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 자문 및 컨설턴트와의 협의 과정을 통한 향후 과제 및 내용을 도출한다.
○ 다양한 형식의 포럼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 군 지방문화원에서의 생활문화사업의 방향을 협의한다. 그 협의를 통해 대표 생활문화 동아리 선정 _유형별, 형태별, 장르별 케이스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현황분석 및 담론형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과 연계, 확장가능성을 모색한다.

○ 시범사례 모니터링과 기존 과정을 망라한 사업보고서를 발간하여 공유한다.

○ 방법 : 모니터링, 심포지엄, 결과보고서 제작

▣ 사업내용

1. 경기도차원의 지역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세우기

·총 5회 간담회 개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국장협의회, 전문가간담회 등)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사업 중 문화원 사례 연구

2. 문화원 동아리 사례공유 및 성과관리 프로그램

·4개 문화원 선정, 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사례연구 아이템선정 (형태별, 유형별, 장르별)

·지역단위 생활문화동아리 워크숍추진

·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생활문화네트워크 심포지엄 개최

·5개 권역 사례발표 및 케이스 스터디

·성과와 문제점 도출

·개선방향 및 대안모색의 장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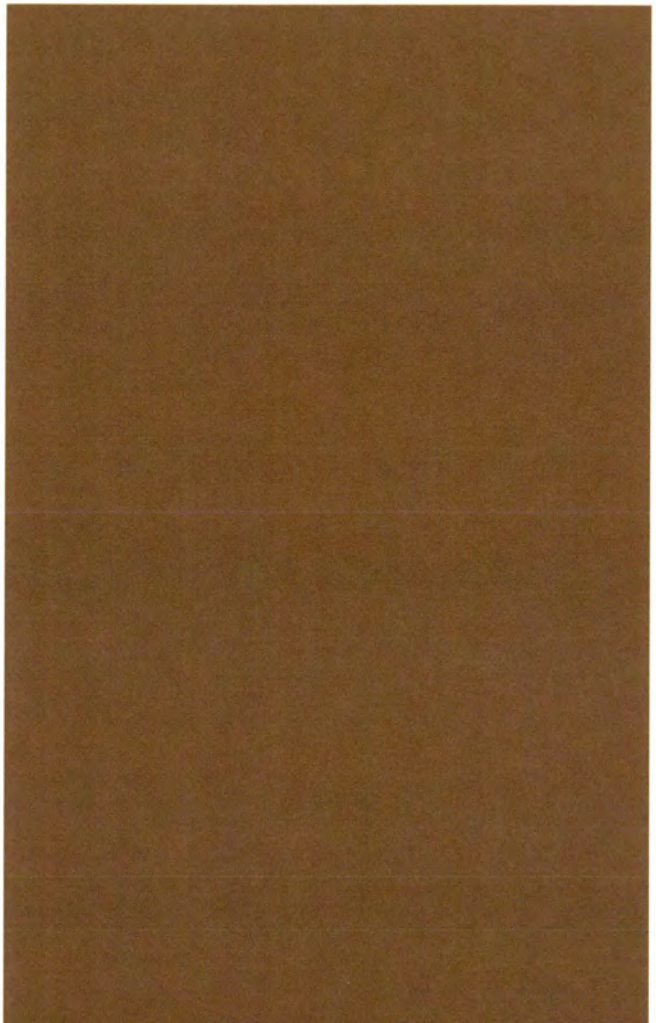
4. 사업결과보고서 내용(안)

·향후 경기도 지역문화원 차원의 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세우기

·권역별, 지역별 생활문화네트워크가 가능한가에 대한 답 찾기

이상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이 만들어지게 된다.

2016경기도지방문화원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
지방문화원중심의 지역생활문화네트워크포럼
◆ 지역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세우기
◆ 문화원동아리사례공유 및 성과관리
◆ 생활문화동아리모델화
◆ 생활문화네트워크조직화
개선방향& 대안모색
성과와 문제점도출
사례발표& 케이스스터디
생활문화네트워크 심포지움&사례발표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지역환경분석
문화원생활문화 동아리모델화
• 형태별, 장르별, 유형별 모델화
• 지역동아리조사 및 분류
활동프로그램기획
생활문화동아리워크숍
• 지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만들기
• 나와 지역적요구에 대한 합일점 찾기
경기도31개지방문화원
기획과 실제현장의 차이인식
새로운지역활동모델
• 문화원이기때문에가능한 생활문화동아리육성
• 지역생활문화네트워크조직



본 자료집 세션 02는
경기도 31개 시,군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원칙과 방향을 합의과정을 통해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이다.

1차 간담회는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춘아 대표와
본 사업 자문위원, 코디네이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직원이 참석하였다.

02 사전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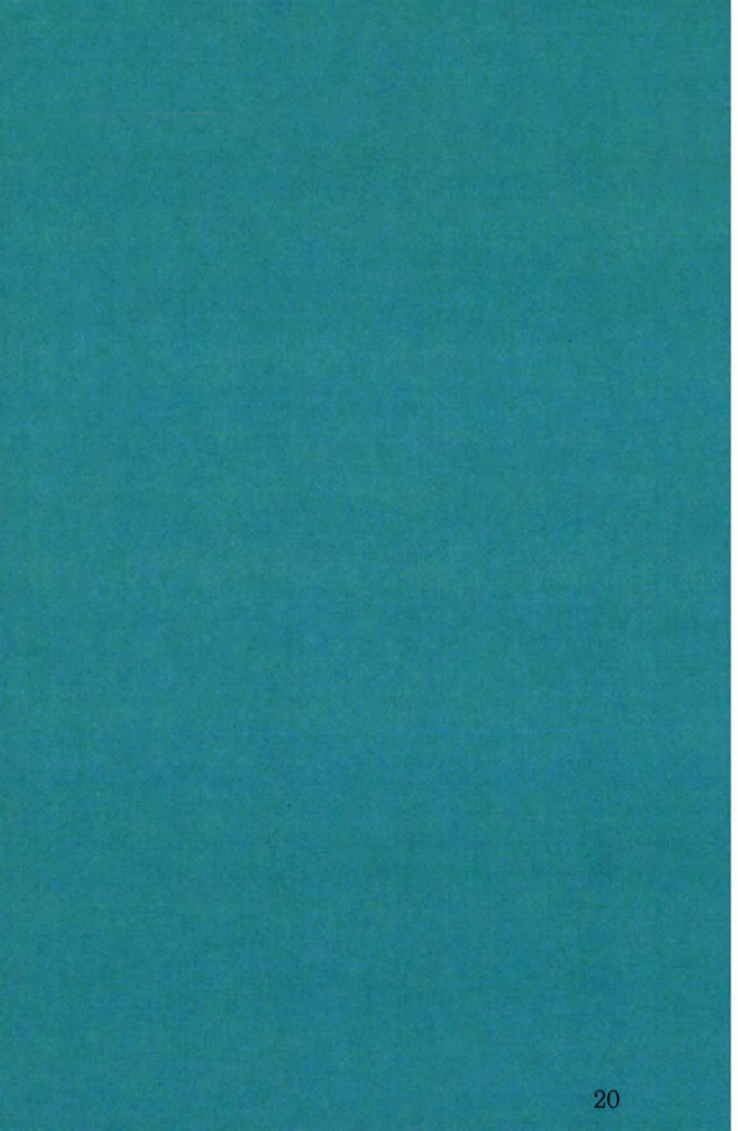
2차 간담회는
지난 6월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와의 1차 간담회 결과, 문화원 실무자와 보다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장의 요구를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모색해보자는 방향에 따라 평택, 의정부, 이천, 시흥, 남양주문화원 사무국장이 함께 논의했던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3차 간담회는
지난 6월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와의 1차 간담회, 7월 문화원 실무자와의 2차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문화원을 선정하여 생활문화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자료는 전고필 광주광역시 대인예술시장 총감독과 본 사업 자문위원, 코디네이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직원과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여 백

02 사전간담회

1차 간담회



1.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1차 간담회

일시 : 2016년 6월 10일(금)
장소 : 대전문화재단 예술가의 집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이하 도연합회) 작년에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 총람인 <경기도문화원을만나다>를 내보니,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사업의 맥락이나 동아리에 대한 개념, 조직 운영 등에 대한 합의가 없이 개별문화원 차원에서 자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정리, 합의, 분석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이하 대전대표이사) 이 총람을 가지고는 순차적으로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요. 참여한 사람들의 느낌들을 이야기로 끌어내면서 그걸 기준으로 정리하고 그 관점과 기준으로 이 책을 보자는 거죠. 여기에서 무엇을 더 뽑아 낼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도연합회 이 안에서 생활문화동아리를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그것을 분석 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라든가, 동아리라는 부분도 저마다(각 문화원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까지 건드리기에는 영역에서 벗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문위원1 외부 연구자들 중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면 (있는)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현황조사를 또 한단 말이예요. 이것(이미 나와 있는 자료)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틀이 또 있으니 새로 시작하게 되니까…

도연합회　연구자들이 하게 되면 우리의 고민보다 깊이 고민하고 훨씬 더 맛좋게 이용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은 그저 막연한 데이터이기만 해서 '나도 잘 모르겠으니, 나라도 맥락을 잡아보자. 향후에 동아리가 됐던, 뭐가 됐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문화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이후에 방향을 잡던 할 것 아니냐.' 하면서도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갑갑해지기도 해요.

대전대표이사　연합회 차원에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시범적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아리 조사하면서(나온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고 싶다는 건지 확실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활동가들의 감이 중요한 거 같은데? 감을 끌어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이거는 느낌이나 감이 정확한 것 같아.

도연합회　이 사업은 애초에 경기도문화원연합회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에 대한 육성, 지원 정책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에서 경기도의 생활문화는 어떻게 가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됐어요.

지원을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어서 저는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지방문화원 중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굳이 도연합회 예산을 추가해서 중복할 이유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도연합회는 사업의 방향을 조정해서 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의 현황을 정밀하게 실태 조사하고, 맥락을 잡고 구획 정리를 하면 문화원 차원에서의 생활문화사업에 대한 방향 설정이나 제안을 할 수 있고, 좀 더 확장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전대표이사　그렇다면 가능성 있는 것, 내버려 둘 것, 버릴 것을 3단계로 리스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자문위원2　그러면 또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요. 감각적으로, 보여지는 모임의 형태가 경기도 내에 2~3백 개는 될 텐데, 문화원들이 작성해 준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해보면 토탈 99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1차년도 사업이어서 양적 데이터로 밖에 집계가 안된다는 한계가 있는데, 이나마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마도 분류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역마다 동아리에 대한 기준이나 개념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버릴 것 안 버릴 것 구분하려면 또다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자료 정리해야 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가 다시 고민이 돼죠.

도연합회　설문지를 통해 받다보니 구획이 모호해서 저마다 생각이나 기준점이 달랐고, 총람에 나와 있는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동아리나 생활문화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의미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함께… 지역마다 동아리 등의 모임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생활문화 동아리나 사람의 모임을 문화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 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도 분석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도 해 봤구요.

대전대표이사　그럼 조사 방법을 잘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해봐야지. 이런 방법으로 설문을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답은 안 나올 거예요.

도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의뢰로 전국 지방문화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도 빈약함이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니 경기도

차원의 총람 자료를 보면 저도 아직 맥락이 안 잡히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가 감을 잡을 수가 없는거죠.

자문위원2 전국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도 전국 단위의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산된 자료의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죠. 직접 가서 하나하나 끌어 내는게 가장 좋은데, 과연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도연합회 대표이사님께서 연합회 자문위원도 하시고 문화원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실 것 같아서 함께 고민을 부탁드리게 됐습니다.

대전대표이사 조사를 다시 하겠다. 라는 입장이에요?

도연합회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이 없었으면,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잘하는 문화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범사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플랫폼을 하니, 굳이 이 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럼 다른 걸 어떻게 할까?

이 총람을 만든 이유는 2부에 게재되어 있는 경기도 지방문화원 운영 및 사업관련 세부현황인데,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동아리 현황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데이터의 정확성이 50% 이상은 되었으면 하는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 이걸 동아리나 문화원 사업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고, 솔루션을 찾아보자. 그래서 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보자는 취지에서 연구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대전대표이사　대전 마을 만들기 3년차를 접어들면서 성장 사례 조사를 했어요. 마을 활동가 20명이 전화 조사를 기본으로 했는데, 남는 건 20명 인터뷰 다닌 사람이 남았어요. 자기들이 활동하던 경험자이다 보니까, 나 혼자 활동을 했었는데 이걸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동안의 과정이 정리되면서 스스로들 성장을 한 거예요. 보고서는 그냥 제출용으로 끝났구요. 나도 이야기하면서 단계별로 씨앗, 발아단계 등으로 넓혀진 도표를 보게 되었는데, 그때의 연차별 경험들을 정리하게 되니까 활동가들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남는 것이었던 거예요.

자문위원2　단계를 처음부터 팔로잉 한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에 조사를 하신건가요?

대전대표이사　연차별로 팔로잉 한거죠. 1년차, 2년차, 3년차. 그러다 보니 활동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정리가 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더라는거지. 아직 미적지근했었는데, 확실한 활동가가 되었다고 봐져요.

자문위원2　문화원 조직이 어떻게 보면 활동가고 어떻게 보면 기획자고 참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들과 '새로운 무언가를 해보자' 해도 기존 조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기존과 똑같거나 비슷한 형태의 무언가로 만들어 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도연합회 입장에서는 분류체계나 명칭을 어느 정도는 명확히 하고 싶은거죠. 근거나 비교(변화)자료를 제시해서 보여 줘야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연합회에서는 자꾸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요.

대전대표이사　사실 연합회가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명분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맞죠. 거기에 있으면 그런 유혹을 갖게 돼요. 연합회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통제, 관리를 해야 하니까. 문화부만 해도 '근거를 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대기 위해서 대안이 필요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연합회 차원에서 하고 싶은 것은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싶은 거라고 보여 지는데?

자문위원2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고, 발화점을 찾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요.

도연합회 연합회라면 지방문화원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현재 이런 저런 사업과 운영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제도적, 행정적 지원 등의 역할이 주된 임무라고 생각해요. 개별 문화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게 마련이니까요.

대전대표이사 그래요. 연합회라면 당연한 일이죠. 내가 개별 문화원에 있을 때 이런 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하고 싶다는 유혹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 현황 자료를 보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 거지 실무자들이 보지는 않아요.

대안으로 제시하자면 언제 한 번 실무자들 모아놓고 너는 이 총람 자료를 보고 뭘 찾을 수 있냐? 라는 프로그램도 해 보면 어때요?

도연합회 경기도지방문화원역량강화사업으로 그런 시간을 가져 본 적은 있어요. 사실 고민의 여지만 던져 주고 자료를 통해 무엇을 보았는지 까지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대전대표이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짜줘야 돼. 자기 스스로 짜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몇몇이 모여야 집단 역동성이 생기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이걸 현황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보완 했으면 좋겠다. 그게 현실 가능하냐, 이 부분을 실무자와 의논해서 물어봐요. 어차피 그분들과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합회 처장님과 지방문화원 국장님은 생각이 또 다르다고. 고민 하는 건 비슷한데 고민하는 방향이 달라요.

자문위원2 총람을 만들어서 과연 문화원들이 이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도연합회에서 물어본 적 있잖아요. 반응이 어땠어요? 각 문화원에서…

도연합회 생각보다 많은 문화원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예산규모, 회원 등의 현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대전대표이사 읽어본 사람을 잡으셔야 해요. '당신은 어디 부분을 관심 있게 봤냐' 라는 부분. 사실 나는 잘 안 봐. 숫자가 느낌이 안 오니까. 직접 읽어 본 사람에게 뭘 도움을 받았냐고 물어 보는 게 가장 빠르죠.

도연합회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대전대표이사 광역문화재단 조직표만 나열 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점검을 하면서 다시 확인 작업을 했는데 그런 조직표라 해도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쓰임이 달라요. 긴가 민가 하는 건 거기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고. 그 정도 자료도 못 만들고 있는 곳도 많아요.

충남에서 심사를 했으니 자료를 달라 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내 눈에 들어왔던 것은 33개 지역특성화 중에 26개가 마을 사람이더라구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그런 것도 막연하게 있는 것이랑 몇 개 중 몇 개라고

간단한 거라도 픽업해서 자료를 보여주면 말의 힘이 다르다니까. 이게 추세예요.
내가 전에 마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융합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조사를 해 보니 장르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고 또 장르끼리 통합된 곳도 많아요. 지금은 통합이 장르보다 늘어났어요. 이거는 지역적인 현상이고 특성이 되는 거죠. 대전하고 충남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해요.

내 말은 통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면 관점을 가지고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좀 끌어주면 될 곳, 나머지 열 개 정도를 뽑아보자. 거기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단체만 전화 인터뷰라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 그룹처럼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도 방법 일 수 있죠.

자문위원2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과연 도연합회에서 가려고 하는 방향에 올해는 어느 지점까지가 가능한지가 고민이죠.

대전대표이사　그때는 돈 되는 것만큼만 하라고. '선택과 집중',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맞아요. 퍼줘도 퍼줘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역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서울은 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너무 밀집되어 있고, 지역은 사람이 참 없고.

자문위원2　오히려 먹거리들이 밀집 된 곳이 잘 되는 것처럼 도심지역은 잘하는 단체들이 밀집 되어 있어서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류가 되니까 자연 성장하는데, 지역은 그것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몇 년 전에 공연장 실태조사 한 걸 보면, 똑같이 지원받아서 만든 공연장인데, 서울과 지역 공연장들의 현황이 너무 차이가 나요.

공연장을 운영하려면 예술 단체들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 경기, 대전으로 내려 갈수록 공연장에 설 단체가 없기 때문에 공연장 운영이 힘들어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현상, 지금 생활문화도 똑같은 것 같아요.

대전대표이사 지역도 참 좋아지고 했는데도 이제는 질적으로 승부해야 하는데, 사실 문화예술교육에서도 관리가 안돼요. 토요프로그램 떨어뜨려야하는데, 단체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걱정이 돼요.

문화적인 것은 지역적 편차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보이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감이 있어서, 젊은 문화기획자가 있는 곳은 확실히 달라요. 변화가 눈에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에서 쓸 만하면 이탈해버려요. 서울이나 대도시로 떠나버리기 때문에 지역엔 사람이 더 없죠.

자문위원2 경기도만 해도 그렇죠. 북부권으로 가면 젊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예술단체도 매칭하기 힘들다고 하니 전국적으로 보면 더 한 것이 당연하고… 총람자료를 정리 해 보니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구요. 좀 더 정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잘 정리 해 놓으면 각 문화원에서 변화 자체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할 부분들도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업의 방향자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연합회와 국장님들의 의견 수렴이 먼저 필요한 것 같구요.

대전대표이사 이런 부분들을 잘 메모해서 국장님들 불렀을 때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게 좋겠네요. 그거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지 뭐.

모두 감사합니다.

여 백

02 사전간담회

2차 간담회

여 백

2.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2차 간담회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도연합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생활문화관련으로 한 꼭지를 우리가 도 예산으로 진행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문화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여 졌기 때문에 문화원차원에서 생활문화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라는걸 경기도에 보여주자!라는 취지에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기획 과정에서 작년에 경기도문화원총람을 만들어냈는데, 1페이지 도연합회 고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총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 경기도 지방문화원 소속 동아리가 99개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평균 한 문화원당 3개씩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평택　　이거는 실제 있는 동아리만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수업도 다 동아리라고 할 수 있지 않은가요?

도연합회　　그리고 각 문화원의 동아리 운영방식과 분류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도연합회차원에서 일관된 흐름과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동아리가 가진 성격이 '지역성, 자발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문화원에서 활동의 장을 만들어 주고 지역 내 문화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실제적으로 문화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연합회 차원에서 조사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사업들이 전개 되면서 문화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도문화원연합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 되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 되는지 구획 정리를 하는 것이 연합회의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문화원은 지역 내 동아리를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기존 방식은 이렇습니다.
문화원이 <문화학교>라는 구조를 통해 강좌를 운영하죠. 지역 주민의 기초적인 문화예술 욕구를 수용하는 차원으로 시작합니다.
개설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좀 더 심화할 필요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동아리'라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 차원의 후속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고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강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필요에 의해 강사를 섭외하고 시민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기존의 문화원

방식인거죠. 마지막 단계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주민센터나 다른 문화센터의 방식과 같습니다.
문화원 동아리 전수조사를 다시 해 보면 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문화원에 있는 생활문화사업의 전형, 무기, 근거, 지원 방안 등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연합회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욕심일 수도 있다. 연구보고서로 만들면 지방문화원의 실질적 활동에 도움이 될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을 모아보자.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경기도 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을 만들어 갈지를 논의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오늘 모이게 된 것입니다.

평택 지난 번 총람을 위한 설문조사는 소극적 내용의 조사였어요.
생활문화동아리들이 문화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조사가 돼야 해요. 생활문화동아리들은 각 시에서 더 잘 알 꺼에요. 보조금 심의 같은 거 해보면 평택의 경우에도 80~120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조사가 안 된 거 잖아요? 배우고 있는 단계의 동아리까지 하면 그 수가 지역마다 200~300개 정도 나올텐데, 어느 정도 역량 있는 단체들만 문화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100개 이상은 나와요.

도연합회 각 지방문화원에서 관할하고 싶은 부분까지 다 한다면 더 확장시키자는 말씀이시네요.

평택 지역의 동아리들이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문화원으로 옵니다. 그런 곳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직접 교육하고

있는 곳, 양성시켜서 나간 곳, 지역의 역량이 있는 곳을 모두 조사해서 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도연합회 평택의 이야기를 정리 하자면 도연합회에서 경기도 문화원 각 지역의 동아리 현황,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의 부분, 운영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내보자. 이것은 1차적 사업추진방향이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 내 수용되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줄 것인가? 각 기관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평택 명분으로 보면 지방문화원들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기관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문화원 소속 동아리로 만들어 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받음으로 해서 예총과 갈등이 생겨요. 사실 예총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없어요. 지방문화원 차원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간접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도연합회 생활문화센터를 통해서 지역 내 동아리를 수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네요.

시흥 시흥은 평생학습 도시이다 보니까 규모가 엄청 크고,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를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시 자체에서 지원하는 것과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과연 분리나 연결이 가능할지가 가장 큰 의문인거죠.

이천 그것도 말하자면 동아리인데, 모래알갱이죠. 지방문화원도 그 수준에서 크게 다르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도연합회 도연합회입장에서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내 생활문화 우수동아리를 발굴해서 지원해주자. 그리고 확장해주자. 애초에 그런 의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총람을 발간해 보니 경기도 31개 시,군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전체 수가 99개로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동아리 수는 99개지만, 봉사단체, 어르신 동아리, 산하단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다 합쳐 보면 179개가 나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약 200개의 동아리들 안에 회원을 10명으로 따지면 활동인원이 2000명이 움직이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지방문화원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이 사업, 즉 <경기도지방문화원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이 연구사업이 맞느냐 직접지원사업이 맞느냐를 고민하게 된 것이죠.

평택 이 예산을 생활문화센터를 구성하는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31개 문화원에 생활문화센터를 다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고 취합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쪽으로 연구사업은 가고, 잘 되고 있는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시흥　생활문화센터는 동두천문화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동두천　동두천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014년도에 만들어 졌는데, 그 장소에 약 70평을 '생활문화센터'공간으로 할애해 줬어요. 시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 지역문화여건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었고 그것을 문화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사업 및 운영에 대한 동두천 시에서 받는 예산은 없고 시설만 받았습니다. 인력은 공공근로 배치와 문화원 회원과 임원들의 거의 무료 봉사로 그동안 운영하고 있구요. 센터 관리비가 연 5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기존의 프로그램을 그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남양주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는 문화원에 들어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생활문화에 대한 개념이 낯설지 않았어요. 쉽게 접근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문화원 업무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왜 문화의집이나 외부 단체들은 흔히 말하는 접속 터닝이 빠를까. 즉 진입이 빠를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들은 가장 먼저 시민들이 좋아하느냐,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느냐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원의 경우 국장들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흔들립니다.
문화원 내부에 변화가 있어도 접근과 접목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것이 필요해요.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원에서 만들어져 쏟아져 나오는 동아리 활동이 그게 정말 재밌고,

신선하고, 의미있다고 부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먼저 사업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얘기가 좁혀질 것 같아요.
즉 문화원 동아리를 육성하는 거냐? 문화원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동아리를 찾아서 육성하는 것이냐? 유독 이 동아리만큼은 문화원다운 동아리더라. 저는 지방문화원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다운 동아리 하나를 만들어 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지역 내에 파급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문화원에만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라는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의하고, 문화원다운 생활문화동아리를 만들어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연합회 두 가지가 상충 되는데 평택은 지역 내 문화원이 2-300개가 된다. 자발적 동아리가 필요한 것들을 문화원에서 지원구조를 갖자니 지역 내 예총 등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가 됐건 다른 형태이건 문화원 내에서 지역 내 동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필요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두천 본의 아니게 우리 문화원에서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문화동아리는 문화원 성격의 동아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아리도 있어요. 어차피 생활문화동아리라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그 지역 내 동아리는 문화원에서 안고 가면 어떨까? 문화원 성격보다도 여러 가지 동아리를 흡수하는 게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천 '전수조사'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기존에 경기도문화원 연합회에서 조사한 것은, 생활문화 동아리의 갯수를 조사한 것이고, 한문연차원에서도 이미 디테일하게 생활문화동아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만 활용하면,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가 강좌 중심인지 지역사회 봉사나 활동을 하는 것인지, 지역을 기반으로 움직이는지 등에 대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무엇인가 나오지 않을까요?

올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내용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이걸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경기도권역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더 진도가 나간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문화원이 문화원만 보면 안 된다는 지점입니다.
'문화원이 지역 사회 내에서 허브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문화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지역 사회 구도 내에서 문화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를 알아야 합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지역의 청사진을 문화원이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문화원은 문화의집이나 기타 생활 문화를 빠른 감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는 생활문화에 대한 감이 떨어집니다.
문화원은 그들과 비교해 보면 지역 기반을 못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하고 있을 법한 것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커뮤니티를 발전시키고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담보하는 지역학습까지 못가고 있어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는 어때야 하는지의 이런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것이 문화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연합회　그렇다면 문화원이 추진해야 할 생활문화사업의 형태와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의견을 모으는 '합의의 과정'을 도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까요?

의정부　2015년도에 의정부 생활문화 동아리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와 같이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여다보니 이천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알 수 있겠더라 하는 부분은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가기에는 너무 멀더라구요. 토론하고 의논하기에는 또 그만큼 시간이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문화원 스타일의 동아리는 돌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원마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듬을 것이냐, 어떻게 다시 접근할 건지에 대한 것을, 사업을 통해서 숙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해 보고나서 어떤 지에 대해 그 이후에 고민을 다시 한다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하면 그냥 시간이 또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잘 세팅하고 다듬어서 가면 물론 좋은데 현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움직여지지 않더라구요.

우리의(지역의) 생활문화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액션(action)을 해야 할 때인데 고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따라가기에도 바쁘다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모든 생활문화 동아리를 컨트롤할 수 있다' 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좀 부정적이예요.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빨리 찾아야 하고 문화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어디에 더 많이 줘야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금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흥 이천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성, 의정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문화원다운 동아리. 그게 핵심일 거 같은데, 그래도 전체 문화원의 어젠다(Agenda)도 될 수 있겠지만 평택과 같이 전체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범사업 비슷하게 케이스대로 해 보는 건 어떤가요? 그걸 토대로 경기도문화원의 생활문화 정책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결론 도출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두천은 공식적인 생활문화센터의 활용과 현재의 한계 그리고 극복 방안.
평택은 지역 전체 생활문화동아리를 아우르는 방법론.
이천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 케이스 등을 각각 해보고 나서 또 이야기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대전대표이사 생활문화의 범위는 지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거면

다 가능해서, 문화원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전통강좌 프로그램, 자기가 예술가는 아닌 사람들, 프로는 아닌 사람들, 아마추어 안에서도 범위가 나눠지겠지만, 그래도 아마추어들로만 해서 폭을 넓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프로가 아니고 협회 이런데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될 것 같고.

저도 만 4년을 문화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감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문화원 연합회에서 전국단위사업을 추진할 때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은, 전국지방문화원이 질적, 양적으로 균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마 경기도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전수조사 자체는 자료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 한정된 예산에서 전수조사가 우리에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야말로 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동아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이에요. 04~08년도까지 제가 유성문화원 국장 시절에 보면 5-60개 강좌가 있었는데, 이걸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했는데 전환이 잘 안 되더라구요.
그것은 이미 문화학교로 고착되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전통쪽 하는 사람들은 오래 했기 때문에 봉사라도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그것마저도 안 되더라는 거죠.

2008년 이후에 동아리 붐이 들어서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지원금을 투여하고, 문화자원봉사라는 의미로 해서 동아리 활성화가 조금은 됐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동아리의 질적인 문제는 차이가 납니다.
어떤 문화원이든 기존 강좌는 강좌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중 강좌에서 생산적인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까지 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문화원에 있을 때 '책 보따리'라는 팀과 '우리고장 해설사'라는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문화원에서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든 거였죠. 문화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동아리가 사무국장이 일하기에 가장 좋았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했어요. 지금 말로 하자면 문화 기획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문화기획을 뭐라도 해 볼 수 있는 유형의 동아리와 이제까지 전통 강좌를 통해서 활동해 왔고 그나마 즐겁게 봉사도 할 수 있는 동아리로 분류해서 갈 필요가 있어요.
또 경험으로 대관 사업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문화원은 강좌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관리라는 것이 지금 말하는 생활문화 센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의 생활문화센터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즐기게 하고, 동아리를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동아리로 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문화 기획자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해서 문화원에서 직원이나 국장이 해보지 못하는 것들, 요소요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획하는 걸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금만 훈련시켜서 문화원 권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을거에요.
문화원의 공간이 허락되는 한 일반적으로 동아리가 오면 그 공간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강좌 운영으로 동아리가 들어올 공간이 없죠. 앞으로 그런 것은 줄어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동아리들, 자발적, 자율적 공간에 의지해서 하는 동아리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단계별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지역민들의 수요를 파악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책보따리' 활동을 할 때 길러졌던 인력들이 지금은 대전 지역에서 짱짱하게 잘 활동하고 있거든요.

도연합회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모신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전국의 생활문화사업현황이나 지역 문화 현황들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순간순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십사 합니다.

대전대표이사 작년에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한 곳 조사를 다녔는데 흐뭇했던 부분은, 전환하는 지점에서 생긴 변화였어요. 그 전에는 문화원이건, 문화의집이건, 그냥 수강생, 이용자로 있었다면, 생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오픈했던 곳은 '이 공간이 우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그 수준을 문화원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스스로 이름을 만들어 명패를 붙일 수 있는 자발성을 갖춘 지역커뮤니티 형성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일지.

시흥 문화자원봉사도 생활문화센터랑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대전대표이사 즐겁게 여가차원에서 하다가 이분들이 뭔가를 해보고자할 때 봉사를 하게 되면 훨씬 강화가 되는 거죠.

도연합회 문화원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강좌를 하고 싶다!'고 찾아오게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 숙제로 남습니다.

남양주 연구보고는 누군가에게 참고가 됐든, 어떤 하나의 역할로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실행하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활문화 쪽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경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대전대표이사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어떤가요.

평택　공간이 없는 곳에서도 충분히 시와 이야기해서 공간을 얻어낼 수 있어요. 평택의 경우,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얻어낼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앞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도연합회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리해서 다음번에 오늘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 백

02 사전간담회

3차 간담회

여 백

3.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 3차 간담회 '4인 4색'

일시 : 2016년 9월 5일(월)

장소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회의실

경기도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자….

도연합회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육성지원사업을 위한 3차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문화사업이 화두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문화사업을 문화원 차원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4개 문화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에 결합되어 있는 5개 문화원과 별도로,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연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포지엄을 하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및 아이템을 선정해 주시고,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경기도지방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고자 합니다.

평택 동아리 조사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연습 및 사무 공간, 재정 지원 3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기반시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았더니, 사람들에게 책상만 내어주면 되더라구요. 지원받고 싶어 하는 단체들을 모아보자 해서 공고를 내고, 선별해서 문화원과 함께 사무실을 쓰고, 가까이 있으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9월내에 선별하여 사용하도록 하려해요. 사무기기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시간을 잘 분배한다면 많은 동아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듯해요.

시에서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경우 효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결과만 중요하지, 과정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평택문화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또 사무실을 공유한다면 그들에게 부족한 행정력을 문화원에서 도와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구요.

사문위원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이 기타를 가지고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형태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공간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을 것이구요.

네트워크 사업은 함께 연결해서 공연하고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형태로 읽혀져야 합니다.

위원 작년부터 한 마을에서 요구가 있어요. 그 동네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분이 돌아가시면서 맥이 끊어졌는데, 그것을 그 마을에서

다시 복원시키고 싶어 하고 있어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문화원에 도움을 받고 싶다고 요구를 해 왔어요. 주민 동아리로 만들어서 향후 보존회로 만들어 '소리'를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는 요구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얘기해 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동아리의 처음 생성부터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담아보는 건 어떨까 생각하고 왔습니다.

심재 지금 문화원 동아리의 특징이, (강사에 의해) 사유화 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동아리 형성에는 반드시 한계를 두어야 돼요. 일정 역량이 되기까지(약 2-3년) 과정만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원을 시작할 시점부터 미리 선별해서 지원해야 해요. 그리고 그 범위를 성인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등 포괄적으로 열어야 해요.

이위 용인 통기타 네트워크는 생활문화사업으로 2차년도 지원 받고 있고요. 사업은 6월에 끝났는데, 권역별로 성남, 군포와 같이 7월에 공연을 또 했구요. 전국생활문화제 참가까지 하고 이후 통기타합창단 구성을 해서 10월까지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심 저희 동네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건 '상여회다지소리'와 '농요'에요. 돌아가시면서 무형문화 지정자와 후계자, 그리고 제자도 없는 상황인데, 마침 마을에서 의지를 가지고 연결하고 싶다고 하고 있어요. 앞선 세군데 문화원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활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우리는 새로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가능할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조위 작년까지 용인문화원은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문화원 강좌는 문화학교 중심이었고 원장님이 바뀌면서

다양하게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예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원 공간을 빌려서(문화원 소속은 아니예요), 그 분들 중에 용인에서 10년간 통기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팀을 중심으로 시작 했는데, 작년(2015년도)에는 주로 인원을 모으고 네트워크를 파악하는데 시간을 가졌고, 용인 수지, 기흥, 처인구를 순회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단순히 행사 중심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1차년도에는 장르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용인 생활예술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24개 동아리가 모집했고, 작년에는 네트워크 출범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죠.

그것(자체네트워크출범)을 목적으로 지인들과 관계망을 통해서 겨울에 공연을 했고(무료로), 올해(2016년)의 목표는 작년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만 공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모임을 목표로 잡았어요.
일상적 대표자 모임의 정례화이죠.

통기타라는 것이 연주와 노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기타 연주로 하는 4부 합창으로 진행하면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모임을 가지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행정단위)와 상관없이 20명이 조직됐고, 성남, 군포, 용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성남밴드, 군포 풍물, 용인통기타로 이루어진 팀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을 돌아가면서 공연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50명 합창을 했는데, 새롭게 음악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이 좀 고민이 되는데요.

문화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사업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또 용인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권역도 있고, 지역문화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생활문화사업에 여기저기 기관에서 뛰어들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문화재단과 예총도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해보고 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조연립회 문화원에서 근무하면서 생활문화사업을 하는데 문화원과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네요.

최성 우리 화성의 경우에도 문화원 소속이 아니라 자율적 모임인데, 재원과 행정 등의 관계가 있으니까 문화원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화원이 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가가 고민이에요. 관내 동아리 몇 팀을 보면 순수 동아리였다가 기반이 잡히면 그 중 몇 명이 나가면서 독립하기도 하고, 내부에서는 삐걱거리기도 하고… 문화원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끌어가야 하는가가 정말 고민이에요.

조연립회 그러니까 만들어진 동아리를 문화원이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에는 연결고리만 가지고 있고, 연결고리 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석 용인의 경우에도 3년 정도 후에는 자생적으로 가야하거든요. 하지만 지속 가능한 지원 방법은 마련해 둬야 해요. 성남문화재단 '사랑방클럽'처럼 자생적 모임을 가지게 하면서 독립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천같이 시(市)에서 '생활문화진흥조례'를 만들고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모든 조직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자생성만 두면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요.
'우리와 같이 있기는 하지만 움직임 자체는 자생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도연합회 지원 사항에 워크숍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 예총과 같이 용인 지역의 방향을 잡는 간담회 등을 해도 되는 건가요?

[illegible] 어떻게 보면 동아리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장르예술분야는 문화원이 독보적이에요. 그런데 문화원의 인식을 보면, 우리가 원조니까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바뀌었거든요. '자생성'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권력'으로 바뀌거나 하고 있잖아요. 그 사이 놓쳤던 것은 생활기술과 인문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가장 잘 한다고 자부했던 전승과 관련된 부분. 회다지 같은 경우가 그렇죠.

결국 성남문화재단 혹은 용인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갖는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고 열어 놓고 가야돼요. 생활문화에서는 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재단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원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주장만 하고 있고, 다른 모색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원을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편입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청년 세대들은 주거 단위도 셰어(공동나눔)로 가고 있는데 문화시설, 거점공간은 셰어하지 못하고, 동아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기득권 세력이 생겨납니다.
'이런 부분(공간을 셰어 한다는 개념)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도 방향 설정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같네요.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화원은 경량화 되어야 해요. 경량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들고 나감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담론으로 가지고 않으면 소위 꼰대 같은 세력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문화원이 생활 문화 차원으로 저변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특정 동아리에 위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셰어 오피스'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원이 생활 문화 차원으로 저변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특정 동아리에 위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셰어 오피스'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화성의 경우는 전승 문화 계승에 대한 문화원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고 그것의 향후 방향 설정에 관한 주제로 보여 집니다.
어느 날 향촌 기반의 공동체 사회가 도시화로 무너지고 나면서 사라져 버리게 된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이만큼 해 놓았지 않았는가(민속경연대회 등)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로 심는 벼와 기계 벼의 사이즈가 다른데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현실을 하나의 사례로 만들면 되는 건데…

'회다지'는 화성에만 있지 않아요. 이북 쪽의 '회다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향촌 기반의 사회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 화성의 경우에는 왜 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 하다 보면 전승 문화의 네트워크로서의 문화원의 역할이 나올거에요.
안된다면 지역의 군인이라도 협력해서 만들어야 되고, 학생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어요.
현 시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화성의 경우 예전에 당연한 것들인데 지금 와서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내놓고 자랑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당연하게 생각되어졌던 일상을 재발견하고, 계승방법을 찾아내고, 확장을 시켜야 하는 거죠.

용인은 장르예술이지만 장르예술을 넘어선 차원에서 생활문화 네트워크, 자생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의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했던 철학이 없어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는 것만 믿고, 고민해야 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머물러 있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인문학적 비판의식은 사라졌지요. 이 부분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있는 것만 믿고, 고민해야 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머물러 있다 보니 시대의 흐름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인문학적 비판의식은 사라졌지요.

[illegible] 그동안 화성문화원의 경우 동아리 구성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끼리의 학습이라는 형태로 강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다른 곳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화성문화재단에 동아리 등록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 버려요. 문화재단에 빼앗긴 기분이 드는 거죠.

[illegible] 지역문화진흥법이 발효되면서 지방문화원 측에서 보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애써서 오랜 시간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 것 같은 모양이 되고 있으니까요.

[illegible] 원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원사가 있으면 권력화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문화원사를 지으면 지역의 문화를 아우르는, 즉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형태가 되도록 만들겠다. 의견들을 달라.'라고 하니 좋아해요. 그동안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문화원이 지향해야 할 바가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커뮤니티센터 형태로 만들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illegible]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illegible] 공공성 확보. 공유공간의 셰어가 중요해요.
성남 '사랑방클럽'의 경우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나 사업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사업이 없어지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 부분을 문화원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다 도시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illegible] 문화원 차원의 전승 문화 육성, 발전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

[illegible] 그렇지 않아도 '지속성'에 대해 마을에 물어봤어요. 어느 순간 권력화가 되고 기득권 세력이 장악하는 구조가 되는데, 특히 전승과 관련된 부분은 세월이 가면서 열의가 있었던 사람들이 빠지게 되면 또 다시 사라지는 모양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장기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문화원에서 주도적으로 가기 보다는 마을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마을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나태해 지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 미리 짚어 봤는데, 그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더라구요.
지금은 어르신들이 하지만 놀이 문화로 또는 맥을 이어가는 마을로 지정되도록 노력해보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illegible] 지금이 땅따먹기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생활문화에는 아무 관심 없다가 갑자기 생활문화센터를 만든다는 것도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미 문화원에서 만들었던 것들이고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인데 말이죠. 소위 '강준혁 모델'이 아직 20년 넘게 유효하고 있는 셈이죠.

평택　문화원이 앞서가면 센터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화원 내에서 만들거나 문화원이 끌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문화원은 강사와의 관계도 중립적이예요. 예총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력화 조직화 되어 있는데, 문화원은 아직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독립원사가 있는 곳들도 많고, 기반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만 있어도 단체를 키워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성 맞아요. 작은 지원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도인탑허 용인의 통기타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문화원에서 흡수하려는 모양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있는 것 같네요.

차윤석위원 문화재단의 역할 규정의 문제인데요. 여전히 지원 사업의 전달체계 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해 왔던 일의 가치를 재확인 하는 것.
이전 60여 년 동안 해 왔던 문화 창달 등 고루하지만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이, 중요하지만 소소하게 여겨 왔던 것들의 복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복기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변화들에 의해 복기 되어지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지역의 문화재단, 문화원, 문예회관, 예총, 민예총 가운데서 지방 분권이나 문화 단체의 전문화, 생활문화의 다양화 등의 흐름 안에서 문화원 차원의 재 세팅을 위한 자기 진단과 제안들이 이번 <생활문화 심포지엄>을 통해 나타나면 될 것 같네요.

연구편
본 장(章)은 앞의 2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총3회의 간담회 과정을 통해
도출된 내용의 연장에 있다.
이 과정에서 5개의 주제를 선정,
각 5개의 해당 문화원이 주제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역에서 문화원의 현재를 읽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지역에 따라 각 문화원 역할의 다양함을 그대로 보여준 연구였다.

03 동아리운영사례 및 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 방향성 모색

실행편

본 장(章)은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에서 추진한
<경기생활문화플랫폼 "매생이(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16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펼쳐진 사업이다.
이 중, 4개 지방문화원(시흥, 이천, 의정부, 남양주문화원)의 실천성과를 모아 놓은 것이다.
본 사업에서 문화원의 미션은 "공급자 중심의 사업구조를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가능성 모색"이었다.
다양한 시도와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사업이 전개되었다.

본 장(章)을 통해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의 볼 수 있었으면 한다.

여 백

03 동아리운영사례 및 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 방향성 모색

연구편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문화원 생활문화사업의 확장가능성 모색
—
동두천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가. 들어가는 말

1) 생활문화시대의 도래

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을 정부 문화예술 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았다. 그 이후 문화융성위원회를 새로이 출범시키면서 문화분야 8대 국정과제를 선정하여 정부의 문화정책을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정책의 틀을 국민과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생활밀착형으로 전환시켰고 생활문화센터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태동하였다.

생활문화진흥사업은 중앙에서는 애초에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추진해오다가 2016년 5월에 (재)생활문화진흥원이라는 전담기관이 새로이 설립되어 지역 주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능동적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생활문화' 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내에 생활문화진흥팀이 생겼고 얼마 전에는 문화원과 지역문화단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문화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생활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문화공동체사업이라는 게 있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내용은 "임대아파트단지, 서민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주민이 예술을 통한 나와 이웃을 재발견하고

행복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론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생활문화사업과 차이가 나지만 "생활문화공동체"라는 사업명 자체만으로 보아서는 생활문화사업의 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 외에도 문화이모작사업, 시민문화예술교육 활동지원 '시시콜콜'이라는 사업 등도 다 생활문화관련 사업들로 볼 수 있다.
바야흐로 문화정책의 생활문화시대가 도래하였다.

2) 생활문화란?

그러면 생활문화란 무엇일까? 한 번은 짚어갈 만한 일이다.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화적 활동을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해오면서 같이 누려온 것이다. 그 이루어지는 행태는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수 천 수 만 가지로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져 왔고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지금까지 그 활동내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지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생활문화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와 같이 있었고 또 미래에도 항상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문화진흥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자니 생활문화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해 졌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생활문화라는 어떠한 것인지 명시해 놓았는데 동법 제2조 2항에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사하는 유형, 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 정의 해놨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생활문화의 범위와 장르는 어떠한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생활문화의 내용과 이루어지는 행태는 매우 다양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한

"생활문화활동조사를 위한 기초연구(조광호)" 연구서에 생활문화범위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가) 생활문화의 장르

이 연구서에 의하면 생활문화를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생활기타 등 4가지 장르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예술 :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예술장르에 해당하는 계열의 문화활동분야로서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국악/사진/건축/어문/만화 등을 들 수 있다.
- 생활기술 : 예술에 속하지 않는 장르로서 일상생활과 함께 동시에 자기개발, 여가, 취미 등의 목적으로 향휴하는 사회적 문화활동 분야로서
  · 생활과 밀접한 기술자격 취득 가능학습 및 교육활동
  · 개인의 자기개발적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즐기는 취미 및 오락활동 등을 들 수 있다.
- 생활교류 :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교류 및 매개와 사회적 공헌이 이루어지는 문화적 사회활동 분야로서
  · 사회적 문화활동(교류/매개/공헌)
  · 전통교육 및 보존(역사/전통 교육, 문화재지킴이 등)
- 생활기타 :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활동분야

나) 생활문화의 활동범위

동 연구서에서는 생활문화의 활동방식 또는 참여형태를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창작 : 생활문화주체 스스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형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 참여 :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서 참여하여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을 행하는 활동형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 교육 :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서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형태로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 향수 : 문화적인 무엇인가로부터 관람, 청취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수동적 활동형태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나. 생활문화사업의 내용

1) 생활문화진흥원

생활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사업의 주무 기관이다. 생활문화센터를 설치하는 사업 외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료에 의해 살펴본다.

가)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생활문화센터의 본격 운영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우수 모델의 전략적 육성과 생활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자생적 지역문화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기반 구축 컨설팅 운영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기반 구축 운영장 역량 강화 워크숍
- 생활문화센터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

나)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지역인재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비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양성을 통한 지역 밀착형 인재개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지원사업

'문화가 있는 날' 지역주민과 생활문화동호회가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일상속 문화체감도를 높이고, 자발적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다음의 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 권역별 생활문화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 전국생활문화제 개최

2)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진흥팀에서 추진하는 생활문화사업 2가지만 소개한다.

가)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이 사업은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활동중인 예술가들과 생활문화예술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교육활동을 진흥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일상의 문화를 발견하고 나누고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예술가와 단체의 역량을 활용해 생활문화교육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대상 생활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개문화원을 포함 14개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 생활문화예술단 순회파견사업

이 사업은 문화나눔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도내 소외계층 유관기관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 생활문화센터의 탄생

문화원과 생활문화사업과는 전혀 낯설지가 않다. 명칭만 약간 유사할 뿐이지 사실 그동안 문화원이 수행해왔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교육학습 프로그램과 소규모 문화 행사등이 생활문화사업의 한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생활문화센터가 2014년 이후 전국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는 국민소득증대와 주 40시간 근무제 등의 확대로 과거 노동중심사회에서 여가중심사회로 국민들의 문화참여 욕구를 충족하고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즐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정책적인 배경하에 설치되어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과 문화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장으로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지역사회로 연결하고 지역민 상호간 나누며 소통해나가며 생활문화를 즐기며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기능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간한 자료에 생활문화센터의 핵심기능 두 가지를 설명해 놓았는데

첫째,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문화의 거점역할을 하는 곳이다.

- 지역주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가꾸는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일상의 문화를 재구성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선순환의 토대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생활문화형과 확산의 거점공간
- 지역주민의 자발적, 일상적 문화예술 활동을 인큐베이팅하고 성장 지원

둘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장소와 기회의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이 생활문화의 주체가 되는 문화 민주주의 실현 공간
- 지역주민이 언제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잇는 지역공동체의 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문화활동 거점공간
- 지역주민, 주민커뮤니티, 동호회의 화합, 연습, 발표, 교류공간 제공

2) 생활문화센터의 비젼과 미션

생활문화센터는 공통의 비젼과 미션을 갖고 있다. 다만 각 지역의 생활문화센터는 공통비젼과 미션을 바탕으로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비젼과 미션을 구체적을 설정하여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의 비젼은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가 있는 삶 실현"이다.

그리고 세 가지의 미션이 있다.

첫째.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공간이다.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문화공간이자, 지역주민들에게 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를 주는 장소제공이다.

둘째, 새로운 자기표현과 창조의 공간이다.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의 학습, 체험, 생산의 공간이자, 삶의 가치와 재미를 발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일상의 문화, 지역의 생활문화를 형성하는 곳이다.

셋째, 관계형성의 장이다.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간 관계를 맺고 다양한 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문화가 형성되고 축적되는 장이다.

자료에 의하면 생활문화센터는 2014년 35개의 시설이 설치된 이후 현재 4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설치준비 중에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2017년까지 100개소의 생활문화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명칭은 "00 생활문화센터"로 통일되어 있으며 설치장소도 문화원, 문화의 집, 읍면동주민센터, 보건소, 대학교, 마을회관 등 입지형태도 다양하며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의 수원과 동두천을 포함 전국적으로 6개 문화원정도이다. 의외로 문화원에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라. 동두천생활문화센터소개

1) 개소 경위

동두천생활문화센터는 좀 특이하게 개소하였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동두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2014년 11월 새로이 설치, 운영되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설의 일부(약70평)를 할애받아 동두천시에서 국비 2천4백만원 시비 5천6백만원 도합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한 시설물로서 그 운영을 동두천시에서 문화원에 위탁하여 2015년 2월 10일 동두천생활문화센터로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시설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고 운영은 시에서 위탁을 받은 동두천문화원이 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권형 생활문화센터로 문을 연지 1년 9개월여의 시간이 흘렀다. 비록 짧은 연륜이지만 나름대로 이 지역의 생활문화사업의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2) 시설소개

동두천생활문화센터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아파트 등이 밀접한 곳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
- 지역주민의 일상속 문화시설 이용 및 향유기회 제공
- 생활문화동호회, 미술동호회 소모임 등 작업 및 모임 활동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커뮤니티공간, 문화나눔방, 문화소통방, 물품보관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시설별 면적 및 주요기능은 표1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 커뮤니티 공간 및 북카페

□ 안내직원(자원봉사자) 상주, 이용 안내 및 청소등 유지관리

□ 지역주민들의 아늑한 쉼터 및 주민상호간 소통공간

(교양서적 주기적 구입 및 교체)

□ 약간의 음료(커피, 차)제공

● 문화나눔방(공방)

□ 문화예술 동아리 작업공간 및 전시장 활용

□ 서예, 문인화 등 문화예술동아리 활동공간

● 문화소통방

□ 문화예술관련 문화강좌 운영

□ 문화예술동아리 및 관련 단체 회합 및 소통공간 제공

■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시설현황

공 간 명	면 적(㎡)	주요 기능
커뮤니티 공간	100	북카페, 주민교류 쉼터, 전시공간
문화소통방	60	동아리 회의, 교육, 교류 공간
문화나눔방	50	동아리 작품활동 공간
물품보관실	20	물품 보관

3) 이용인원

개소이후 월별이용 인원은 다음과 같으며 현황에 의하면 비교적 하절기에 이용인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초창기에는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인원이 적었으나 이곳에서의 생활문화동아리의 활동과 프로그램운영, 생활문화사업 진행 등으로 점차적으로 이용인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월별 이용현황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5	-	-	253	408	453	459	630	440	421	361	390	307	4,122
2016	339	277	635	565	533	749	604	635	418	451	-	-	5,206

4) 운용프로그램

동두천생활문화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다음과 같은데 문인화, 서예, 노끈공예, 가요교실은 기존의 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이고 생활사진, 성인문해, 화요시낭송은 신설 프로그램이다. 그 외 수시로 문화소통방을 이용한 각종 사회단체와 생활문화동아리 활동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다.

■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운용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시기	이용인원	비고
정기	문인화	주 2회	12명	기존
	서예	주 2회	15명	기존
	성인문해	주 3회	15명	신설
	생활사진	주 1회	12명	신설
	노끈공예	주 1회	17명	기존
	가요교실	주 1회	35명	기존
	화요시낭송	주 1회	8명	신설
비정기	문화원 및 산하단체 회의장소 활용,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동두천문인협회 등 5개 생활문화동아리 회의장소로 활용			

마. 동두천생활문화사업 추진내용

1) 생활문화동호회 구성 및 운영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는 2015년 7월 9일 동두천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구성인원은 동두천시관내 문화예술 유관기관, 단체 및 생활문화동아리 대표자 또는 사무국장(또는 총무)등 17명으로 위원장에 문화원장,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하였다.

생활문화동호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여 활동역할은
- 동두천생활문화센터 활동 프로그램기획 및 개발, 진행
- 생활문화동아리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보완
- 생활문화동아리 상호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2)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센터(2015년 사업명칭)

이 사업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15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역주민의 일상속 문화시설 향유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지역민에게 공존과 소통의 생활문화활동 공간제공, 생활문화예술을 매개로 행복나누며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앞서 기술한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형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던 생활문화예술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사진교실, 한지(규방)공예, 시낭송 및 문예창작, 하모니카합주, 한국화, 캘리그래피, 서예 등 7개 생활문화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운영하고, 성과보고회 형식으로 동 사업에 참여한 동두천생활문화동호인과 시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 한마당축제를 2015년 9월 16일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어울림 한마당축제의 행사내용은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작품 전시회(5종)
: 한지공예, 한국화, 서예, 캘리그래피, 사진

○ 시민대상 생활문화예술 체험(3종)
: 한국화, 한지공예, 즉석 사진뽑아주기

○ 신바람나는 문화예술공연 한마당(4종)

: 색소폰, 하모니카합주, 우크렐라, 송서율창 등 이었으며

특별초청공연으로 국악협회 동두천시 지부 회원들의 흥겨운 우리가락 한마당이 펼쳐졌다.

3) 행복누리 행복나눔 어울림 한마당(2016년 사업명칭)

이 사업 역시 예술경영지원센터(사업진행중 생활문화진흥원으로 업무이관)의 2016년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 생활문화동아리 문화예술활동역량 제고를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 일상속 자발적 문화향유 체감 확산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였다.

주요내용은

-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동호회 조직확대 및 운영활성화
- 생활문화동아리 발굴
-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 한마당축제였다.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 한마당축제는 6월 문화가 있는 날에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식전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여는 시, 청춘하모등 7개 생활문화동호회 공연과 경기명산담묵회 등 5개 생활문화동호회원들의 작품 전시 및 체험활동으로 많은 시민들과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바. 지역의 생활문화여건

1) 지역여건

한수이북 접경지역 인구 10만의 소도시로 오랫동안 미군의 주둔으로

기지촌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한 각종 개발규제로 지역이 낙후화 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 문화예술부문 예산지원이 열악한 상태임

2) 생활문화동아리 현황 및 활동실태

동두천시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는 <표 4>의 현황과 같이 28개로 파악되었는데 그 활동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생활문화동아리가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모임주기는 거의 대다수 동아리가 주1회 정도 모여 관련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형편 등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구성인원은 적게는 5명에서 많게는 35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활동근거지로는 대다수 동아리가 문화원과 아름다운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 동아리는 특정 문화시설에 속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No.	동아리명	회원수	모임주기	창립일	활동지	분야
1	Do Dream 클래식기타 앙상블	15명	주1회	2012. 1	아센터	음악
2	아름다운 스트링 챔버	13명	주1~2회	2013. 3	아센터	음악
3	빛사진동호회	8명	월2회	2013. 2	아센터	사진
4	한지붕 국악 '가야금' 동아리	14명	월1회	2009. 12	아센터	국악
5	놀이공동체 도담도담	8명	월2회	2014. 3	자생적	음악
6	가비사랑	15명	월1회	2014. 12	문화원	기타
7	행복(걸산마을 사물놀이)	16명	월1회	2016. 3	걸산마을	사물
8	동두천시 봉산탈춤회	15명	주1회	1997. 9	자생적	탈춤

No.	동아리명	회원수	모임주기	창립일	활동지	분야
9	늘품	10명	주1회	2015. 4	자생적	기타
10	송내동 알음알이 난타동아리	9명	주2회	2011. 5	송내동	난타
11	공공미술 마을꾸Ming	10명	주1회	2015. 4	자생적	미술
12	예술야학-토 플레이	12명	주1회	2015. 12	자생적	미술
13	경기 명산 담묵회	15명	주2회	2007.	문화원	문인
14	두드림실버합창단	34명	주1회	2011. 11	노인복지관	음악
15	음사모(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18명	주1회	2011. 6	노인복지관	음악
16	서예동아리	25명	주1회	2010. 12	노인복지관	서예
17	청춘하모	10명	주1회	2014. 2	문화원	음악
18	동두천두드림장애인미술동호회	5명	주1회	2012. 4	장애인학교	미술
19	행복한 시 읽기	7명	주1회	2016. 4	문화원	문학
20	실버색소폰 악극단	15명	주1회	2015. 3	문화원	음악
21	동두천 가요회	35명	주1회	2010. 3	문화원	음악
22	동은서도회	15명	주2회	2002. 3	문화원	서예
23	이담가야금회	10명	주1회	2016. 3	문화원	국악
24	한지사랑회	15명	주1회	2015. 5	문화원	공예
25	소향중창단	15명	주1회	2012. 5	소요동	음악
26	소요문학회	25명	주1회	1995. 3	자생적	문학
27	노끈공예반	20명	주1회	2009. 7	문화원	공예
28	어화좋을시구 이담풍물단	23명	주1회	2016. 4	문화원	사물
	계	432				

사. 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사업의 확장방안

동두천문화원은 공모형식으로 생활문화사업을 2년차에 걸쳐 진행했다. 지역의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실태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사업을 확장내지는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기술한다.

1) 생활문화동호인 네트워크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가) 네트워크 강화

동두천생활문화센터에는 생활문화동호회가 구성되어 있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동호회 상호간 정보교류와 의사소통 등 인적네트워킹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활동이 미미하다.

현재 파악되어 있는 28개 생활문화동아리중 생활문화동호회에 미가입한 17개 동호회를 생활문화동호회에 가입시킬 뿐만 아니라 관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들을 발굴해 나감으로 생활문화동호회의 조직을 확대하는 한편

필요예산을 확보하여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생활문화동호인들의 역량강화와 생활문화사업 활성화방안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문화센터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비젼과 미션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오프라인에서의 모임은 한계가 있다. 대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상의 네트워킹이다. 가칭 "동두천생활문화카페"를 개설하여 동두천시 관내 문화예술인이면 누구나 가입토록 하여

개개 생활문화동호인들의 행사 계획 등을 알리고 활동상황을 공유하며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생활문화동호인 상호간 동질감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나만의 센터 이용 이야기 발굴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일반인들보다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다. 나름대로 센터를 이용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활동상황들은 개개인별 천차만별이고 무궁무진하다. 지역주민들의 일상속 생활문화센터 이용 이야기를 발굴하여 공유하는 것이다.

물론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문화스토리공모전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하여 생활문화동호인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증폭시켜 나갈 수 있으며 모여진 이야기들을 책으로 발간해 지역민들과 함께 정겨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밀착형 생활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생활문화사업의 외연이 확장되려면 뜻을 같이 하는 생활문화동호인들이 자유롭게 만나 활동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 판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프로그램이다. 정례적으로 동호인들이 그들의 재능을 연마하고 동호인 상호간 소통하고 교류가 활발해 지면 생활문화사업의 외형은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프로그램인가? 그 해답은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고 많이 참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민밀착형 생활문화프로그램일 것이다. 이를 찾아 내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지만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등을 이용하여 조사하면 그리 어려운일은 아닐 것이다.

4) 행복누리, 행복나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연례화

문화원에서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과발표회 형식으로 사업 마무리 시점에 참여한 생활문화동호인 모두가 참여하는 행복누리, 행복나눔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그 성과가 좋아 연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동호회 상호간 유대감과 동질감이 형성되며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로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 교류확산과 지역주민의 자발적 생활문화예술활동 매개활동이 촉진될 것이다.

5) 제도적인 뒷받침 완비

생활문화사업이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추진되고 있듯이 지역에서도 생활문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이미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4개 광역시도와 부천시와 부산 사하구 등 2개 기초단체 등에서는 이미 생활문화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생활문화사업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국 240여개 광역 기초단체 수에 비해 6개 자치단체에서만 관련조례를 제정하였다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생활문화사업이 자치단체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다.

2015년부터 정부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시스템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자체가 주민스스로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활동한다 하지만 생활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워크숍 및 성과발표회 개최 등을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은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제정은 시급하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로 하여 각 시군에 적합한 생활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면 될 것이나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할 것이다.
-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사업 명시
-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계획하고 수립해야 하는 사항 명시
- 문화예술단체/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기준 명시
-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지원 명시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동두천문화원에서도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를 중심으로 가칭 "동두천시 생활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아. 마치며

"생활문화사업"은 요 근래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트랜드이다. 그러나 굳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일상적 자발적으로 모여 배우고 그 재능을 기부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펼쳐왔다. 그 활동 근거지는 문화원이었다.
문화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생겼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빠짐없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허브기관이다. 물론 그 활동영역과 활동수준은 지역실정에 따라 문화원마다 다르다. 그러나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고유의 기능은 똑 같다. 지역문화라는 커다란 영역안에 생활문화가 있다. 즉 문화원과 생활문화는 같은 길을 걸어 왔다.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문화원에서 해왔다.
생활문화진흥원이나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문화진흥사업은 명칭과 형식, 내용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사업방향은 같다. 문화원이 지금 까지 해온 지역문화진흥사업도 그 맥락은 같다.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부록 1.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운영규정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동두천생활문화센터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동두천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운영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동두천생활문화센터 활동 프로그램기획 및 개발, 진행
2. 생활문화동아리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
3. 생활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
4. 생활문화센터 운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보완
5. 생활문화동아리 상호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6.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개발 지원

제2장 구 성

제5조(구성) ① 본회는 본회의 목적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 운영규정에에 동의하는 20명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은 시청관계부서, 생활문화센터운영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대표(또는 사무국장)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의 의무)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규정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한다.
2. 본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7조(운영위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명예를 훼손 또는 실추시키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회 의

제8조 운영위원회의는 총회 월례회, 간담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말 개최한다.
2. 월례회 및 간담회는 매월 개최한다.
3. 위 회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개최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전체 재적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산처분 및 규정변경등에 관한 의결은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 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전까지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4장 임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간사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운영위원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운영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간사의 임기는 운영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5장 재 정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조달한다.

1. 본회의 재정은 동두천시와 동두천문화원이 지원하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본회 사업에 관심있는 개인 및 사회단체로부터 찬조금,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 본 규정은 창립총회에서 제정된 2015년 7월 9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준용)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여 백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문화원 생활문화사업의 확장가능성 모색
- 동두천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

동두천문화원 박용철

생활문화시대의 도래

- 2013년 박근혜정부 출범하면서 본격시행
- 생활문화진흥법의 제정, 시행
- (재) 생활문화진흥원 및 생활문화센터의 설립

생활문화의 장르

- 생활예술
  -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국악/사진/건축/어문/만화 등
- 생활기술
  - 생활과 밀접한 기술자격 취득 가능학습 및 교육활동
  - 개인의 자기개발적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즐기는 취미 및 오락활동 등
- 생활교류
  - 사회적 문화활동(교류/매개/공헌)
  - 전통교육 및 보존(역사/전통 교육, 문화재지킴이 등)
- 생활기타
  -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활동분야

생활문화의 활동범위

- 창작
  - 생활문화주체 스스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형태
- 참여
  -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서 참여하여 문화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을 행하는 활동형태
- 교육
  - 지역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로서 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형태
- 향수
  - 문화적인 무엇인가로부터 관람, 청취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수동적 활동형태

1. 생활문화진흥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기반 구축 컨설팅 운영
  -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기반 운영자 역량강화 워크숍
  - 생활문화센터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사업
- 생활문화코디네이터 양성사업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 우리동네 생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 권역별 생활문화교류 프로젝트 지원사업
  - 전국생활문화제 개최

2. 경기문화재단

-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사업
- 생활문화예술단 순회 파견사업

생활문화센터의 탄생

생활문화센터의 기능

- 생활문화의 거점역할을 하는 곳이다
-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이다.

생활문화센터의 비전

생활문화예술을 통한 문화가 있는 삶 실현

생활문화센터의 미션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 공간
- 새로운 자기표현과 창조의 공간
- 관계형성의 장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운영 방침

- 시민 누구나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
- 지역주민의 일상속 문화시설 이용 및 향유기회 제공
- 생활문화동호회, 미술동호회 소모임등 작업 및 모임 활동공간 제공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시설개요(1)

공 간 명	면 적(㎡)	주요 기능
커뮤니티 공간	100	북카페, 주민교류 쉼터, 전시공간
문화소통방	60	동아리 회의, 교육, 교류 공간
문화나눔방	50	동아리 작품활동 공간
물품보관실	20	물품 보관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시설개요(2)

•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 공간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시설개요(2)

• 생활문화센터 커뮤니티 공간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이용인원 추세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15	-	-	253	408	453	459	630	440	421	361	390	307	4,122
2016	339	277	635	565	533	749	604	635	418	451	-	-	5,206

동두천생활문화센터 운용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시기	이용인원	비고
정기	문인화	주 2회	12명	기존
	서예	주 2회	15명	기존
	성인문해	주 3회	15명	신설
	생활사진	주 1회	12명	신설
	노끈공예	주 1회	17명	기존
	가요교실	주 1회	35명	기존
	화요시낭송	주 1회	8명	신설
비정기	문화원 및 산하단체 회의장소 활용,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동두천문인협회 등 5개 생활문화동아리 회의장소로 활용			

생활문화동호회 구성 및 운영(1)

- 동두천생활문화센터 활동 프로그램기획 및 개발, 진행
- 생활문화동아리 회원 상호간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지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보완
- 생활문화동아리 상호간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가 발굴 및 역량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생활문화동호회 구성 및 운영(2)

•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창립총회

생활문화동호회 구성 및 운영(3)

•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4월 월례회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센터(2015년 사업)-1

-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 구성
-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 행복누리 행복나눔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 한마당축제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센터(2015년 사업)-2

- 생활문화동호회 5월 캠페인

행복누리, 행복나눔
동두천생활문화센터(2016년 사업)-2

- 생활문화동호회 어울림한마당축제

지역의 생활문화여건

- 지역여건
  - 한수이북 접경지역 인구 10만의 소도시
  - 각종 개발규제로 지역이 낙후화
  - 재정자립동가 낮아 문화예술기반시설 취약 및 예산지원 열악
- 생활문화동아리 현황 및 활동실태

활동분야	동아리수	비고	활동분야	동아리수	비고
음악	9		한국화	1	
사진	1		서예	2	
국악	2		공예	2	
사물	2		문학	2	
탈춤	1		기타	2	
난타	1		미술	3	

지역의 생활문화여건

- 지역여건
  - 한수이북 접경지역 인구 10만의 소도시
  - 각종 개발규제로 지역이 낙후화
  - 재정자립동가 낮아 문화예술기반시설 취약 및 예산지원 열악
- 생활문화동아리 현황 및 활동실태

활동분야	동아리수	비고	활동분야	동아리수	비고
음악	9		한국화	1	
사진	1		서예	2	
국악	2		공예	2	
사물	2		문학	2	
탈춤	1		기타	2	
난타	1		미술	3	

생활문화센터를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사업의 확장방안

1. 생활문화동호인 네트워크 강화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 네트워크 강화
   - 온라인 플랫폼 구축
2. 나만의 센터 이용이야기 발굴
3. 주민밀착형 생활문화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4. 행복누리, 행복 나눔 어울림 한마당 축제 연례화
5. 제도적인 뒷받침 완비

여 백

기존문화예술동아리의 지역네트워크 및 지역간 네트워크의 확장가능성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가. 생활문화 활성화 배경

1) 예술 패러다임의 변화

근대에 이르기 까지 예술은 소수의 교육받은 몇몇 사람들이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의 표지였고 독점적 활동이었다. 개인보다는 사회적 위계에 따른 삶의 질서가 중요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신성과 규범의 하부구조였고, 예술은 이런 질서 속에서 존재했다. 이런 흐름이 점차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권리가 적극적으로 분출된 근대사회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다. 이때부터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고, 소수의 예술가가 독점했던 예술체계는 점차 변모하기 시작한다.

근대사회의 일상생활은 각 개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졌고,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조직, 합리적 의사 결정과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했다. 각 요소들은 제도적으로 분리된 체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평등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고, 동질적인 의미를 구현하면서 공동체(결사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핵심요소가 되었다.

근대 이후의 예술 동호회는 수평적 결사체의 조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감성을 표현함으로써, 예술과 정치, 예술과 경제, 예술과 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현상을 <예술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분석하고, 각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예술의 관점을 <목적·주체·예술·성격>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술의 패러다임 변화[1]

	예술지상주의 관점	도구주의적 관점	생활예술의 관점 (문화공동체적 예술)
목적	예술 그 자체	비예술적 목적(경제 발전, 정치적 선전)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이해
주체	전문 창작가, 비평가, 애호가	경영자, 정치가, 기획자	시민-예술가, 예술가-시민
예술	숭배의 대상	기능적 수단	창의적인 과정
성격	문화자원-차별논리	동원자원	사회자본-연계적

이렇듯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기본권의 성장과 함께 탄생한 생활예술은 시민 공동체구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일상생활의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이라는 장치에 예술이라는 프리즘을 더하여 민주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일상생활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긴밀한 관련을 갖는 생활예술은 그 범위와 해석에 대해 상당히 큰 범주를 갖게 된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생활예술은 시민(주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2]
- 생활예술은 시민(주민)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공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토론하고, 창조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
- 생활예술은 시민(주민)이 일상생활의 사적영역, 즉 일,가족, 사교 등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활동[3]

2)지역문화진흥법과 생활문화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1월 제정되었다. 그 중 생활문화 활성화 부분은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을 법제화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1월 28일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생활문화센터를 설치(2014년 기준 약 31개)하여 지역별 동호회의 거점 공간을 설치하여 동호회원의 모임장소, 연습 공간, 발표 공간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문화 동호회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예술을 매개로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이 '삶의 질'과 관련된다는 인식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사회요인이 대두되었기 때문이고, 문화향유 정책의 주제가 공급자 지원(시설건립, 우수 예술가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를 확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주민)의 자발성, 민주성, 일상성, 시민성의 확대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주요한 원동력이라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써 향후 지원체계의 내실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색을 갖춘 발전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 주요 비교[4]

구 분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 정 일	2014. 1. 28	1972. 8. 14
정책대상	시민전체	예술인, 문화향유층
강조분야	문화자치(민간주도)	예술진흥
문화시설	복합화(생활문화센터), 내실화	문화기반시설(군·구별 건립)
주요장르	생활문화, 문화유산	순수예술
문화인력	지역문화전문인력 중심 (지역문화 발굴·기획·운영인력)	예술인 중심
주민참여	문화창조행위 참여	관람객
활용방향	문화브랜드강조, 콘텐츠화	예술축제

나. 지자체별 생활문화 활성화 현황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전부터 개별 지자체에서는 생활문화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대두되었다. 인천의 경우 문화수용자운동[5]에서 출발한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문화바람)가 있고, 성남은 심층적·체계적인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문화동호회 지원사업의 대표사례가 되었으며, 부천은 생활문화와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로 「생활문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추진체계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경기도(경기문화재단)는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 공동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를 범주화 하였고(예술교육형, 자발적 예술형, 커뮤니티예술형, 마을만들기형) 이를 기반으로 경기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의 심도 있는 발전을 도모하였다.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처음(2014년 5월)으로 '인천시 생활문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 7월 29일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동호회의 발표회 경비의 삭감과 면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생활문화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등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분야별 추진체계를 설정하였다[6].

□ 지역문화진흥계획 분야별 추진과제[7]

인천만의 문화가치 창조	① 인천만의 지역가치 발굴 1. 인천만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2. 인천의 '섬'가치 재창조 3. 인천 스토리텔링 ② 문화유산 발굴·보존·활용 1. 강화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2.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3. 지역전통문화 복원 ③ 문화브랜드 창조 1. 원도심 문화창조 사업 2. 축제·문화 브랜드화 3. 유네스코 세계책의 수도 인천
시민 생활 속 문화확산	①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1. 문화시설 조성 및 지원 2. 생활문화공간조성 및 지원 3.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②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1. 생활문화 공동체 형성 및 지원 2. 생활문화 발굴 및 지원 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 ③ 문화향유권 증진 1. 맞춤형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2. 취약지, 소외계층 지원 3. 시민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지원

지역문화 역량강화	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2. 지역문화 전문인력 현업 종사 지원 3. 청년문화인력 지원체계 구축 ② 지역문화주체 역량강화 1. 문화재단 역량강화 및 지방문화원 활성화 2. 지역문화단체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3. 문화예술 거버넌스 구축 ③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 1. 조례 제정 및 계획 수립 2. 문화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3. 문화재원 다각화 및 확충

특히, 시민생활속 문화확산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를 모급으로 문화향유권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는 과제로 생활문화센터의 조성 및 지원, 민간시설의 공공공간화 추진,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등의 기반시설 지원과 생활문화 공동체형성 및 활동 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지원체계 다변화를 구성 및 시행하고 있다.

2)경기문화재단

생활예술공동체에 대한 지원은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예술성과 시민성을 추구하는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경기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였다[8].

□ 20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료(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자료 요약)

생활속 문화향유 확대	① 문화가 있는 삶 일상화 1. 생활 속 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강화 2.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전개 3. 동네형 문화공동체 조성
생활속 문화향유 확대	② 지문화예술 생산·창작 거점화 1. 문화+꿈+열정의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조성 2.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 전략 거점 창출 3.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위와 같은 경기도의 기본업무계획을 통해서 경기문화재단은 "경기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2015.1)"를 통해 경기도 내 12개 기초문화재단의 생활예술공동체 조사를 시행하였다. 여기서 드러난 생활예술공동체의 범주는 <생활예술교육형, 자발적 예술형, 커뮤니티예술형 및 마을만들기형>으로 나누었고, 이어 전문 인력 및 조직, 생활예술공동체를 위한 공간조성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그리고 또한 생활예술공동체의 지원에 있어 자발성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열린 결정권 원칙-경연 지양 원칙-수평적 소통구조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행사 횟수나 참가인원 등의 지표상의 원칙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공론장의 형성 능력, 의결과정의 민주성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 생활문화의 태생적 원인에 초점을 맞춘 활성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9].

3)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성남의 사랑방문화클럽사업은 생활예술 정책에 대한 대표적 케이스로

분류된다. 사랑방문화클럽 지원정책의 원칙은 우수예술활동에 대한 평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활동 거점과 상호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6년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1,103개의 문화클럽을 확인하였다[10]. 이에 성남문화재단은 지역과 클럽형성계기 변수를 교차분석하여 성남시 문화클럽의 성격을 분석하였고, 이를 유형별로 나누어 특징을 정리하였다.

□ 군집별 성남 클럽의 형태[11]

	1군집	2군집	3군집	4군집
특징	정보교류 중심	친목활동 중심	지역사회 기여도 높음	발표 중심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낮음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낮음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높음	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관심 높음
	직장인, 여성, 주부 비중 높음	20대 비중이 높음	20대에서 40대까지 골고루 활동	30-40대 비중 높음
	수직,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낮음	수평적 보다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수직,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활발
	전문가를 통한 기능 습득, 관심사에 집중	정보교류에 관심 집중	오래되고, 전문가들의 모임 많음	군집3보다 사회참여 적음
클럽의 형태	배움클럽	친목클럽	공헌클럽	숙련클럽

이중 특히 「공헌클럽」은 자신이 좋아 하는 취미활동을 시작으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해서, 배움과 만남 그리고 숙련을 거치면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들의 재능을 발표하고 봉사하면서 인정받는 과정에서 자아의 성취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사회에 기여되는 형태로

'문화공동체적 예술'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12]. 즉, 생활문화예술의 정의에 가장 근접해있는 형태로, 이후 성남문화재단은 '시민 주체의 문화예술창조도시'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문화정책을 시행해 나가게 된다.

□ 성남문화재단 2단계 5개년 방향(발췌)

단계	기간	과제	내용
1단계 3개년	2006-2008	기초 다지기	시민주체 형성을 위한 시범사업
2단계 5개년	2009-2013	구조세우기	문화공동체 시스템 만들기
3단계 7개년	2014-2020	외관꾸미기	세계 속의 "예술시민의 도시" 정립

4)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부천시는 2014년 생활문화와 아트밸리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로서 「생활문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행할 체계로 거버넌스 연계를 통해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생활문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문화향유, 문화예술교육, 예술 창작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여 취미 활동을 넘어서는 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마스터플랜을 개발하였다.

□ 부천시 생활문화 3개년 추진계획(2014 발췌)

생활문화 기초 토대 구축	2013년 ○생활밀착형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컨설팅 ○생활예술 페스티벌 개최
	2014년 ○부천 생활문화예술복지서비스 체계 현실화를 위한 컨설팅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제정 공포 ○생활문화활성화 T/F 운영 ○생활문화 진흥 협의회 구성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협의체 구성(6개) 문화예술교육 및 워크숍(공무원 및 시민)
생활문화 활성화	2015년 ○생활문화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생활문화협의회 소위원회 구성 ○정책토론회 및 컨퍼런스 개최 ○문화시민헌장 선포식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생활문화시설 운영 ○프로그램 강사지원 ○생활문화 포럼 운영 ○생활문화관련기관 네트워크 가동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협의체 구성 확대
생활문화 확산 및 정착	2016년 ○생활문화진흥 및 교육관련 조례 및 규칙 마련 ○제1회 전국생활문화 예술 페스티벌 개최 ○아트밸리 시민학교 개설

□ 부천시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 내용 요약[13]

구분	내용	특성
목적 및 준비과정	- 생활 속 문화예술 지원시스템 구축 -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활동으로 생동감 있는 문화특별시 구현	- 2013년 부천시청(문화예술진흥팀)에 음악, 댄스 동아리의 가입신청을 받고, 장르별 동아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간운영 규칙마련 페스티벌을 개최
네트워크 현황	-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248개, 회원 7,894명으로 추정 - 4개 장르 중심 네트워크 결성 (기타, 색소폰, 밴드, 합창) - 4개 장르의 가입 동호회는 93개, 동호회원은 1,339명	- 가입조건: 부천시를 기반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취미 모임 - 음악동호회가 77개(31.1%)로 가장 많음
운영 및 지원 주체	- 부천시청 문화 예술가와 4개 장르 (기타, 색소폰, 밴드, 합창) 운영위원회의 역할분담 - 운영위원회: 연맹방식 장르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총괄 운영팀: 거점 공간 시설운영 연간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운영 영역별 동아리 사업 연계 - 운영위원회: 거점 공간 운영규칙 마련 페스티벌 기획 및 운영
지원 기준과 예산	- 동호회 지원예산 약 4억 6천만 원(2013기준)	- 경기도 내 문화예술과 예산에서 동호회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다른 시 지역보다 높음
사업 및 지원내역	- 공간 및 장비 지원 - 강사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사회 기여활동지원	- 공간재생을 통한 동호회연습거점 공간 제공(상동 연습장, 오정 연습장, 소사본동 라온) -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장비 지원 사업 추진 - 전문예술인과 연계하여 동아리 교육지원 - 부천시 생활문화예술 페스티벌 개최

다. 용인통기타네트워크프로젝트(2015년)

1) 추진배경

- 2010년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세시봉 열풍이 불면서 이로 인해 70년대 통기타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공공문화기관,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사설문화센터 등을 중심으로 통기타 강좌가 많이 생겨남.
-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강생들은 자생적으로 통기타 동호회를 결성하고, 자체적으로 기능을 연마하면서 지역 내에서 문화봉사활동과 자체발표회 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 현재 용인 지역에도 20여개의 통기타 동호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각 종 기관 및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기타 강좌를 통해 앞으로도 수십여 개의 통기타 동호회가 결성될 가능성 잠재
- 따라서 이번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통기타 동호회들이 교류하고, 통기타도아리축제를 기획·실행하여 '용인통기타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추진

2) 추진방향

- 용인 지역에 있는 통기타 동호회, 문화강좌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동호회간 교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주민 생활권인 3개구(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를 동·서부 권역으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교류하면서 권역별 통기타동아리축제를 진행하고, 이를 발판으로 용인 지역 전체로 교류 확대
- 단순한 교류와 1회적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통기타 동호회 간 교류를 바탕으로 장르 축제를 기획·실행한 후 생활문화동호회 장르 네크워크(용인통기타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프로세스를 구성

3) 사업목적

- 용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통기타 동호회 간 교류를 추진하여 개별 동호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단위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동호회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의 자생적인 사업 기획 역량 배양
- 이번 사업의 핵심 목표인 생활문화동호회의 교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문화를 매개로 지역의 과제(원주민과 이주민의 정서적 융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 마련
- 지역의 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인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전국적인 지역생활문화동호회 네트워크 확산에 기여

4) 추진 내용

단위사업	일 시	장 소	세부내용
용인통기타동아리 현황조사	6.~7.	용인시전역	-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기타반 방문 - 동아리 대표 및 강사 면담
용인통기타동아리 대표자회의	7.10(금)	죽전1동 주민센터	- 용인통기타축제 사업 공윤 - 추진위원(공동대표) 선출
축제추진위원회 (공동대표회의)	7.29(수) 8.24(월)	용인문화원 회의실	- 용인통기타축제(8월,9월) 준비, 점검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출범 일정 확정
용인통기타축제Ⅰ (기흥구)	7.18(토) 18:30	동백 호수공원	- 참가규모 : 총 600여명 •행사참가자 : 12팀, 80명 •관람객 : 500여명
용인통기타축제Ⅱ (처인구)	8.15(토) 16:00	용인시청 야외공연장	- 참가규모 : 총 200여명 •행사 참가자 : 8팀, 40여명 •관람객 : 200여명

단위사업	일 시	장 소	세부내용
용인통기타축제Ⅲ (수지구)	8.22(토) 19:00	죽전1동 탄천	- 참가규모 : 총 5,000여명 •행사참가자 : 12팀, 100명 •관람객 : 5,000여명
용인통기타축제Ⅳ (용인전체)	9.19(토) 18:30	동백 호수공원	- 참가규모 : 총 600여명 •행사참가자 : 9팀, 40명
용인통기타 네트워크 창립 총회	9.30(수) 11:00	용인문화원 회의실	- 참가규모 : 16개동아리 20명 참가 - 회의결과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회칙 심의 •공동대표선출

5) 세부 추진 내용

가) 용인통기타동아리 현황조사

- 용인 지역 통기타 동아리 및 통기타강좌 조사(6월~7월)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동호회, 자생동아리 강사 및 대표자 면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통기타반 개설 현황(총24개 읍면동 43개 교실)

	처인구	교실 수	기흥구	교실 수	읍면동	교실 수
1	포곡읍	2개 교실	신갈동	1개 교실	풍덕천1동	
2	모현면	1개 교실	구갈동	1개 교실	풍덕천2동	2개 교실
3	남사면	1개 교실	상갈동	2개 교실	신봉동	1개 교실
4	이동면	1개 교실	구성동	1개 교실	죽전1동	3개 교실
5	원삼면		상하동	1개 교실	죽전2동	3개 교실
6	백암면	1개 교실	기흥동	2개 교실	동천동	1개 교실

	처인구	교실 수	기흥구	교실 수	읍면동	교실 수
7	양지면	1개 교실	마북동	3개 교실	상현1동	2개 교실
8	중앙동		동백동	5개 교실	상현2동	2개 교실
9	역삼동		보정동	3개 교실	성복동	2개 교실
10	유림동		서농동			
11	동부동	1개 교실	영덕동			

나) 용인 통기타 동아리 대표자 회의

- 주민센터 기타반 강사, 동아리 대표와 준비회의 진행
- 용인 동부권 통기타동아리 대표자 회의 개최
- 용인 서부권 통기타동아리 대표자 회의 개최
- 대표자회의에서 용인통기타축제 추진위원 4명을 선출하여 공동대표 체계 마련

다)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 용인통기타축제1(기흥구) / 7.18(토) 18:30 / 동백호수공원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동그라미	어디서무엇이되어다시 만나랴 지난여름날의이야기	7	예그리나	기도 삼포로가는길
2	메아리	내가 일어나	8	이분쉼표	영상 그대
3	브타기타	준비없는 이별 귀뚜라미	9	징검다리	푸른시절 You Are My Sunshine

4	소리공방	비오는날의수채화 해변으로가요	10	한울림	기타맨 애수의소야곡+목포의 눈물
5	어쿠스틱 홀릭	먼지가 되어 사랑은은하수다방에서	11	해피 투게더	사랑해 꿈을 먹는 젊은이
6	7STRINGS	별이진다네 웨딩케익			

– 용인통기타축제Ⅱ(처인구) / 8.15(토) 16:00 / 용인시청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동그라미	지난여름날의 이야기 애수의소야곡+목포의 눈물메들리	5	소리여행	한사람 뭉게구름
2	바람들꽃	사랑해 길가에앉아서	6	우쿨트리	그대없이는못살아 촛불잔치
3	석정 뮤지션	사랑의 트위스트 누 이	7	징검다리	길가에앉아서 목로주점
4	소리사냥	오늘같은밤 밤이깊었네	8	해피 투게더	토요일밤 어디서무엇이되어다시 만나랴

– 용인통기타축제Ⅲ(수지구) / 8.22(토) 19:00 / 죽전1동 탄천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기타치는 동사무소 사람들	베사메무쵸 창문넘어어렴풋이옛생각	7	수지기타 하모니	환당고 빗속을둘이서
2	더와이즈	Wonderful Tonight Reflection Of My Life	8	수지한별 기타	숲속의 작은 집 토요일밤
3	마시멜로우	첨밀밀 사랑은창밖에빗물같아요	9	어쿠스틱	옛시인의노래 눈이큰아이
4	보헤미안	사랑없인 난 못살아요 한마음	10	어쿠스틱 파파	Take Me Home Country Bravo My Life
5	비르투오조	연가+진주조개잡이 민요연곡	11	하늘밴드	하늘에서온편지 오빠생각+반달

6	한마음 하모니	이루워질수없는사랑 바람이불어오는곳	12	행복한사 람들	Pipe Line 웨딩케익

- 용인통기타축제Ⅳ(용인시전체) / 9.19(토) 18:30 동백호수공원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더와이즈	Wonderful Tonight 먼지가되어	6	에버그린	밥만잘먹더라 귀거래사
2	브타기타	오늘같은밤 밤이깊었네	7	이분쉼표	님에게 영원한나의사랑
3	7STRINGS	하얀손수건 기차와소나무	8	향음	에델바이스 시월의어느멋진날에
4	어쿠스틱	옛시인의노래 눈이큰아이	9	강사프로 젝트	제비꽃,영원한친구 어쩌다마주친그대
5	어쿠스틱 홀릭	사랑은은하수다방에서 High High	10	초청가수 홍삼트리 오	기도, 내사랑 Delilah, 꿈의대화

라)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구축

- 용인통기타축제 사업의 성과를 모아 장르연합모임인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결성
- 총 24개 동아리의 가입, 용인통기타네트워크 회칙 승인
- 4명의 공동대표 선출(강사대표, 처인구대표, 기흥구대표, 수지구대표)

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자체 사업 사업

- 지원 사업이 종료된 후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자체 사업 수행

- 공연명 : 용인-성남 통기타배틀
- 일 시 : 2015.11.21.(토) 16:00
- 장 소 다인뮤직홀(오리역)
- 공연내용
  용인 '브타기타' vs 성남 '더와이즈'
  용인 '마시멜로우' vs 성남 '흰여울'
  용인 '이분쉼표' vs 성남 '포엠송'

- 공연명 : 故 김광석 20주기 콘서트
- 일 시 : 2016. 1. 9.(토) 16:00
- 장 소 : 다인뮤직홀(오리역)
- 참가동아리 총10개팀
  동그라미 메아리 보헤미안 어쿠스틱
  예그리나 징검다리 한가람밴드
  브타 기타
  해피투게더 통기타늘사랑

라. 통기타로 통하는 용인(2016년)

1) 추진배경

- 2015년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을 통해 용인 지역 24개 통기타 동호회를 중심으로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구성하고 일상적인 활동 진행
- 생활문화동호회 지원 사업을 통해 2016년에는 '용인통기타네트워크'가 자발성을 기초로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추진방향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프로세스 구성
- 주민 생활권인 3개구(처인구, 기흥구, 수지구)로 나누어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3회 진행하면서 조직 확대
- '문화가있는날' 창작워크샵(용인통기타연합노래단프로젝트)를 통해 개별 동호회의 역량 강화와 새로운 예술적 체험 계기 마련

3) 사업목적

- 통기타 동호회 활동을 통해 급속하게 도시화된 용인 지역 사회 내의 격차를 극복하고 지역 커뮤니티의 문화공동체 회복
-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를 통해 개별 동호회의 역량 강화 계기 마련
- 네트워크 차원의 창작워크샵을 통해 생활예술의 질적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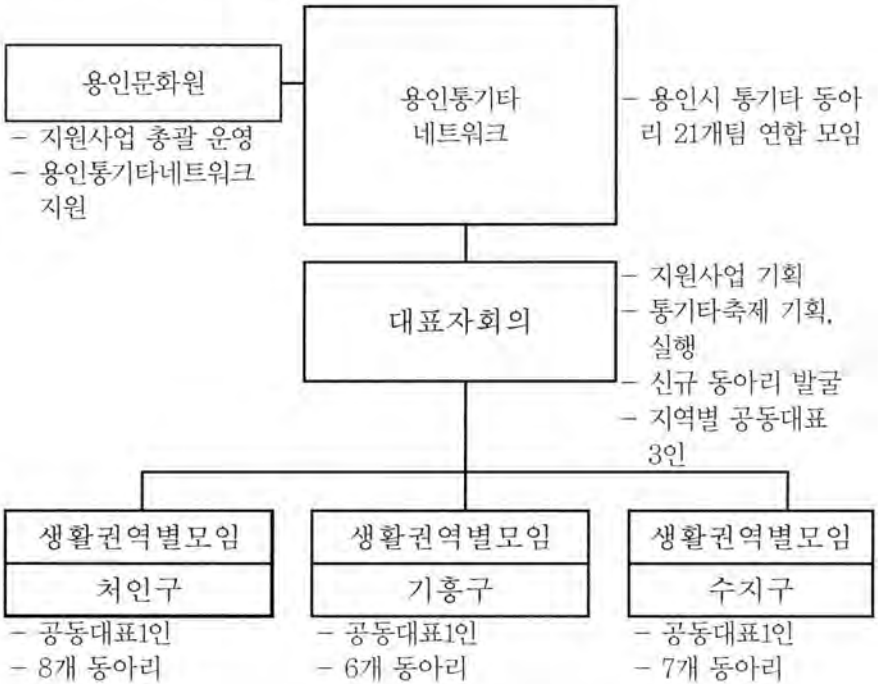
4) 추진 실적

단위사업	일 시	장 소	세부내용
매마수 창작워크샵 용인통기타연합노래단	4.27(수) 15:00	다인뮤직	- 통기타 합창 연습
용인통기타축제Ⅰ (수지구)	4.30(토) 16:00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탄천	- 참가규모 : 총 600여명 •행사참가자 : 7팀, 36명 •관람객 : 500여명
매마수 창작워크샵 용인통기타연합노래단	5.25(수) 15:00	용인문화원 다인뮤직	- 통기타 합창곡 연습
용인통기타축제Ⅱ (처인구)	5.28(토) 18:00	용인시 처인구 농촌테마파크	- 참가규모 : 총 600여명 •행사참가자 : 12팀, 80명 •관람객 : 500여명
용인통기타축제Ⅲ (기흥구)	6.26(일) 18:00	용인시 기흥구 동백호수공원	- 참가규모 : 총 1,000여명 •행사참가자 : 12팀, 80명 •관람객 : 1,000여명
매마수 창작워크샵 용인통기타연합노래단	6.29(수) 15:00	용인문화원 다인뮤직	- 통기타 합창 연습

5) 세부 추진 실적

가) 용인 통기타 동아리 대표자 회의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자체 조직의 역량으로 사업 진행



나) 문화가있는날 창작워크샵 '통기타합창단 통통용인 노래단프로젝트'

- 목적 : 용인 통기타 연합노래단 육성
- 참가대상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소속 회원 30여명
- 사업내용
  - 용인통기타노래단 구성 및 공동 창작을 통한 레파토리 습득
  - 용인통기타축제에 합동 공연 참가
  - 워크샵의 결과물로 통기타삼국열전에서 통기타 대합창 공연

다)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 용인통기타축제Ⅰ(수지구) / 4.30(토) 16:00 /죽전동 탄천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동그라미	먼훗날 젊은태양	5	페파민트	차라도한잔 그대없이는못살아
2	동백메아리	나어떡해 그댄봄비를무척좋아하나요	6	이분쉼표	그대먼곳에 아빠와크레파스
3	수지 기타하모니	젊은연인들 나같은건없는건가요	7	분당요들클럽	아름다운베르네산골 테네시요들폴카
4	해피투게더	사랑하는마음 사랑의트위스트			

- 용인통기타축제Ⅱ(처인구) / 5.28(토) 18:00 / 용인농촌테마파크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해바라기	여고졸업반 여고시절	6	페파민트	차라도한잔 행복의나라로
2	나인스타기타	두 개의 작은별 사랑해	7	행복한사람들	바램 작은새
3	보헤미안	어서 말을 해 한마음	8	어쿠스틱홀릭	화장을고치고 누구없소
4	어쿠스틱	옛시인의노래 숨바꼭질	9	이분쉼표	그대먼곳에 아빠와크레파스
5	에그리나	사랑하는그대에게 Let it be me			

- 용인통기타축제Ⅲ(기흥구) / 6.26(일) 18:00 / 동백호수공원

	동아리명	공 연 곡		동아리명	공 연 곡
1	교동에서기타치는사람들	내 일 고래사냥	1	어쿠스틱파파	사랑합니다 일어나

2	동백메아리	별이야기 귀거래사	2	소리공방	붉은노을 내가말했잖아
3	동부통기타	연가 울릉도트위스트	3	예그리나	기도 사랑하는그대에게
4	레인보우	혜화동 제주도의푸른밤	4	징검다리	짝사랑 나는못난이
5	브타기타	세상모르고살았노라 사랑의썰물	5	한가람밴드	여름 나성에가면
6	보헤미안	홀로아리랑 어서말을해	6	한울림	영상 푸른시절
7	7Strings	내일이찾아오면 편지	7	동뱅청소년	Obladi oblada 밥만잘먹더라

라) 2016년 지원사업 참여 현황(총 24개 동아리 191명)

	동호회	참여인원		동호회	참여인원
1	교동에서기타치는사람들	4	13	어쿠스틱	3
2	동그라미	6	14	어쿠스틱홀릭	7
3	동백메이리	14	15	예그리나	17
4	나인스타기타	6	16	이분쉼표	5
5	보헤미안	14	17	징검다리	5
6	브타기타	4	18	페파민트	6
7	동백동청소년기타	9	19	통통용인	15
8	동부통기타	9	20	한가람밴드	12
9	레인보우	4	21	한울림	10
10	세븐스트링스	6	22	해바라기	10
11	수지기타하모니	6	23	해피투게더	6
12	어쿠스틱파파	6	24	행복한사람들	7

6) 용인·성남·군포 통기타 三國熱戰

- 권역의 생활문화동호회 교류 프로젝트를 통한 생활문화 진흥
- 지역간 차별화된 생활문화 콘텐츠 교류를 통한 상호 문화역량 강화
- 사 업 명 : 군포·성남·용인 생활문화 삼국열전(三國熱戰)
- 참여주체

용인문화원(용인통기타네트워크), 성남문화재단(사랑방문화클럽), 군포문화재단(군포생동감)

일시
2016년 7월 30일(토)
10:00~21:30

장소
용인 동백호수공원
상설무대

참여대상
3개 지역 13개
통기타동호회 81명

프로그램
통기타동호회 네트워킹 및
마스터클래스, 교류공연

진행순서

네트워킹 & 마스터클래스(10:00~13:00)
3개 지역 13개 동호회 교류
통기타 대합창 마스터클래스(강사 신성봉)

교류공연(18:00~21:00)
Ⅰ. 오프닝 어쿠스틱힐링, 보헤미안, 세븐페파
Ⅱ. 통기타 삼국열전
Round 1 여성시대 블루버즈, 고은소리, 소리공방
Round 2 통생통사 한울림소리, 브타기타, 분당요들클럽
Round 3 진검승부 소리모아, 여섯줄사랑, 이분쉼표
Ⅲ. 통기타 대합창 통통용인, 전체참가동호회

교류프로젝트명	참여동호회			계
	군포	성남	용인	
여섯줄의 하모니	소리모아(5) 블루버즈(3) 한울림소리(6)	분당요들클럽(4) 고은소리(6) 여섯줄사랑(10)	어쿠스틱힐링(4) 소리공방(7) 보헤미안(7) 이분쉼표(5) 세븐페파(4) 브타기타(5) 통통용인(15)	13개 동호회 (81명)

7)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워크샵

가) 연합노래단 '통통용인' 마스터클래스

- 일 시 : 2016. 9.28(수) / 10. 7(수) 총 2회
- 통기타합창곡 레파토리를 전문 강사의 마스클래스 진행
- 제27회 처인성문화제(용인문화원), 경기인천생활예술한마당(성남문화재단) 참가

나) 용인통기타네트워크 합동 워크샵

- 일 시 : 2016.10.22.(토)
- 장 소 : 용인청소년수련관
- 강의1. '천년의 사랑' 작사가 이현규의 노래이야기
- 강의2. 노래를 잘 부르기와 발성

각주_

1)심보선, 「새로운 예술과 문화공동체」, 『2008 문화정책 대화모임 자료집』, 성남문화재단, 2008. 재구성

2)『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2012』생활예술은 전문예술의 창작 기법을 그대로 모방할 수도 있고, 대중문화를 차용할 수도 있고,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3)『심보선, 강윤주, 2010』 예술 동호회는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어떤 동호회는 사회적 사교에 치중하고 어떤 동호회는 예술적인 기예의 습득에 치중하며 어떤 동호회는 매우 폐쇄적이며 어떤 동호회는 매우 개방적이다

4)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안)

5)『시민의 자발적 문화활동과 문화공론장의 구조변동에 관한 연구. 박승현. 2012.12』 지역 내 양질의 문화예술을 유치·관람하자는 형태의 운동.

6)『조현성, 문화관광연구원 2014.』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지원과 구축 방안 발췌.

7)『인천시. 2015.1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안)

8)『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2015』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발췌

9)『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2015』경기 생활예술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발췌

10)시민문화예술클럽의 욕구와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2006년 8월에 실시.(전수환·박승현, 2006: 10)

11)시민문화예술클럽의 욕구와 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 전수환·박승현, 2006: 16

12)상동

13)『조현성, 문화관광연구원 2014.』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지원과 구축 방안 발췌.

여 백

지역네트워크 및 지역간네트워크의 확장 가능성

용인통기타네트워크

나명철/ 용인문화원

예술정책의변화

- prosumer = producer/professional + consumer
- 생비자 = 생산자/전문가 + 소비자
- 영국 자발적예술 미국 비공식예술 혹은 참여예술
- 2004년 [새예술정책]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 2008년 [주요 예술지원정책개선방향]
  생활 속 예술환경조성

지역문화진흥법과 생활문화

• <지역문화진흥법>의 목적

1.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
2.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
3.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문화 활성화

• <지역문화진흥법>의 의의

1. 문화예술이 '삶의 질'과 관련된다는 인식 대두.
2. 문화향유 정책의 주제가 공급자 지원(시설건립, 우수 예술가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 확대

생활문화 활성화 현황

■ 생활문화진흥원

1. 설립한 우리나라 생활문화 전담기관(2016.5)
2. 생활문화시설조성,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 인천광역시

1. 지자체 최초 '인천시 생활문화지원조례' 제정(2014.5)
2.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분야별 추진 체계 설정.

※ (표)지역문화진흥계획(인천시) 분야별 추진과제

생활문화 활성화 현황

■ 생활문화진흥원

1. 2016. 5. 설립한 우리나라 생활문화 전담기관
2. 생활문화시설조성,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 인천광역시

1. 지자체 최초 '인천시 생활문화지원조례' 제정
2.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분야별 추진 체계 설정

지자체 생활문화 활성화 현황

• 경기문화재단

1.생활문화팀 신설(2015)
2.생활문화플랫폼 생활문화포탈 매생이

■ 성남시 '사랑방 문화클럽'

1. 최초로 생활예술 지원 정책 실행(2007)
2. 사랑방문화클럽네트워크 활동 10년차

■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1. 기초 지자체 최초로 생활문화지원조례 제정(2014.10)
2. 생활문화지원센터 생활문화3개년계획수립

용인통기타네트워크 목표

- 통기타 동호회 간 교류를 통해 개별 동호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장르 단위 네트워크** 구축
- 생활문화동호회의 교류, 공동 프로젝트 진행,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의 과제(원주민과 이주민의 정서적 융합)**에 대한 인식 공유
- 준비에서 마무리까지 **동호회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실행될 수 사업 기획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추진 방향

- 용인 지역 통기타 동호회, 주민센터 문화강좌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동호회간 교류**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사업을 우선 진행하고 용인시 지역 전체로 교류를 확대
- 단순한 교류와 1회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고 통기타 동호회 간 교류를 **용인통기타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를 구축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추진 일정

단위사업	일시	사업내용
통기타동아리현황조사	6월	주민센터 강사, 동아리 방문
동아리대표자회의	7월	사업 공유, 공동대표선출
공동대표회의	7,8,9월	통기타축제 기획
통기타축제1(기흥구)	7월	기흥구 통기타 동아리
통기타축제2(처인구)	8월	처인구 통기타 동아리
통기타축제3(수지구)	8월	수지구 통기타 동아리
통기타축제4(용인시)	9월	3개구 대표 동아리 선발
통기타네트워크구축	9월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창립

9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준비

- 통기타 동아리 조사

  주민자치센터 공공복지기관 온라인모임
  주민자치센터출신자생동아리 지역사회단체

- 대표자회의

  15개 동아리 참가
  공동대표 4명 선출
  (지역, 모임특성 안배)

10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준비

- 공동대표회의
  축제기획단 역할
  7월~9월 4회 진행

  축제 실행 계획 논의
  네트워크 창립 준비

11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I (기흥구)

- **일 시 / 장 소** 7.18(토) 동백호수공원
- **참 가** 12개 동아리

12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Ⅱ(처인구)

- **일 시 / 장 소** 8.15(토) 시청야외공연장
- **참 가** 8개 동아리

13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Ⅲ(수지구)

- **일 시 / 장 소** 8.22(토) 죽전1동 탄천
- **참 가** 12개 동아리

14

용인통기타동아리축제 IV(용인)

- **일 시 / 장 소** 9.19(토) 동백호수공원
- **참 가** 9개 동아리

15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출범

- **일 시 / 장 소** 9.30(수) 용인문화원
- **내 용** 창립총회(24개), 회칙승인, 공동대표선출

1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출범 후 자체 사업

- **용인성남통기타교류(11월),김광석20주기추모공연(16년1월)**

17

201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사업

- 사업명 **통**기타로**통**하는**용인**으로 네이밍
-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용인통기타네트워크**가 중심
- 장르네트워크에 맞는 창작 **통기타합창단** 시도
- 경기도 타 지역과 **통기타삼국열전** 진행

18

201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사업

201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사업

201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사업

21

201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사업

22

201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사업

23

201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사업

24

2016 용인통기타네트워크 사업

경기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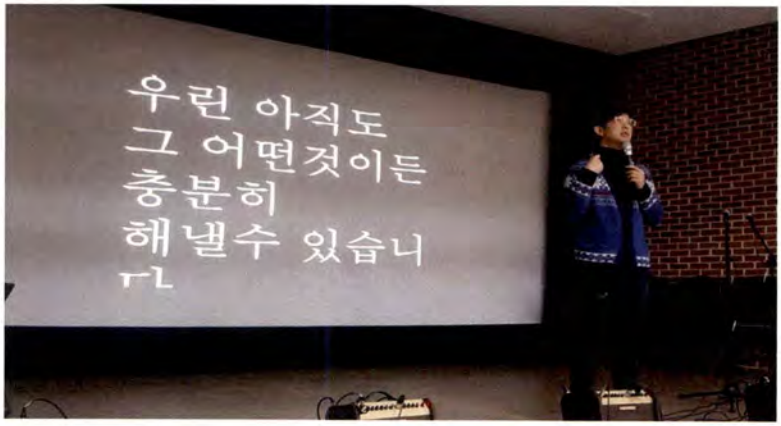
경기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

27

경기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

28

경기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



29

경기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

30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과제 1. 지원과 주체 관계 설정

- **문화원**
  - 공동체의 발전 지향
  - 계획성　지속가능성
  - 자체적인 정책사업 수행의 한계

- **용인통기타네트워크**
  - 개인의 취향　발전 지향
  - 자발성의 확대 과제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과제 2. 2017년 사업 방향

- 결과 보다는 과정 중심으로 설계

- 자발성의 확장 : 공동주최/주관

- 문화공동체확장 : 3개구별 단위 60개로 확대

- 장르적발전 : 악보안보기　중층화　부천시교류

- 총화내용 : 604용인통기타기네스

용인통기타네트워크 과제 3. 지역 내 관계 설정

- 생활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문화재단 예총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 지역의 생활문화 발전을 위해 협력 필요

- 1개로 단체로 일원화 지양

- **문화원 - 장르 중심의 지역생활문화네트워크(합창,풍물 등)**

지역 내 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 및 지원의 HUB기관으로써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

평택문화원 사례

가. 개요

2013년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우며 우리의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를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생활문화예술과 문화동아리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생활문화예술, 또는 동아리는 소수의 직업적 엘리트에 의해 독점된 예술이 아닌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을 의미한다.

2014년 1월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동호회 지원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의 일환으로 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1월 28일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화의집)등이 조성 운영되어 국민에게 많은 문화예술의 보급과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연이나 전시에 대한 단순관람과 강습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특화되어 있어 점점 높아져가는 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와 욕구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기존 문화기반시설과 지방문화원의 운영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예술가와 관객, 창작자와 소비자의 기존 관계에서 벗어난 국민들이 살고 있는 일상적인 삶속에서 문화예술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데 있어 생활문화예술동아리의 활성화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정부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정책에 따른 지역차원의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환경조성에 따른 정책이 필요하며 현재 평택시 문화정책은 전문문화예술단체 위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자생적 생활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등의 간접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하며 문화예술 수요자로서 시민들이 직접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일상 생활공간의 문화공간화 등 환경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문화원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생활문화예술동아리란 전문예술인에 해당하지 않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모임 및 단체를 말한다.[4] 문화생태계의 풀뿌리인 문화예술동아리의 성공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첫째,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을 비롯한 지전 제시자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문화예술동아리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총괄적인 리더 역할을 해야한다. 둘째, 체계적인 조사 기법에 근거한 '생활문화동아리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생활문화동아리의 규모 및 활동의 성격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실태조사 후 생활문화 동아리 간 그리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확산하여 지역의 문화공동체 형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를 통해 평택시민들의 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정책과제을 도출한 후 향후 사업 주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풀뿌리

가) 문화예술 동아리

일반시민 및 문화예술 향유자 중심으로 자생적, 자율적으로 문화 활동을 펼치고 가꿔나가는 사람들의 풀뿌리 모임으로[15]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 활동이나 소위 예술계라고 불리는 특정 제도나 집단 안에서의 활동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의 영역, 즉 일, 가족, 사교 등의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개발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공공단체, 주민자치센터, 문화시설, 아파트, 학교, 종교기관, 기업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온라인 커뮤니티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동아리 등이 대상이며 이는 개인 단위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문화를 학습하고 문화적 가치를 공공적으로 교환하거나 파급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나) 문화예술 동아리의 유형[16]

(1) 친목형 동아리

친목활동을 위주로 하고 취미와 관점을 공유하는 동아리

(2) 학습형 동아리

학습 및 정보교환 활동이 위주이며 커뮤니티 교류나 지역사회 참여는 저조한 동아리

(3) 참여형 동아리

학습 및 발표 활동 외 지역사회 참여를 시도하는 동아리
예) 악기교육을 통한 공연 동아리
(4) 공헌형 동아리
높은 리더십 지수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아리
예) JC,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등

문화예술동아리 유형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활동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적 조직, 주체적 결정, 주체적 표현의 원칙을 구현하는 활동적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유형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동아리의 성격에 따라 어떤 동아리는 사회적 사교에 치중하고 어떤 동아리는 예술적인 기예의 습득에 치중하고 어떤 동아리는 매우 폐쇄적이며 어떤 동아리는 매우 개방적이다.
친목형 동아리, 학습형 동아리, 공헌형 동아리와 달리 참여형 동아리는 꾸준히 지역사회 참여를 시도하고 하고 있으나 시간적, 공간적, 금전전 어려움을 공적영역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극히 적은 부분에서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외국의 동아리 지원사례
가) 영국: Voluntary Arts Network(VAN)
문화예술 동호회와 유사한 개념이 'Voluntary and amateur arts group'이다. 자기 계발, 네트워킹 또는 여가활동으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그 단체 구성원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예술 그룹을 지칭한다.
영국인의 예술참여 중 20% 정도는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약 49,140개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있다. 공공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게 특징이다.
VAN은 1991년 영국과 아일랜드의 각 예술 및 공예 분야의 포괄 조직을 연결하는 통설기구 형태로 시작되었다. 지역사회 다양한 단체들과 협력을

맺으며 활발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협력관계 단체는 지역사회 축제(조직)이다.

나) 벨기에

2004년 통계조사에 따른 네덜란드어 지역에서만 8천 여 개의 자발적 예술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원정책의 방향은 다문화 사회인 벨기에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게 문화집단 및 개인 간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 프랑스

1996년 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의 절반이 자발적 예술 동호회 활동을 한 적이 있으며, 그중 23%는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각 지방 정부의 자율권이 강하여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은 거의 없으나 예술동호회를 위한 공간은 지원하고 있다.

라) 독일

자발적 예술 동호회가 각 주별로 활성화되어 있고, 센터 안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이 가능하며 장르 간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지역의회나 주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으며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연방정부가 관여하며 지역, 연방 차원의 위원회나 행정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마) 미국

중앙정부가 자발적 예술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고 지역정부의 소관이다. 직접적 지원보다는 지역의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 일본

자발적 예술가들의 전국 축제인 '국민문화제'가 1886년부터 일본 문화청과 지역 정부의 협력 하에 개최되고 있다. 매년 다른 지방 정부가 주최를 하고 아시아 각국의 문화예술단체를 초청하여 지방문화의 품격을 격상시키고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3) 국내 동아리 지원사례

가) 성남문화재단_성남문화클럽

사랑방문화클럽 지원사업은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주체가되어 클럽들의 자생적 활동을 강화하고,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에 따라 성남시의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만든 프로젝트이다. 초기 사랑방 문화클럽 구축을 위해 실태조사(2006년), 클럽지기 운영위원회 구성(2007년),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2008년 3월 100개 클럽 포함)을 시작하였다.

•사업 내용

(1) 문화클럽 활동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첫째 기관, 시설, 기업, 동네, 학교 등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하고 있다. 둘째 문화 예술 강사, 기획자 등 전문예술가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셋째 장르별 전국단위사업 및 국제심포지엄 등의 해외 네트워크 단초를 마련하고 있다.

(2) 공간 지원 사업

연습 및 공연, 전시공간 확충(사랑방아트홀, 사랑방 지정공간)을 위해 성남 지역 공공기관, 민관기관, 기업 등과 접촉하여 유휴공간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3) 문화통화사업

문화예술 생산, 소비, 유통의 자생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작되었다.

2012년 6월을 기준으로 문화클럽 회원 97명, 개인 회원 445명, 기관 회원 15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문화 자원봉사, 지역 통신원 활동, 문화예술 수업을 하는 품앗이학교 강의로 문화통화를 지급받고, 이를 문화공간(문화사랑방) 이용, 공연 및 전시, 품앗이학교 수강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성남의 문화예술동호회,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창작활성화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다.

(4) 사랑방문화클럽 페스티벌 개최

매년 지역 내 동아리들을 중심으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클럽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민간주도의 축제로 문화재단은 관리만 담당한다. 더 많은 클럽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 아마추어 클럽들이 전통공연장과 미술관에서 그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는다.

(5) 문화공헌지원 프로젝트

2008년부터 5개 문화클럽으로 구성된 하나의 팀이 5회 이상 지속사업을 실행하는 프로젝트팀에 대해 지원한다. 선정된 팀은 소외계층과 함께 문화예술지원, 마을문화예술 활성화사업, 공공시설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한다. 이에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섹터가 생겨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마을축제로 이어가고 있다.

나) 인천문화재단_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사업개요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문화활동을 육성하고자 한다.

•사업 내용

사업은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시민/청소년 문화예술활동(발표활동 및 발표를 전제로 한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간접 지원을 통해 시설, 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 강사 등) 연계 등을

지원한다. 원하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도 함께 병행한다.

인천시는 자생적인 생활예술동아리의 지속적인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하여 인천생활문화예술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다.

다) 기타 사례

□각 지역-권역별 생활문화 관련 사업 및 활동 주요사례

권역	사업명	사업 및 활동주체
서울	마을예술창작소	서울시
	좋아서-예술동아리	서울문화재단
	문화재단 사업	성북문화재단
	문화원 사업	성북문화원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생활연극네트워크	연극학교
	삼각산재미난마을	삼각산재미난마을(민간)
인천	시민문화활동지원사업	인천문화재단
	인천왈츠	인천문화재단
	연합사업	인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연합 놀이터
경기	사랑방문화클럽	성남문화재단
	부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부천문화재단
	학습원 프로그램	광명 평생학습원
	파출소가 돌아왔다	군포문화재단
	웃다리문화촌	평택문화원
	문화학교	포천문화원
충정	충북 문화예술 플랫폼	충북문화재단
	문화공동체 프로젝트	대전문화재단
	문화교육사업	대전 한밭문화마당(민간)
	문화예술교육사업	아산문화재단
	문화고리	청주문화원

경상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지원	부산문화재단
	문화우물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문화교실	부산을숙도문화회관
	마을공동체사업	부산금샘마을공동체(민간)
	생활예술모임	부산생활예술모임 '곳간'(민간)
	문화학교강좌	경주문화원
전라	전라북도 문화예술동호회	전라북도
	어울마당	익산문화재단
	문화나무예술단	광주문화재단
	문화의집 프로그램	광주 농성문화의집
	마을만들기 사업	진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전주 시민문화놀이터	동물예술거리추진단
강원	문화예술교육 키움터	강원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
	생활문화공동체	춘천시문화재단
	시민예술가 예술지원	강릉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사업	원주문화재단
	시민문화센터 프로그램	원주 시민문화센터
제주	월평마을프로젝트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4) 사례조사 시사점

가) 해외 사례 시사점

문화예술동아리 모임 간 협업적 작업 활성화 및 예술가와 문화예술동아리 간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동아리의 수준을 제고 하고 있으며 공공영역에서의 지원 최소화를 통해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자생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게 하고 있음.

나) 국내 사례 시사점

타 지자체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 운영을 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동아리의 수준 제고를 위해 강사, 교육프로그램지원 및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을 증대하고 있으며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를 통해 발표의 기회를 확대시키려 하고 있음.

다. 평택의 문화예술 동아리

1) 평택문화원-웃다리문화촌

가) 개요

(1) 배경 및 목적

폐교된 (구)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2) 내용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에 위치한 문화예술체험학습장으로 2006년 8월 개관하여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다. 웃다리문화촌의 건물은 2000년 폐교됐던 구 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새롭게 단장한 것으로 8개 교실과 창고를 개조해 회화, 도예, 목공예, 석화공예, 웃다리박물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을 지향하며 전문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강좌와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각종 예술품부터 농촌체험까지 다양한 체험학습은 일일체험, 정기강좌로 운영되고 있다.

나) 현황

체험프로그램 외에도 캠핑장 및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이라는 컨셉으로 차별화된 공간운영전략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유로로 일일강좌 / 상시강좌 / 정기강좌와 함께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 '장승과 솟대'와 농악동아리 '풍사락', '진도북놀이'가 운영되고 있다.

2) 평택문화원-한국소리터

가) 개요

(1) 배경 및 목적

한국의 전통문화와 평택 고유의 문화예술 발전과 인재개발과 특히 낙후된 서부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의 확보를 위해 조성.

(2) 내용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관광단지 내에 위치하며 국,도비 포함 총256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 11월11일 개관하여 평택문화원이 수탁 운영중이며 다채로운 공연프로그램과 함께 체험, 교육,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평택호반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망과 함께 서해로 떨어지는 노을이 아름다운 곳으로 8,223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69석의 지영희 홀, 카페테리아, 중, 대연습실, 회의실, 강의실, 게스트하우스, 녹음실과 함께 지영희국악관을 운영 중이다.

나) 현황

장소의 특성상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프로그램(달콤한 유아클래식, 덩기덕 쿵덕 신나는 우리소리, 퓨전국악, 문화와 당신의 수요일)을 많이 운영중이며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동아리'지영희 청소년국악단', '꿈의 합창단', '영아티스트 프로젝트',와 국악동아리 '경기민요보존회', 거북놀이 보존회', 평택농악보존회', 앙상블 秀'가 활동중에 있으며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한 연수프로그램, 녹음스튜디오를 통한 음반작업을 하고 있다.

3) 평택예총

가) 개요

(1) 배경 및 목적

평택의 문화예술인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향토예술의 창달로 평택의 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현재 8개지부(미술,사진,국악,연애,음악,무용,문인,연극)로 이뤄져 1989년 창립되었다.

(2) 내용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남부문예회관에 위치, 전문예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평택에서 진행되는 예술행사(소사벌예술제, 스마트영상제, 락페스티발)와 축제(억새축제, 물빛축제)와 교육프로그램(시민예술대학)을 운영중에 있다.

나) 현황

평택시민예술대학은 19개강좌 22개 반 500명이 수강중에 있으며 남부문예회관과 북부문예회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으로는 수채화, 유화, 소묘, 문인화, 실크스크린, 한문서예, 문예창작, 플롯, 가야금, 재즈발레, 난타, 디지털사진, 포토샵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들은 연발 졸업발표회와 전시를 하고 있다.

4) 팽성예술창작공간

가) 개요

(1) 배경 및 목적

안정리 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앞의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된 공간으로서 창조적이며 독립적인 예술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아트프로그램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이다.

(2) 내용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은 주한미군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예전의 번영과는 달리 마을이 시설이 낙후되고[17] 공동화되어 주민과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 비어있는[18] 팽성보건소를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리모델링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

나) 현황

주변에 주한미군이 많이 거주하고 왕래가 많은 곳으로서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한국어교실, 토크카페, 안녕평택투어)과 지역주역이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안정리상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문화예술 동아리[19] 와글와글연습실, 수상한 의상실, 안정리골목공방과[20] 마토축제, 코스튬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5)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외

가)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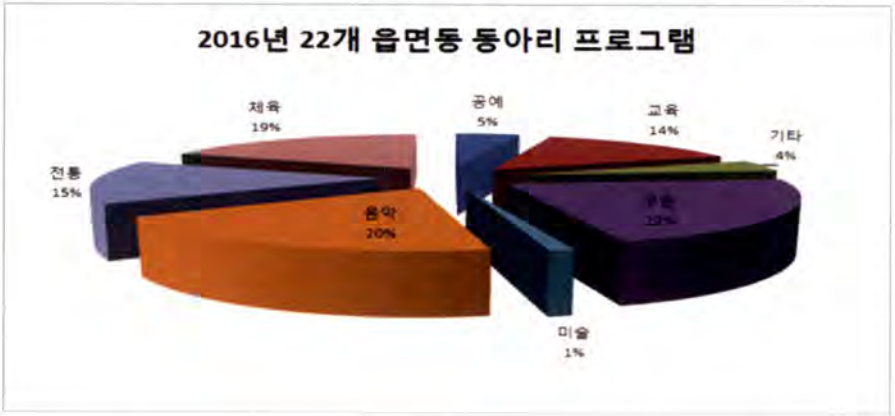
북부, 남부, 서부권역의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평택은 1995년 3개시군(송탄시, 평택군, 평택시)이 통합되면서 이뤄진 도농복합 도시로써 평택시로 통합되어 있지만 권역별 중심지역과의 거리가 멀고 중간지역이

농업지역으로 이뤄져 권역별 이동시 체감거리가 멀고 주민들은 아직 지역 색이 남아있다. 현재 22개의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2016년 10월 기준 47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청북읍, 포승읍, 현덕면, 안중읍,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신평동, 원평동, 통복동,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의 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2016년 운영되고 있는 22곳의 총 17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사결과 무용, 음악, 체육 전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다.

□2016년 읍면동 동아리 활동 비율

활동분야	동아리수	비율
공예	8	5%
교육	25	14%
기타	7	4%
무용	39	22%
미술	2	1%
음악	34	20%
전통	26	15%
체육	3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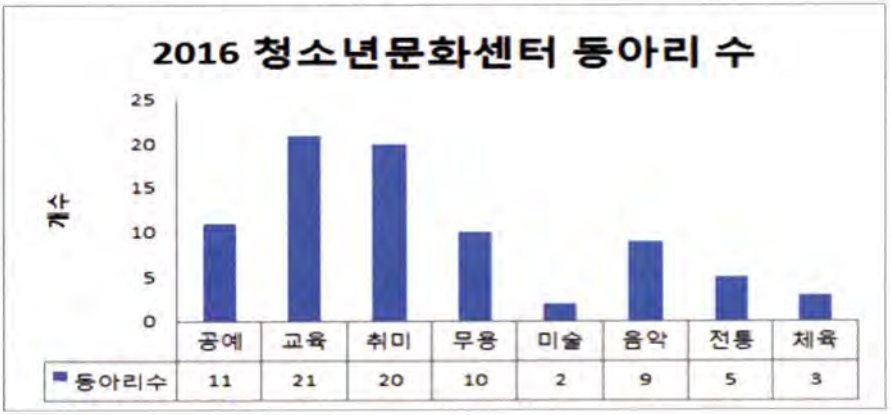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결과 활동 공간, 강사료, 운영비 등과 같은 직접지원에 대한 요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직접지원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청 및 주민자치센터 차원의 정기적인 후속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간접지원에 대해 요구도 있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문화 봉사를 실천을 하고자 함으로 이에 따라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인력과 연계를 통한 질 높은 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

나)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동아리 현황[21]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81개의 동아리 프로그램이 운영중이다.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동아리수

활동분야	동아리수	비율
공예	11	14%
교육	21	26%
취미	20	25%
무용	10	12%
미술	2	2%
음악	9	11%
전통	5	6%
체육	3	4%

세부적으로 동아리를 살펴보면 컴퓨터를 통해 하는 교육프로그램(3D 프린터, 3D펜그리기, 로봇만들기, 영어게임만들기), 그리고 과학체험,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다.

청소년들은 어들들과는 다르게 교육분야와 취미로서의 동아리를 선호하고

있다.
그 외 YMCA, 평택시 여성회관등의 동아리 등을 살펴 보았으나 자원봉사회 결성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목표로 이뤄지고 있다. 활동분야는 독거노인 생활지원,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급, 시설아동 간식지원, 사회복지시설 급식지원 등을 하고 있다.

라.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및 지원Hub기관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1)평택시 문화예술계의 현실[22]

2014년부터 해마다 평택시의 문화예술계 살림살이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 전체 예산 3억5000만원 가운데 108개 단체 109개 사업에 3억 4995만원의 지원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단체는 문화동아리가 아닌 특정단체에게 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건강걷기대회 800만원 ▲소외계층 평생학습증진을 위한 야간학교 72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지도·교통질서확립 720만원 ▲통복천 환경사업·걷기대회와 애향음악회 700만원 ▲하천 옛 모습 찾기와 EM을 활용한 친환경 실천운동 700만 원 등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 77개 사업 2억 2675만원 ▲복지 분야 4개 사업 1330만원 ▲건강분야 3개 사업 1700만원 ▲소비자보호분야 4개 사업 1590만원 ▲환경보호분야 7개 사업 2455만원 ▲재난구조분야 7개 사업 1755만원 ▲교육 분야 3개 사업 1280만원 ▲안전이나 기타분야 4개 사업 2210만 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5000만원이 축소된 예산이라고 한다.
이 밖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못한 지역의 아마추어 동호회나 예술단체의 공연·전시·정기연주회를 지원하기 위한 '2015년 문화예술행사 시민제안공모사업'에서 7개 단체가 선정돼 각 단체마다 360~450만원씩 차등해서 전체 27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집행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역신문에서 제각기 밝히고 있는 것이 지역축제가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고 특정단체에게 몰아주기 식 행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 삶에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고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방증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이고 활기찬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이 발전하려면 문화가 살아 있어야 한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한 이 문화발전은 지역문화가 그 원천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또한 문화동아리 활성화가 바로 지역문화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문화예술 사업비 지원목적은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2)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의 필요성 및 목표

가) 필요성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삶의 공간에서 예술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자기 결정력, 창조성, 자율적인 의사소통의 영역을 제공하고 [23]'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비전 실천의 주체 형성을 위해 핵심역할이다.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면적이 비교적 넓은 평택시의 경우 시설확충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유지관리비 부담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시민 개개의 창의적 활동이 살아날 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문화예술동아리를 실체로서의 시민주체 창조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생활문화예술활동 활성화를 통해 계층 간 경제적 차이로 인한 문화적 자본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문화예술동아리의 열정을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문화의 튼튼한 토대가

되도록 육성이 필요하다.

약화된 커뮤니티, 경제적 양극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민 생활문화예술 활동 모임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며 시민들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전문문화 예술단체 성장의 토양을 가꾸고, 저변을 확대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어 예술생태계 [24]선순환구조를 이끄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고, 전문문화예술단체와 아마추어 문화예술 모임이 서로 연계된 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의 장이 확대되고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경기도 문화기반시설 현황표[25] (2015. 1. 1 기준)

시군구	합계 합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경 기(31)	**481**		**217**	**201**	**11**	**5**	**143**	**60**	**72**	**11**	**44**	**10**	**31**	**3**	**35**	**31**	**11**
수원시	33		22	18	2	2	6	4	1	1	2	1	1		2	1	
성남시	20		11	10	1		3	2		1	1	1			2	1	2
부천시	24		11	9		2	11	10	1						1	1	
안양시	14		8	8			3	2	1						2	1	
안산시	21		9	9			5	4	1		5	2	3		1	1	
용인시	35		13	12		1	15	3	8	4	4	1	3		2	1	
평택시	11		7	6	1										3	1	
광명시	10		4	4			3		3							1	2
시흥시	13		9	9			2	1	1		1		1			1	
군포시	8		6	6											1	1	
화성시	21		11	10	1		5	2	1	2					2	1	2
이천시	13		4	4			4	2	1	1	2	1		1	1	1	1

시군구	합계 합계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계	지자체	교육청	사립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계	국공립	사립	대학			
김포시	9		4	3	1		2		2		1		1		1	1	
광주시	14		5	4	1		5	1	4		2		2		1	1	
안성시	11		4	4			4	3	1		1			1	1	1	
하남시	5		2	2			1	1							1	1	
의왕시	8		3	3			2	2			1			1		1	1
오산시	11		6	6			2	1		1	1		1		1	1	
여주시	22		3	2	1		14	3	11		3	1	2		1	1	
양평군	20		6	6			9	6	3		3	1	2		1	1	
과천시	12		3	2	1		4	2	2		3	1	2		1	1	
고양시	32		16	16			9	1	7	1	2	1	1		3	1	1
의정부시	6		4	3	1										1	1	
남양주시	24		10	10			10	4	6		2		2			1	1
파주시	32		13	13			13		13		4		4		1	1	
구리시	6		3	3			1	1							1	1	
포천시	13		7	6	1		4	1	3						1	1	
양주시	11		5	5			2	1	1		2		2		1	1	
동두천시	4		2	2			1	1								1	
가평군	13		4	4			2	1	1		4		4		1	1	1
연천군	5		2	2			1	1							1	1	

일상을 중심으로 자발적 자원에서 이뤄지는 문화복지 환경을 구축하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시민을 능동적 참여자로 설정하고 시민들이, 시민들에 의한 정책 개발로 진화가 필요하다.

나) 목표

첫째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제를 정책 안으로 수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정책에서 민관 협치를 위한 소통 구조의 제도화하고 문화정택의 목표를 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으로 확장되어야하고 둘째 지역민이 삶의 공간 및 생활속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자생적 문화 생태계 구현을 지향함으로써 문화예술동아리를 문화적 주체 형성의 요람으로 양성하고 시민 문화예술 활동의 선순환 구조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생활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로 시민의 문화정책 및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고 생활 속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대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은 문화를 매개로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예술향유, 체험, 공동발표 및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이뤄지는 단계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연계되어야 한다.

3) 지방문화원

각 지방의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 1950년대 초에 미국공보원 산하에서 활동하던 공보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화활동 및 상록수활동을 위한 사설기관으로 밀양과 대전 등 몇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문화원을 설립하면서 전국에 확산되었다. 1962년 1월에 이들 문화원을 회원단체로 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결성하면서 각 사설기관이었던 문화원이 정부공인기관으로 되었다. 1965년에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과 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다시 각 문화원이 특수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정부의 보조금과 시설의 무상대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83년 말에는 139개로 증가되어 시·군을 단위로 문화원이 없는 곳이 거의 없게 되었으며, 1989년에는 159개, 1996년 181개, 2016년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16개의 시도연합회와 전국에 228개의 지방문화원을 두고 있으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은 문예진흥·지역향토문화보존전승·전통문화선양·지역문화행사개최·도서관사업·사회교육·문화

복지증진·국제문화교류·문화예술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문화원은 향토문화를 발굴, 정리하고 향토사를 펴내는 활동을 통하여 각 지역의 향토문화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토 축제를 정착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청소년의 선도 및 평생교육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2]

현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31개의 문화원이 있으며 그중 20개의 문화원이 독립원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10개의 문화원이 복합시설의 임대로 설치되어 있고 기타형식으로 1개의 문화원이 있으며 국비, 도비, 시비와 각종공모를 통한 측면적인 지원과 문화원 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직접지원하고 있다.[3]

4)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

가) 문화예술동아리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지향점 제시 및 총괄적 리더 역할

변화되는 사회에서 문화예술동아리들이 능동적, 전문적 대응을 위해 문화동아리 육성시스템 운영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 간 네트워크 구축과 프로그램, 인력, 공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과 사업추진 시 예견되는 문제 및 관련 여건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과 조직 내부적으로 지역 밀착적 전략 수립 및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동아리 사업의 안정적 지속화 방안 제시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발굴하고 문화예술동아리들이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공헌할 수 있도록 정보와 행정을 지원해야 한다.

나) 문화예술동아리의 지원 방안

(1)학습적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의 기량 향상과 2차 학습수요에 따른 강사 지원

(2)지역사회 공연활동 지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공헌 활동 비용지원

(3)공간적지원 : 활동공간이 부족한 동아리를 위한 장소지원

(4)장비지원 : 공연, 전시활동에 필요한 음향, 악기, 전시기구 지원

(5)행정지원 : 각종 공모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정산문서 지원

(6)소통지원 : 동아리간 협의, 협업구조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소통공간 지원

5)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방향

첫째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지원하여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한다.

지역문화 주체가 시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 서비스 대상은 지역 시민이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자치단체 문화주무부서나 지방문화원은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역민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역 내 유·무형 자원과 인적자원의 활발한 매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지원 시스템 구축하고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시스템(컨설팅)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 및 청소년들의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최근 시민들의 문화인식이 높아지고 예술활동을 접하는 시민이 많아짐에 따라 정보활용 요구 증가 및 공연 등 사회공헌활동을 원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어 문화예술 동아리를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아리간 교류 및 거리공연, 연 1회 동아리 연합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한다.

셋째 문화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한다.

문화기반시설은 여가활동 체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어 동아리로의 유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아리 활동 공간 마련,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구축, 동호회 참여 유도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동아리를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 배치와 이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

넷째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문화 예술 동아리가 발전성을 가지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전문 동아리 활동 실태 및 활성화 방안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아리 활동의 발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동일 영역의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적인 교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동호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도자 확대 배치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지원되어야 한다.

각주_
14)대구경북연구원, 대경CEO Briefiing
15)강윤주,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2012)
16)성남문화재단의 '문화클럽 유형별 특성'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17)도심지역 내에서의 지가급등 및 각종 공해로 인해 주택들이 도시외곽으로 진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심의 주택은 줄고 결국은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게 된다. 이리하여 도심은 텅 비어 공동화되고 외곽지역은 밀집되는데 이것이 도넛과 같다고 해서 생긴 명칭이다.
18)팽성복지타운이 생기면서 보건소가 이전해갔다.
19)팽성치어리더연습실로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음.
20)마지막토요일의 축제라는 뜻으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이뤄지며 주한미군 등 외국인과 지역상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축제다.
21)평택시 합정동392 평택시 공설운동장 옆에 위하고 있으며 평택시 청소년재단 소속이다.

22)손창완. 평택의 생활문화동아리 운영의 현주소 및 과제 (2016년 생활문화동아리 세미나)
23)평택시 민선5기(김선기시장) 시책이었으며 민선6기(공재광시장)에서도 구현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 평화예술의 전당, 무형문화전수관 건립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4)(善循環) [선:순환] 순환이 잘됨. 또는 좋은 현상이 끊임없이 되풀이됨
25)1995년 시군 통폐합으로 인해 평택시, 평택군,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각 시군마다 이전에 지어졌던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을 제외하면 47만명의 인구수에 비해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게 나타난다.
26)협치(協治), 망치(網治), 공치(共治)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거버넌스는 정치학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였는데, 거버넌스는 국제정치학 영역에서 도입되었으나 점차적으로 국가 내외의 정치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정확한 개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나, '거버넌스'라는 용어도 '국가'나 '사회'등의 용어처럼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치학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위자들 간의 외부 권위나 내부적인 자기조절/자기통제 메커니즘에 의한 조정과 관리'로 정의하고, 좁은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는 국가 내에서 결정을 내리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화된 권력으로 정의되는 정부와 구분하는 의미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행위자 사이의 네트워크 방식의 수평적인 협력 구조'로 정의한다.
27)네이버 지식백과를 기본으로 2016년의 현황에 맞춰 필자가 재작성
28)2016년 11월 기준

<참고문헌>
-강윤주외(2012). 생활예술 지원정책방안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연구지원팀
-민인철(2013) 시민들의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오동욱(2009) 대경CEO Briefing. 대구경북연구원
-손창완(2016) 평택시의 생활문화동아리 현주소.

여 백

지역내 **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 및 지원 Hub기관**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오민영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목 차

Ⅰ. 개요

Ⅱ. 문화예술 동아리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풀뿌리

Ⅲ. 평택의 문화예술동아리 현황

Ⅳ.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및 지원 Hub기관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Ⅰ. 개요

생활문화예술동아리?

- 시민 혹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예술적 활동**

Ⅰ. 개요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2014년 1월 28일

제2장 지역의 생활문화진흥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Ⅰ. 개요

■ 문화생태계의 풀 뿌리 육성방향

1. 문화예술 동아리

1) 문화예술 동아리의 유형

2. 외국의 동아리 지원사례

3. 국내 동아리 지원사례

1) 성남문화재단_성남문화클럽

사랑방문화클럽

성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주체가 되어 클럽들의 자생적 활동을 강화,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 함에 따라 성남시의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만든 프로젝트

3. 국내 동아리 지원사례

1) 성남문화재단_성남문화클럽 사업내용

- **문화클럽 활동 및 교류 활성화 지원**
- **공간 지원 사업**
- **문화통화사업**
- **사랑방문화클럽 페스티벌 개최**
- **문화공헌지원 프로젝트**

3. 국내 동아리 지원사례

2) 인천문화재단_시민문화활동 지원사업

시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의 자발적인 시민문화활동을 육성하고자 함

3. 국내 동아리 지원사례

2) 인천문화재단_시민문화활동 사업내용

- 시민/청소년 문화예술활동(발표활동 및 발표를 전제로 한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지원
- 간접 지원을 통해 시설, 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 강사 등) 연계 등을 지원
- 원하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4. 사례조사 시사점

1) 해외 사례 시사점

- 문화예술동아리 모임간의 협업 및 예술가와의 **협업을 통한 수준 향상**
- 공공 영역 지원 최소화를 통해 **자생성을 갖고 운영**

Ⅱ.생활문화예술 동아리는 지역 문화생태계의 풀뿌리

4. 사례조사 시사점

2) 국내 사례 시사점

- 공공기관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 운영을 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
- 동아리 수준 제고를 위해 **강사, 교육프로그램지원**과 **지역축제 및 각종 행사를 통한 발표기회 확대**

1. 평택문화원 - 웃다리문화촌

- 폐교된 (구)서탄초등학교 금각분교를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킬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조성
- 2006년 8월 개관하여 평택시와 평택문화원이 운영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지향**, 전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전시회 및 일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정기 강좌**로 운영

웃다리문화촌 전경사진

2. 평택문화원 - 한국소리터

- 한국의 전통문화와 평택 고유의 문화예술 발전, 인재개발, 낙후된 서부지역의 **문화예술공간의 확보를 위해 조성**
- 2012년11월11일 개관, 평택문화원이 수탁 운영 중
- 569석의 지영희 홀, 카페테리아, 중, 대연습실, 회의실, 강의실, 게스트하우스, 녹음실과 함께 지영희 국악관을 운영
-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게스트 하우스를 이용한 연수프로그램, 녹음스튜디오를 통한 음반작업을 진행

3. 평택예총

- 평택의 문화예술인의 친목도모, 평택문화예술 발전을 목적으로 1989년 창립
- 현재 8개 지부(미술, 사진, 국악, 연애, 음악, 무용, 문인, 연극)으로 이루어 짐
- 전문예술인의 권익신장을 위해 창립되어 활동, 평택에서 진행되는 예술행사(소사벌예술제, 스마트영상제, 락페스티발)와 축제(억새축제, 물빛축제)와
  교육프로그램(시민예술대학)을 운영중
- 평택시민예술대학 19개강좌 22개반 500명이 수강 중 에 있으며, 남부문예회관과 북부문예회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4. 팽성예술창작공간

- 팽성읍 안정리 지역에 위치, 구 팽성보건소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 창조적이며 독립적인 예술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아트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문화예술 창작공간**
- 주한미군 시설이 집중된 곳으로 외국인 관련 프로그램과 지역주민이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안정리상회를 운영
- 문화예술동아리 와글와글, 수상한 의상실, 안정리 골목공방과 마토축제, 코스튬 축제를 운영 중

5.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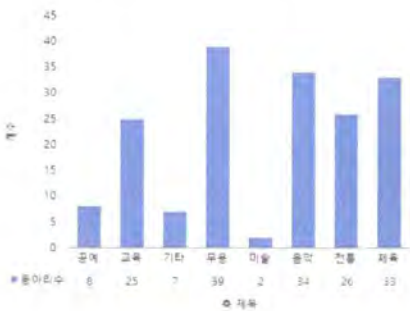
1)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 평택시 행정구역 지도

Ⅲ. 평택의 문화예술 동아리

5.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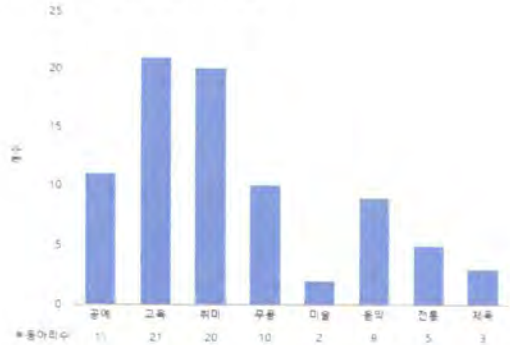
1)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2016년 운영되고 있는 22곳의 총 174개의 프로그램 조사결과 무용, 음악, 체육, 전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5.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외

2)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 동아리현황



- 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는 81개의 동아리 프로그램이 운영 중
- 교육분야와 취미로서의 동아리를 선호

Ⅲ. 평택의 문화예술 동아리

5. 22개 읍면동 동아리 프로그램 외

3) 그 외 단체 동아리 현황

- YMCA, 평택시 여성회관

자원봉사회 결성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목표로 이루어 지고 있음

2.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Ⅳ.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및 지원 Hub 기관 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

2.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의 필요성 및 목표

1) 필요성

시민 개개의 **창의적 활동**이 살아날 때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시민주체 창조모델로 발전시켜야 함

계층 간 경제적 차이로 인한 문화적 자본의 양극화 해소

열정을 지역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

문화복지 환경 구축, 시민을 능동적 참여자로 설정하고
시민들이, 시민들에 의한 정책 개발로 진화 필요

2.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의 필요성 및 목표

1) 목표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제를 정책안으로 수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현

시민의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함

예술향유, 체험, 공동발표 및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이뤄지는 단계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연계

3. 지방문화원

각 지방의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

1962년 1월에 문화원을 회원단체로 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를 결성, 각 사설 기관이었던 문화원이 정부공인 기관으로 됨

향토문화발굴, 정리하고 지역의 향토문화의식을 고취, 향토축제를 정착하며 청소년의 선도 및 평생교육진흥에도 많은 공헌을 함

4.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

학습적 지원

장비지원

지역사회
공연활동 지원

행정지원

공간적지원

소통지원

5.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방향

-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지원
- 성인 및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 문화기반시설을 적극 활용
-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 프로그램 구축

여 백

문화원은 지역전통문화(옛 생활문화라는 관점에서)를 진정 잘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가?

—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민요를 중심으로

가. 서론

한국사회가 발전하고 문화의 가치가 큰 비중을 가지게 되면서, 지역문화의 발전과 역할에 안팎의 시각이 향하고 있다. 또한 문화의 수용대상도 점점 더 넓어져 엘리트 중심의 문화자원 육성에서 생활문화와 생활체육에까지 관심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문화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책적 시도를 통해, 그동안 소수에게 해당되었던 문화적 지원을 다양한 형태로 넓히는 변화를 가져왔다. 실제로 합창이나 밴드, 사회인 야구 등 주류문화의 저변은 점점 생활문화로 유입되며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통문화의 경우, 박제수준의 보존과 학교교육과 연계하는 지원이 없이는 따로 생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전쟁이후 한국인의 가치관이 인본주의에서 물질 및 현세주의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고 근대화 및 산업화가 이어지면서 전통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시대상황은 급격한 전통문화의 소멸을 불러왔다.[29] 이에 전통문화의 박제화는 빠르게 진행되는 소멸과정에서 귀중한 문화자원들을 구해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리고 그렇게 박제화 된 전통의 한국문화들은 고귀하게 신성화되면서, 현대 대중의 주류문화와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근대화과정의 반작용으로 신토불이로 대표되는 '우리 것 찾기'의 열풍과 『나의문화유산답사기』 등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진 교양역사서의 성공 등을 통해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다.[30] 그럼에도 문화콘텐츠의 주류로 올라선 전통문화 관련 항목들은 여전히 소수이며, 전체적으로

'대단하고 신성하지만 재미는 없는 문화'정도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
요즈음 생활문화가 중시되면서, 문화원에서는 생활문화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진행되던 문화강좌들을 동아리화 하거나 기존의 동아리와 협력하여 의미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문화원의 창립 목적 중 하나였던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과 보존노력의 성과물들과 생활문화사업 활성화 사업간의 연계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1994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발효되면서 정부가 요구한 사업 활동 중 지역고유문화보존 및 선양과 향토 사료의 수집이 1번과 2번에 규정되어있다.[3)] 어쩌면 지역문화원의 탄생과 함께 부여받은 역할이면서, 적어도 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근 20년이 넘도록 쌓아온 성과물들이 그저 학술적인 자료 수집에 그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화성문화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고민하던 중, 단절된 무형문화재를 복원하고 싶다는 한 지역주민자치위원회와 접촉하게 되었다. 민원인이 토로한 복원 무형문화재는 1997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08년 기능보유자 박조원옹의 사망으로 단절된 경기도 무형문화제 27-2호 팔탄 상여회다지 소리이다. 민원인의 자치단체는 전수자는 없지만 녹음과 채록된 문서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 후로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논의하며 문화재 복원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지정 공연되고 있는 기존의 무형문화재 방식이 아닌,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문화로서의 전통문화 복원을 기획해 보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본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은 진행의 초기 단계이기에 동아리로 활동할 지역민들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로써 뚜렷한 성과물이나 과정의 결과보고서가 아닌, 접촉 과정과 기획 및 구상 그리고 논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하는 논문을 집필함을 밝히면서, 다음에 이어 논의를 시작하겠다.

나.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의 전승 현황과 난제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필자가 만들어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전통문화는 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를 말한다.[32] 본 논문에서는 전통문화 중 전문 연희자들이 공연을 위하여 만든 예술작품이나 기능을 배제하고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동체단위로 전승해온 문화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고도의 기예와 예술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의 경우에는 학계, 지자체, 관련정부부처와 문화원의 협력을 통해 지원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러한 성격의 전통문화는 문화원이 지원하는 생활문화동아리로서 육성 발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전통사회에서의 통과의례나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 전승되었던 문화들은 지역과 밀착되어 있는 문화원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 큰 가치를 가진다.

1) 화성시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

두레와 상여, 당제와 대보름 굿등 보편적인 생활과 관련된 문화들은 각 지역마다 그 전승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화들을 선정하여 문화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화성문화원에서 올해 지원을 계획한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이름	내용
기안동 용줄다리기	태안읍 기안동, 정남면 보통리에서 진행되는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보통리 용줄다리기	
정남땅울림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을 맞아 진행되는 민속놀이 행사
남양읍 정월대보름	
장안리도당굿	장안리에서 행해지는 마을굿

전통석전대제 지원	금산사, 안곡서원에서 행해지는 석전대제 지원사업
왕재호상놀이	정남면 괘랑리에서 행해지는 전통 민속 장례의식 재현 놀이
봉담역말농악보존회	화성지역 전통 농악보존회 지원
화성농악보존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준비 및 참가지원

2016년 화성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총 11개의 행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중 두 가지 행사가 지원금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행사진행을 포기하였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타시도와 차별점이 크게 없는 전통문화행사인 석전대제나 대보름행사 같은 경우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하여, 화성시만의 변별적이고 특별한 전통문화를 잘 드러내는 보통리 줄다리기와 왕재호상놀이는 행사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먼저 왕재호상놀이는 화성 정남면 왕재(왕천) 지역에서 전승되어 현전하여 오는 전통민속 장례의식으로, 마을에서 사람이 죽은 후 염을 하고 상여를 꾸며 장지까지 운구할 때 마을 주민들이 망자의 넋을 기리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전체 과정은 총 5장으로, 널 액막음(널을 방에서 모시고 나올 때부터의 과정), 발인제, 길 떠남과 노제, 먼 길 떠남과 굴 지나기 및 개울 건너기, 달고질 등으로 구성된 화성시의 독특한 전통 장례 문화를 재연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다.

다음으로 보통리 용줄다리기는 화성시에 남아있는 대표적 민속행사로 매년 음력 정월대보름날 시행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용줄당기기는 단순히 줄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민속놀이가 함께 펼쳐진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줄다리기는 사람들이 양쪽 두 패로 나뉘어 굵은 줄을 서로 당겨 자기편으로 끌어오는 쪽이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것으로 진행된다.[33]

2) 전승 단절의 사회문화적 배경

앞에서 살펴본 이 두 가지 전통문화 행사가 취소 된 것은 해당지역의 담당자들이 행사진행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데, 공교롭게도 그 이유가 대동소이하였다. 그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인력의 부족이다. 행사를 진행할만한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행사를 진행하는 지역이 대부분 농촌지역이라 청장년 인구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왕재호상놀이 같은 경우 상여를 꾸미고 그 상여를 나르며 긴 거리를 이동할 인력이 필요하고, 용줄당기기는 줄을 만들고 운반하는 것 자체가 큰 힘이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청장년 인구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탓에 대부분 고령자만 남아있는 농촌에서 행사를 진행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마을구성원들에게 마을행사 참여에 당위적인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지금은 확실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두 번째는 예산의 부족이다. 우음도 당제의 경우 전통적인 당제에서 소요되는 제물과 악사등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할만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 사실 당제는 마을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각출하여 진행자금을 모금하고 직접 행사의 계획과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래 모습이나 현재는 마을의 인구 감소와 타종교의 지역유입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 행사를 원형대로 전승하기 위해서는 그 부족분을 채워 넣을 만큼의 자원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족분만큼의 지원을 지자체로부터 끌어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은 다른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첫 번째 지적했던 인력부족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사회문화적 변동을 통해 가용인력을 사용하기 위한 인건비가 더 많이 필요해지고 행사제반비용은 높아져 가지만 구성원들의 참여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행정력의 부족이다. 행사를 주최하는 인력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과 지출, 증빙정리등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어려워한다.

또한 예산집행의 지출과 증빙이 체크카드와 세금영수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다. 예를 들면 주최 측에서 행사 식비 지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녀회에 음식을 맡겼다고 했을 때 부녀회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카드결제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영수증빙 자료를 위해 더 높은 가격의 사용물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 공적예산 집행 사무과정에 있어 총체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문화원의 행정력을 더 많이 지원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나, 대부분의 문화원에서는 충분한 인력을 투입할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대부분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생긴 변화가 야기한 결과들이다. 줄다리기를 위해 필요한 볏짚은 비닐포장을 해서 판매용으로 팔려나가고, 1인당 농사면적이 넓어지면서 과외활동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생업으로 마주하는 생활문화가 변모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기반으로 하였던 전통문화도 생활문화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논농사를 지으면서 불렀던 농요나 농악의 경우 농업의 기계화를 통해 노동요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또한 대부분 화장을 하는 장례문화의 변화로 인해 매장문화를 기반으로 하였던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는 그 효용적 가치가 상실되었다. 이러한 전통문화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정체성을 발현하는 문화행사로 그 명맥은 유지하고는 있으나 실상 생활문화의 기반에서는 현대 대중문화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형편이다. 다행히 문화재 지정을 받거나 지역문화원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전통문화의 경우는 최소한의 형태로나마 전승이 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미 전승이 단절되었거나 앞선 언급한 경우들처럼 당장 내년에 다시 진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지역전통문화 전승에 있어서 문화원의 역할과 위상

문화원의 사전적 정의는 '각 지방의 향토문화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체.'이다.[34] 미국 공보원의 지원을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1946년부터 지금까지, 문화원은 향토문화의 계발과 보급이라는 화두를 놓아본 적이 없다.[35] 이는 지역전통문화, 특히 생활기반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재 지자체나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재의 경우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고 선정되면,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학술적 평가를 받지 못한 지역 전통문화유산들은 지자체나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무형문화재처럼 관리를 받지 못한다. 그렇기에 발전 가능성의 가치가 있는 생활문화라도 급격히 도시화되는 흐름에 따라 효용성과 대중성을 잃게 되면 금새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화성시의 전통문화유산들도 아직 지자체로부터 인정받은 문화재는 아니다. 그렇지만 차별화되는 화성시만의 지역성을 가진 유산이기에, 본 문화원에서 지원하여 보존하여 계승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력여하에 상관없이 그 진행 실무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며, 우연찮게도 올해 모든 사업이 중단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방문화원이 처음 만들어진 후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사 직전에 처하게 된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를 되살려 나가기 위해서라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 팔탄민요 복원 현황과 복원활동 경과

팔탄민요는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박조원 선생의 선소리로 불려진 생활민요다. 팔탄의 선소리꾼 박조원 선생은 1998년 9월 21일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 27-2호로 지정되었으나, 2008년 박조원 선생이 후계자 없이 타계함으로서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다.[36] 2016년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안희만 간사와 시청 및 문화원이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의 복원의지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화성문화원에서는 지원방식에 대해 고민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회의에 참가한 후 생활문화동아리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로 찾아가 운영방안을 제의하고 협의하였다.

1) 박조원 창본의 자료적 가치

1998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2008년 단절된 경기도 무형문화재 27-2호는 경기도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로 지정된 경기도무형문화재 27호의 두 번째 형태다. 1호는 양주, 3호는 양평이 지정되어있는데 1호와 3호는 경기북부의 대표소리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고 박조원 선생의 소리는 경기남부의 대표소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지정된 것이다.[37] 경기도 북부의 경우 장례절차 중 회다지소리를 할 때 논매는 소리를 차용하고 경기도 남부는 상여소리를 차용한다는 특징이 있다.[38] 박조원 선생의 소리는 전형적인 경기남부의 장례요 형태가 잘 보존되어있고, 가창 능력의 뛰어남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상여소리와 회다지 소리 외에 팔탄지역의 농요도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화성시 팔탄면의 농요에서는 타지역에서는 원래 없거나, 있어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조사하지 못한 긴 방아소리와 면생이가 채록되었기 때문이다.

방아타령은 말 그대로 방아를 찧을 때 하는 소리이다. 논매는 과정의 소리에서 방아 찧는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풍년으로 농사가 잘되어 방아를 즐겁게 찧는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방아소리는 노동요에서 경기잡가로 발전하고 이후 근대초기 대중음악으로 정착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20세기초 일제강점기에는 가장 라디오에서 많이 방송된 민요일 만큼 인기를 자랑했기도 하다.[39] 원시적 형태인

농요에서 근현대의 대중가요로 정착한 방아타령으로 발전할수록 점점 박자가 빨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길고 느린 긴방아 소리는 난이도가 높아 전승되기가 어려운 민요다.

한편 논을 맬 때 호미로 하는 애벌매기와 후에 손으로 논을 훔치는 일을 통털어 '면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부르는 농요도 면생이라고 한다.[40] 특히 선소리를 주는 사람이 부르는 부분은 정해진 리듬이 없이 자유리듬에 가까운 비(非)고정박 장단곡이라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41] 민족음악연구소의 이소라 교수는 "부르기 힘들어 사라진 긴 입말의 긴방아와 문셍이가 건재한 채로 팔탄농요가 녹취되었음은 화성지방 논맴소리의 전체적 위상을 드높이는 일."로 평가한 바 있다.[42]

이렇게 학계에서 평가하는 위상도 물론 주요하지만, 복원과 전승의 당사자가 될 팔탄면 주민들의 의견도 그만큼 중요하다. 팔탄민요 복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르면 학계에서 평가하는 음악성에 대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탄민요의 가사에 팔탄면과 화성시의 곳곳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난개발로 사라지고 있는 옛 고향의 모습이 복원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43] 많은 민요의 사설부분에서 가창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설명이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지역적 특성이다. 함께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삶을 공유하는 지역민들에게 화성지역에 전승되어 온 민요의 지역적 특성의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지역정체성과 연대의식의 차원에서 더욱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팔탄민요의 단절 및 복원 시도

앞서 언급한대로 팔탄민요는 1998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2008년 기능보유자의 사망으로 그 전승이 단절되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상여·회다지소리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27호를 공유했던 양평과

양주가 경기도 북부이기에, 유일한 경기남부 소리로 지정되었던 화성 팔탄민요의 전승이 단절된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박조원 선생의 목소리를 포함하여, 화성 농요는 일찌감치 그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민요대전> 자료에 포함되어, <MBC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에서도 방송되었다.[44] 그런데 그것이 유지된 기간은 10년뿐이며, 그 안에서 후계자가 없어 단절되었다는 상황의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필자는 관계자와 질답을 가졌다.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안희만 간사는 그 문제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가장 가까이에서 소리를 하며 배우던 비공식 전수자가 있었으나, 그 전수자가 알코올중독에 가까운 상태여서 누군가에게 소리를 가르칠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전수자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에 따라 자연히 활발한 공연활동이 어렵게 되고, 이에 결국 후학의 양성에도 이르지 못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지역에서 농요를 하는 이들을 "어기" 라는 말로 비하하며 좋게 보지 않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농요가 대중음악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 대중매체가 없던 시절에 선소리꾼은 그 동네의 재주꾼으로 연예인과 같은 위상을 자랑했다.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조에 보면 왕이 농요를 잘 부르는 사람을 초청하여 노래를 시키고 상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뒷소리를 부르는 노동구성원들의 역할을 지휘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당도 더 많이 받는 귀한 몸이었다.[45] 그러나 농업이 기계화되며 선소리꾼의 역할이 사라졌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흥과 끼, 그리고 잦은 음주가 근면함을 중요시하던 당대의 덕목에 반하게 되면서 비하의 대상으로 추락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MBC에서 찾아와 녹음 부분이 방송되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듯하였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이유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데, 박조원 선생의 전승의지가 약했던 측면이 있다. 과거에 박조원 선생에게 "왜 이 좋은

노래를 전승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니, "이런 세상에 누가 이런 소리를 누가 배우려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생활문화적 효용을 잃어버린 전통문화가 무관심과 천대의 과정을 겪으며 사라지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특히 어느 정도 지자체와 학계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던 소리이기에, 지역민들과 행정가들의 노력에 있어 더 큰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다.

이에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복원의지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화성시와 경기도에 복원 의사를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나 기관에서도 2008년 박조원 선생이 돌아가신 후 그 자료를 온전히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후 자료를 수소문하던 주민자치위원회는 MBC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를 제작한 최상일 PD에게 찾아가 취지를 설명하고, 녹음자료와 채보자료 등 화성시 구장리에서 채록한 자료 일체를 모두 전달받아, 지금은 그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와 복원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현재 박조원 선생이 살던 구장리 밀양박씨 종친회와 지역단체에 복원의사를 밝히고 협조를 구해서 팔탄면 내부 구성원들과는 복원의 의미와 방향에 대하여 공유를 한 상태이지만 2년의 기간이 흐른 상태라 지쳐가고 있었다.

3) 문제점과 한계

그 와중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지자체의 문화예술과 지역문화원등의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다. 현재까지 축적한 자료는 지자체와 상관없는 방송사의 관계자 개인 자료가 모든 바탕이 되었다. 이렇듯 자체적 자료를 아무 것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방법을 함께 찾아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예산과 기 조사된 자료가 미비하다는 변명만 외치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다는 것이다. 문화재 지정을 받기 전 자료는

차치하더라도, 문화재로 지정받은 후라면 지정과정에서 평가했던 자료부터 시작하여 근거가 될 만한 다양한 자료들이 남아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정작 필요한 쪽에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필자도 문화원 내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경기문화재단이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등 도단위의 문화단체들에서 만든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화성시에서 만든 시사 등의 자료에 팔탄민요의 개요와 특징, 악보 정보는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보유자와 전수자가 없는 상황의 복원과정에서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음성·영상 채록자료가 대부분 외부의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점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자료를 찾은 이후에 복원 시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과정에 지원을 요청 했으나 시나 문화원 자체의 복원 의지를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이를테면 자료를 복원하고 지역주민에게 교육하는데 도움을 줄 전문가를 찾고, 보존회를 목표로 단체를 조직하는 준비과정에 진행비가 필요한데, 이에 지원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부정적 대답만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도움을 요청했던 학계 인사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하였는데,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자료의 사유화였다. 어떤 전문가는 팔탄면 민요에 대한 자료를 자신이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해당 자료가 있다는 증거가 될 만큼의 적은 양의 자료만을 공개한 후, 지자체 및 문화원과 자신이 접촉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만을 주민들이 감당해주기 바랬다고 한다. 요컨대 전통문화 복원과정에 있어 그 주도권을 자신이 가져야한다는 입장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이 복원사업에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결정하고, 결국 방송 PD까지 찾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필자에게 주어진 안타까움도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태도에서 지역문화 복원의 청사진과 목적이 대부분 지역의 축제화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출신지를

사랑하는 애향심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민에서 지역축제가 나온 맥락은 이해하지만, 지역민의 소속감 고취보다는 지역 축제화를 통한 경제적 이윤창출에 그 목표의 방점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팔탄민요가 가진 예술수준에 대한 평가가 문화재지정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단절 이후 다시금 복원하여 계승하는 입장에서 팔탄민요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예술성 복원에 대한 고민은 조금 부족해 보였다. 다만 이런 지점들은 복원 시도과정에서 각 주체들, 특히 지자체와 문화원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답변과 접촉을 통해 도움을 충분히 받았더라면 나아질 수 있었던 부분이다. 지자체의 문화관련 행정부서와는 달리 문화원은 학술적 기능도 일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의 자료적·미학적 이해에 있어 지역민에게 적절한 학술적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화원에 더 많은 책임의 성찰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들을 고려해보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화재 복원에 생활문화동아리 모델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착안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전문적 무형문화재 제도과정을 통한 전통문화보존회 형태를 정립하기 전에, 먼저 전통문화를 학습하고 향유하는 생활문화동아리 방식으로 문화원이 지역민들의 주도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종국에는 사라져간 팔탄민요 무형문화재의 복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라.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과 전승

생활문화동아리 형태로 보존회의 기초단계를 만드는 작업은 이전에 시도해 본적이 없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동아리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내지는 못한 시점이다. 지금은 해당 예산을 지원하여 기초모임을 조직하는데 필요한 세미나와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동아리형태의 기초과정을 만들어보자는 의견과 기초적인 구상을 공유하였음으로 그 구상에 대해 이야기 해보는 것으로 4장을 구성하고자 한다.

1) 생활문화동아리와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의 접점

팔탄면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박조원 선생의 민요는 유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과 의례에 사용되었던 생활문화의 일부이다. 팔탄민요가 주목받게 되었던 것은 긴 방아소리와 면생이의 보존 등 어려운 예술을 구현해낸 예술적 가치와 생활문화로서의 노동을 더 충실히 재연,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많은 문화재들은 보존의 시급함을 이유로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그 목표로 삼고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문화재 보호법 2조 2항을 보면 무형문화재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넓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1999년 개정된 기존의 법률조항에서 정의하는 무형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46] 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같은 법령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공연 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라는 표현으로 확대되었다.[47]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제도가 변한 것에는 그동안 무형문화재 선정과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원형론(原型論)에 대한 변화를 주문한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형을 고려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나

대부분 민속경연대회 참가 때 공연형태로 전환을 위하여 그 내용과 형식에 변화를 겪고 그렇게 변화한 것을 반복 숙달하여 형태를 유지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다.[48]

때문에 기존의 원형개념에서 전형(典型)개념으로 전환되었다.[49] 전형이란 어떤 부류의 본질적 특색을 나타내는 틀로서 특정시기 한 형태를 규정하는 원형과는 달리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인 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변화의 속성이 내발적 역동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50]

현재 팔탄지역의 민요는 그 음성과 악보들이 채보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의 효용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팔탄민요가 가진 특징과 의미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그 현대적 계승을 지역민 들이 직접 행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런 과정들은 얼마만큼 재현해 냈다는 결과 및 성과주의로 접근하기보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생활문화기반 무형문화재들은 민속경연대회를 통해 공연형태로 다듬어지는데 대부분 과거의 생활상을 보여주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과거 생활모습을 보여주는 공연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삶과 유리되어 보기 좋게 만든 박제 같은 공연으로 그칠 수 있다.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해 지역과 밀착된 민요를 학습하고 주요한 지역문화자산을 직접 만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생활문화적 성격을 잘 살리며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례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그동안 지켜온 향토문화 개념에 큰 위기를 맞이한 문화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축적 보존에 힘썼던 지역 향토문화자료들을 현대적으로 보완 적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보는 실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박조원류 팔탄민요의 복원방안

단절된 무형문화재를 복원하는 생활문화동아리를 만드는 것은 지금껏 시도된 적이 없는 실험에 가깝다. 잘 보존되어있다고 여겨지는 엘리트

국악조차 각종 지원이 없으면 대중들과 만나기 힘든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요나 제례를 위한 노래를 기반으로 한 생활 문화형 무형문화재를 아마추어들이 참여하여 복원한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복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지역주민들이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요소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엘리트 국악도 대중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대중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단절되었던 시대적 간극에 더하여 팔탄민요 어려운 테크닉을 가지는 <면생이>와 <긴방아소리>를 가진 대표민요로 주목받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 복원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형태만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복원이 진행되게 되면 그 자생성이나 지속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생활문화 기반 민요들이 엘리트 국악인들의 수준에 비하여 예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용집단이 있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원에서 감당해야 할 더 큰 사명을 준다. 허나 알아주는 이 없어 단절되었던 문화적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므로 지자체나 시에서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막연한 일회적 복원보다 지속적인 관심 아래 새롭고 신선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제안해 보는 형태는 지역학적 평생학습동아리로서 팔탄민요보존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제안한 무형문화재 복원의 목적은 현실적으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콘텐츠로서 민요를 주목한 것이다. 앞서 그것에만 집중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으나 그런 동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동기유발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현상유지에 급급한 문화보존의 사례를 넘어서서 지역친화적이고 자생성이 있는 생활문화 동아리로서의 형태를 기획하여 제시한다면 예산지원과 같은 문제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역주민의 확보인데 팔탄면 밀양박씨 집성촌 주민을 중심으로 참여의사를 확인한 지역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준비되어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모임을 기획해 나가야할까? 본 논문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지역학적 평생학습 동아리는 지역학과 평생학습 그리고 동아리라는 세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지역학적 성격이다. 지역학의 사전적 정의는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51] 팔탄민요를 전승하고 학습하는 것은 팔탄지역의 과거를 돌아보는 지역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연구된 채록자료와 학술자료들이 말하는 것은 팔탄민요가 작게는 팔탄면 구장리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민요지만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경기도를 대표하는 민요로서의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팔탄면의 과거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배우고 전승하는 것이 화성시와 경기도를 대표하는 민요를 살려내고 이어나간다는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입장을 고려한 지역친화적인 콘텐츠 즉 지역학적인 성격을 고려해야한다.

두 번째는 평생교육의 성격이다. 법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52] 상위법인 교육기본법 10조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을 장려하고 있다.[53] 앞서 말한 교양으로서의 지역학을 주제로 평생교육 형태를 띄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문화재복원방식으로 복원을 시도한다면 그간 원형(原型) 중심의 무형문화재 지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박제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생활문화적 성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복원의 장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과 한국민요에 관한 교양이 필요하다.

예술적 기능의 실현은 각자의 소질이나 타고난 성정에 의해 차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과거 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엿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학습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팔탄민요의 예술적 가치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실기수업을 실시하고 민요의 가사에서 드러나는 지역의 생활상을 중심으로 과거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한 다양한 교양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들이다. 팔탄 민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커리큘럼부터 지역의 과거사와 같은 민요를 중심으로 지역사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및 토론거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동아리적인 성격이다. 팔탄민요를 중심으로 동아리를 만들게 되면 일종의 학습동아리를 목표로 잡아야한다. 학습동아리란 말 그대로 학습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2012년 진행된 김한별과 김영옥의 연구에서 학습동아리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54]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자율적운영의 강조와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습주제에 대한 수평적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수행이 바로 그것이다. 지역학과 평생교육은 하향식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생활문화까지 고려한 무형문화재 복원을 이야기하려면 현대 학습동아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과 수평성이 꼭 필요하다.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와 9월 진행한 면단위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전통적으로 지역에서 행해지던 장승제와 곁줄 줄다리기를 축제에서 진행해야하는데 장승을 공사장비로 심는 문제와 줄다리기 줄을 기성품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성원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고 한다. 결국 포크레인으로 장승을 심고 기성품으로 제작된 줄을 사용해서 줄다리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디까지가 편의를 위해 현대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전통을 그대로 지켜내야 하는 부분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농촌사회의

현실로 볼 때 이러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마을의 권력관계에 따라 사안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당제에서 쓰이는 금기와 절차가 의미는 휘발되고 형식만 남게 되어 왜라는 질문 없이 반복되다 소멸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전통문화를 계승함에 있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을 간소화하거나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과거 형태를 박제화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전통문화의 생명력을 사라지게 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팔탄민요를 생활문화적 성격을 살려 복원하려면 과거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 전통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율적인 토론과 결정이 꼭 필요하다. 만약 지역민들의 큰 바램대로 팔탄민요를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가 열리고 그것이 시와 도 단위의 주목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에서 하향식으로 기획하는 축제가 아닌 지역민이 구성원으로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과 지역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이성을 확실히 드러내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지역 주민들의 공감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특히 과거의 생활문화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을 직접 재현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팔탄민요의 연구를 통해 파악한 맥락들을 어떤 방식으로 현대에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요 재현을 위해 일부의 논을 과거 방식으로 경작한다거나 농요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하는 농촌체험 캠프 등을 기획한다고 할 때 단순히 돈이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는 지역민들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학술적인 연구나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완성시킬 수 없는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논의를 통해 완성해야 할 요소들이다.

3) 문화원의 역할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향토문화에 대한 수집과 정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기 때문에 동아리에서 필요한 지역학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중앙학계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지역문화는 특이성과 대표성을 중심으로 조명되지만 문화원에서 생산하는 지역학술 자료의 경우 사대적으로 디테일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제작되는 향토자료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리되고 있으나 과거 발행된 문화원의 향토자료는 중앙학계에서도 주목하는 숨겨진 자료들이다. 물론 과거에 작성된 자료들이 학술자료로 활용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부족함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원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추가조사를 통한 보완작업들이 이루어지면 그간 진행한 성과들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조사 작업을 진행하거나 문화교육 활동을 진행해왔던 강사와 학자 등의 인력자원등도 지원이 가능하다. 팔탄민요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화성시사>나 <경기민속지> 제작에 참여했던 학자들과 연결을 시킬수 있고 지역학 교양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들 중에서도 동아리 활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강사 인프라를 시행착오 없이 연결해줄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책정된 사업예산중 동아리활동의 성격과 일치하는 항목의 예산을 활용하여 면단위에서 진행하기 어려운 큰 규모의 학술대회나 세미나 혹은 워크샵 등을 공동으로 주최할 수가 있다. 물론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발표자나 토론자, 공간과 진행 노하우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문화동아리들에서 문화원에 가장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연습 및 학습활동을 위한 공간지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문화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일정과 시간을 고려하여 나누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마지막으로 현재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지점인데 시나 문화원연합회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행정 공간 및 인력지원을 들 수 있다. 학습동아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는 것이다.[35] 교육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거나 회의를 위한 모임을 주재할 때 또 교육의 성과물이 발표회나 공연으로 구현될

때도 모두 경제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현재 지원중인 사업에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 되는 부분이 지원금 신청과 지출절차에 대한 어려움의 호소다. 실제로 자발적으로 운영 중인 학습동아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동아리를 운영하는 집행부에게 경제적 부담이 너무 많이 지워져서라는 얘기도 있다. 각 문화원마다 역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공모에 지원하고 예산 신청 및 지출에 대한 노하우는 지역주민들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체가 형태를 갖추고 자생력을 키우기 전까지는 지원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조금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축제가 예산낭비의 주범으로 몰린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36] 많은 사람들이 그 부실한 운영과 천편일률적인 형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축제에 세금을 쓰는 것은 무작정 나쁘게만 볼일이 아니다. 항상 지역축제의 맥락 없음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데 이제는 현상적인 것을 넘어서서 지역특색을 살릴만한 지역 내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근래에 들어 다양한 생활문화동아리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문화원의 역량인 향토문화의 축적자료들을 활용하여 생활문화동아리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마. 결론

지금까지 생활문화 동아리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과 전승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팔탄민요를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적 속성을 가진 전통문화에 대한 복원 방향성도 제시하였다.

소수 예능인들을 위한 엘리트문화와 반대되는 개념인 생활문화의 발전은 문화수혜자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흐름의 변화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문화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도 전통문화 중 전문화된

예능인들의 엘리트문화는 아마추어들이 학습하고 교류하는 동아리형태로 생활문화화 되고 있으나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는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상황변화와 인력, 예산, 행정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형태 보존이 힘들 정도로 고사위기에 처해있다. 그리고 보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생활문화적인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박제화의 단계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성시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원사항이었던 경기도무형문화재 27-2호 화성시 팔탄면 <상여소리, 회다지소리>의 주민중심 복원방안을 생활문화동아리의 방식으로 진행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무형문화재 27-2호로 지정된 화성시 팔탄면의 <상여소리, 회다지소리>는 구연의 어려움 때문에 소멸된 <긴방아소리> 부분이 살아있는 경기남부의 대표적 장례요다. 하지만 선소리꾼 박조원씨가 남긴 자료를 보면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 이외에도 팔탄지역의 지명이 담겨있고 빼어난 기량을 자랑하는 보존가치가 큰 경기남부 대표민요문화재이다. 복원과정에서 지자체의 무관심과 복원 후 얻게 될 경제·명예적 이권을 위한 주변인들과의 주도권싸움,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에 많이 치우친 복원 동기 등 우려되는 부분이 많았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생각한 방법은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원참여였다.

팔탄민요를 구성하는 노동요와 장례요는 과거 생활의 필요에 따라 불렸던 생활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 원형의 모습만을 박제화 하는 기존의 형식으로는 생명력있는 복원이 어렵다. 실제 무형문화재의 선정 방식도 문화제 보존기록을 그대로 재현하는 원형론(原型論)에서 맥락에 따른 다양한 변용을 용인하는 전형론(典型論)을 따르는 법으로 개정되어 2016년 3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박조원류 팔탄민요를 복원하는 방안으로 지역학적 성격을 지닌 평생학습동아리의 형태를 제안하였다.

팔탄면 구장리의 옛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으며 음악적으로는 경기남부의 대표성을 가진 팔탄민요의 지역학적 측면, 민요와 전통문화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학습하는 평생교육적 성격, 자율성과 수평성, 자발성을 확보할 수 있어 현대 생활문화의 특징을 만들 수 있는 지역학적 평생학습동아리가 합쳐진 형태이다. 이러한 방향의 생활문화동아리가 생활문화적으로 팔탄민요를 복원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았다. 하향식으로 하달되는 문화가 아닌 참여를 통해 수평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옛 생활문화와 현재 팔탄면의 생활문화의 접점을 찾고 진정한 계승발전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제화를 위해 지켜나가야 할 부분과 간소화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 내 합의도 이룰 수 있어 추후 진행할 상품화 단계에서의 경제·문화적 성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문화원도 학술적 인력풀 및 축적된 향토자료, 공간 그리고 행정노하우들을 전격적으로 지원하여 그 과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지자체들도 행정, 경제적 자원이 풀뿌리 문화조직인 생활문화동아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 추진 전 구상단계의 방안을 이야기하는 단계의 논문이라 현실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 시행착오들을 좀 더 겪어내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직면하면 변경해야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큰 방향에서 생활문화 적 전통문화의 복원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지역사회의 교류와 소통에 있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추진해 나가야할 방향중 하나일 것이라 생각 된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진행 하게 되면 많이 수정된 후속적인 연구보고가 필요할 것이다.

각주_

29)유팔무,「한국전쟁과 문화변동」, 「아시아문화」 16호(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217쪽.

30)권숙인,「소비사회와 세계체제 확산 속에서의 한국문화론」, 「비교문화연구」4호(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쪽.

31)1994년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8조.

32)전자문헌 :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238600

33)문화다움(추미경외), 「화성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기초연구」(화성문화재단, 2015), 54쪽

34)전자문헌 :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54885&cid=46615&categoryId=46615

35)한동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기능적 역할 연구」,「역사문화연구」 44집(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282~283쪽.

36)전자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6년 11월 3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2769

37)강등학외, 『경기향토민요』(경기도국악당, 2007), 214~215쪽.

38)강등학외(2007), 위의 책, 216~217쪽.

39)장유정, 「20세기 전반기 〈방아타령〉계 노래의 지속과 변모」, 『한국민요학』 30호(한국민요학회, 2010), 327쪽

40)전자문헌 :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사이트」,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urisori.co.kr/dokuwiki-cd/doku.php?id=gg:%EA%B2%BD%EA%B8%B008:%EA%B2%BD%EA%B8%B00808

41)이소라,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제 4권(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123~124쪽

42)이소라(2006) 위의 책, 140쪽

43)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 안희만 간사와의 대화 녹취록, 녹취날짜 : 2016년 9월 13일.

44)전자문헌 :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사이트」,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urisori.co.kr/dokuwiki-cd/doku.php?id=gg:%EA%B2%BD%EA%B8%B008

45)전자문헌 :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사이트」 검색일자 : 2016년 11월 3일.
http://folkency.nfm.go.kr/munhak/dicPrint.jsp?DIC_ID=7371&xslUrl=dicPrint_Pop.jsp&printYN=Y

46)1999년 1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1999년 7월 1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 2조 제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라시아연구』 제 13권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고찰」 240쪽에서 재인용.

47)2015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년 3월 28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 2조 제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라시아연구』 제 13권 「대한민국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제도 고찰」 240쪽에서 재인용.

48)송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소고」, 『남도민속연구』 제 17집,(남도민속학회, 2008), 223쪽.

49)"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년 3월 28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 2조 제 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50)송준, 위의책(2008), 225쪽

51)전자문헌 :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일자 2016년 11월 3일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5749100

52)2014년 1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8월 30일 시행된 「평생교육법」 제 2조 제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53)2007년 12월 21일 개정 시행된 「교육기본법」 제 10조 제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54)김한별외, 「구성원관점에서 본 평생학습 동아리의 운영원리」, 『교육문제연구』 제 42집(2012), 76쪽.

55)김한별외(2012), 위의 책, 84쪽.

56)강경록,「[대한민국은축제중]③ 이름모를 축제에도 혈세 '펑펑'」, 『이데일리』, 2016년 11월 1일 기사.

<참고문헌>

단행본

『화성시사』, 화성시사편찬위원회, 2006.

『경기도의 민속예술』,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1997.

김영운 외, 『경기도의 향토민요』, 경기문화재단, 2006.

강등학 외, 『경기향토민요』, 경기도국악당, 2007.

이소라,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제 4권,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2006.

논문

유팔무, 「한국전쟁과 문화변동」, 「아시아문화」 16호(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0.

권숙인, 「소비사회와 세계체제 확산 속에서의 한국문화론」, 「비교문화연구」 4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문화다움(추미경외), 「화성시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활용방안 기초연구」, 화성문화재단, 2015.

한동현,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지방문화원의 기능적 역할 연구」, 「역사문화연구」 44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장유정, 「20세기 전반기 〈방아타령〉계 노래의 지속과 변모」, 「한국민요학」 30호(한국민요학회, 2010), 327쪽
송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소고」, 「남도민속연구」 제 17집, 남도민속학회, 2008.
김한별외, 「구성원관점에서 본 평생학습 동아리의 운영원리」, 「교육문제연구」 제 42집, 전북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12.
송낙길, 「지방문화원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제 9권 2호,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4.
이경엽, 「단절위기 공동체놀이의 전승현황과 계승 방향」, 「한국민속학」 49권, 한국민속학회, 2009.
류호철, 「무형문화재의 개념확장과 전통문화 보전·활용」, 「동아시아고대학」, 동아시아고대학회, 2016
임장혁,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록과 기록물의 활용」,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 15권, 한국무용기록학회, 2008
임재해, 「마을 공동체문화로서 민속놀이의 전승과 기능」, 「한국민속학」 48집, 한국민속학회, 2008

전자문헌
『네이버 국어사전』, 2016
『한국민요대전 자료음반사이트』, 2016
『국가정보법령센터』 www.law.go.kr (2016)
「지방문화원진흥법」
「평생교육법」
「교육기본법」
「문화재보호법」

기사
강경록, 「 [대한민국은축제중]③ 이름모를 축제에도 혈세 '펑펑'」, 『이데일리』, 2016년 11월 1일.

여 백

p.217-218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과 전승
-팔탄민요 복원을 중심으로-

화성문화원 김명수 연구원

목차

1. 서론
2.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의 전승과 난제
3. 팔탄민요 복원 현황과 복원활동 경과
4.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전통문화 복원과 전승
5. 결론

서론

- 지방문화원의 의무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1994년 제정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 · 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 · 수집 · 조사 · 연구 및 활용

- 전통문화

꼭 지켜내야할 우리 문화유산

⇨ '대단하고 신성하지만 재미는 없는 문화'

서론

- 단절된 무형문화재를 복원하겠다는 민원발생
  - 1998년 9월 21일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 27-2호로 지정
  - 2008년 선소리꾼 박조원 선생이 후계자 없이 타계
  - 문화재 지정이 해제되었다.
  - 2016년 팔탄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안희만 간사와 시청 및 문화원이 직·간접적으로 접촉
  - 화성문화원에서는 지원방식에 대해 고민하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회의에 참가한 후 생활문화동아리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의 전승과 난제

- 전통문화
  - 그 나라에서 발생하여 전해 내려오는 그 나라 고유의 문화
- 생활문화
  -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동체단위로 전승해온 문화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

- 전통사회에서의 통과의례나 생활의 필요성에 의해 전승되었던 문화
- 지역 밀착 문화원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특수성이 드러남

화성시 생활문화 기반 전통문화

이름	내용
기안동 용줄다리기	태안읍 기안동, 정남면 보통리에서 진행되는 정월대보름 줄다리기
보통리 용줄다리기	
정남땅울림 정월대보름	정월대보름을 맞아 진행되는 민속놀이 행사
남양읍 정월대보름	
장안리도당굿	장안리에서 행해지는 마을굿
전통석전대제 지원	금산사, 안곡서원에서 행해지는 석전대제 지원사업
왕재호상놀이	정남면 괘랑리에서 행해지는 전통 민속 장례의식 재현 놀이
봉담역말농악보존회	화성지역 전통 농악보존회 지원
화성농악보존회	
경기도민속예술제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 준비 및 참가지원

전승 단절의 사회문화적 배경

- 인력 부족
  - 농촌지역 청장년 인구 부족
- 예산 부족
  - 예산은 언제나 부족
- 행정력 부족
  - 고령으로 편성, 지출, 증빙정리등

-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의 생활문화적 기능 상실

팔탄민요 복원 현황

- 박조원 창본의 자료적 가치
  - 경기도 무형문화재 27-2호(1호는 양주, 3호는 양평)
  - 경기남부의 대표 상여 회다지소리
  - 회다지에 상여소리 가사를 활용하는 남부의 특징

> 민족음악연구소의 이소라 교수
> "부르기 힘들어 사라진 긴 입말의 긴방아와 문셍이가 건재한 채로 팔탄농요가 녹취되었음은 화성지방 논맴소리의 전체적 위상을 드높이는 일."

- 팔탄면 주민입장
  - 팔탄면의 옛 지명과 마을의 역사가 담긴 가사

팔탄민요 복원 현황

팔탄민요의 단절 및 복원 시도

- 단절이유
  - 비공식 전승자의 죽음
    - 가장 가까이에서 소리를 하며 배우던 비공식 전수자가 있었으나, 그 전수자가 알코올중독에 가까운 상태
  - 지역주민들의 비하
    - "어기" 라는 말로 비하
    - 기계농법이 도입되면서 쓸모 없는 이 취급을 받음
    - 선소리꾼의 홍과 끼가 근면의 덕목과 충돌
  - 전승의지 부재
    - "이런 세상에 누가 이런 소리를 누가 배우려할 것이냐"

팔탄민요의 단절 및 복원 시도

- 문제점과 한계
  - 지역주민들의 동의확보
  - 지자체의 도움 부재
    - 지정과정 평가자료, 녹취 등 자료가 없음
    - 화성문화원도 생전에 시도했으나 이수자의 협조가 어려웠음
    - 도단위 대회출전 자료 및 채록 자료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 학계인사들의 자료 독점
    - 자료 사유화시도
    - 접촉에서 주민을 배제한 시도
  - 축제 개최등 부가 사업 중심의 관심

생활문화동아리와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

문화재보호법 2조 2항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1994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공연 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2016년 3월 28일

원형(原型) 과 전형(典型)개념 - 문화재보호법 2조 2항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3월 27일 일부 개정되어 2016년 3월 28일 시행된 「문화재보호법」 제 2조 제 2 항,

생활문화동아리와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

- 원형
  - 어떤 부류의 본질적 특색을 나타내는 틀로서 특정시기 한 형태를 규정하는 원형
- 전형
  -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인 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변화의 속성이 내발적 역동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개념
- 원형개념의 부작용
  - 민속경연대회를 통한 형태가 원형으로 굳어짐
- 생활문화동아리의 효용
  - 지역밀착 민요를 학습 지역문화자산을 직접 만드는 체험

박조원류 팔탄민요의 복원방안

- 지역학적 평생학습동아리
  - 지역학적 성격
    - 팔탄민요가 나온 지역적 배경
    - 경기도 민요로서의 대표성 자각
  - 평생교육의 성격
    -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 세대를 초월한 교육대상
    - 학술적, 예술적인 교양교육
  - 동아리 성격
    - 팔탄민요 중심 학습동아리
    - 자발성, 자율성, 수평성
    - 전통문화의 계승방안에 대한 자율토론과 협의

문화원의 역할과 사회적 지원

- 문화원의 역할
  - 지역학술자료 제공(자료로서의 가치확보)
  - 인력자원제공 (강사, 학자, 연구자)
  - 예산과 행정지원(공모지원 및 예산지출 협의)
    - 동아리 깨지는 원인은 집행부의 경제적 부담
  - 공간지원
- 사회적지원
  - 지역축제는 돈 낭비의 상징이 되었음
  - 현실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

결론

- 구상단계의 이야기
- 추가연구가 필요한 상황

여 백

한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의정부 문화원

가. 생활문화/ 생활문화예술 익숙한데 낯설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 하고 어딘가 많이 익숙하며, 또 고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은 단어라 참 쉽게 생각하며 일말의 고민도 없이 "우리가 이제껏 해온 일이잖아"하고 결론을 내리며 관심의 중심에서 한발 벗어나서 바라만 본 단어이다.
그 도 그럴 것이 지방문화원의 생성과 함께 시작하고 성장한 문화학교와 다양한 지방문화사업을 우리는 생활문화예술 또는 생활문화예술사업 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이름을 생활문화사업 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여기저기서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경쟁하듯 다투며 꺼내들고 있다. 마치 새로운 문화예술사업의 패러다임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국민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의 모든 곳에 생활문화예술사업 확산을 위한 방안을 찾으라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단체의 생성부터 그 지역의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태풍과도 같은 생활문화예술 확산사업의 중심에서 벗어나 또다시 주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무 익숙하면 그 가치를 모른다 했던가? 아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생활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인지 또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겐 우리 지방문화원들이 길게는 60년 동안 진행해온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문화원이 생각하는 생활문화사업과 요즘 들어 정립되어지는 생활문화사업과의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지방문화원이 지향해 왔던 생활문화는 무엇이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해서 지방문화원이 처음 생각했던 생활문화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과거 문화원의 움직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그 해답을 찾아야한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있는 생활문화예술의 방향이 바로 우리 지방문화원의 과거에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나. 과거 삶의 모든 기술이 문화가 되던 시대가 있었다.

생활 속의 모든 이야기가 문화의 전부였던 시대는 일상에 소소한 삶의 기술이 가득했다. 우리는 뭐든지 직접 만들고, 짓고, 꾸미고, 세우는 과정을 통해 문화나 예술 또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필연적인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 개인적,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편리함이 일상이 되고 삶에는 여유가 넘쳐났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트에서 사오면 되고, 수리가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 고치면 된다. 남는 것은 버리면 되고, 모자라는 것은 사면된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회 현상 속에 던져졌고, 수많은 편리함 뒤에 현실의 삶은 그만큼 고달프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그 편리함 속에 일상의 기술을 잃었으며 공동체는 사라지고 오로지 돈이 있어야 작동하는 서비스 시스템만 남았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는 삶의 기술을 잃었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었으며, 소통능력은 더욱 더 낮아져 오늘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잃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는 고립되고 피폐해진 삶에서 과거의 일상을 찾기 위해 고군분토하고 있다.
"손수" 만드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늘 함께했던 공동체가 사라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를 쓰고" 산다.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며 살아온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만 투자하며 살았으며 그 결과 결국 남는 것은 경쟁적인 삶속에 잃어버린 삶의 기술,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는 자각이 시작되고 있다.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행복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묻고 있다.
편리함과 바쁨에 밀려난 우리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며, 관계 맺기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너무도 당연하고 보편적인 질문에 2016년 우리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이모든 것이 과거의 생활이며, 문화라고…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요즘 들어 우리가 문화의 핵심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은 기존에 우리 문화원이 지키고 확산시키며 발전 시켜왔던 문화원만의 생활문화예술과는 조금 다르다 물론 원론적인 생활문화에 관한 접근은 같을 수 있겠으나 그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문화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1.5 세대를 위한 0.5세대의 풀이 방식이라 말할 수 있겠다.
과거 0.5세대의 풀이방식을 적용하여 지금의 1.5세대의 생활문화를 푼다는

것은 참으로 간단한 일이다. 간단히 말해서 구성원 모두가 모여서 수다 떨고 음식을 나누며 문제를 의논하고 실천하는 '관심 공동체' 또 함께 놀고, 춤추고, 노래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취향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다.
사라진 '관심 공동체'와 '취향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2016년형 생활문화운동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공동체가 바로 우리
지방문화원이 말하는 생활문화라 하겠다.
문화예술 = 문화 and 예술 인가? 문화 or 예술인가?

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에는 혹시 예술만을 말하는 건 아닌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가 문화와 예술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기존의 기예중심의 예술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예술적 측면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측면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문화자본이 증가하고 국가적 · 지역적 · 개인적 정체성을 강화하며 문화적 가치관 확장 및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등의 문화적 효과, 소득증대 고용창출 국가 이미지마케팅 강화 투자촉진 등의 경제적 효과,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인적자본 제고 교육효과, 범죄예방 등의 사회적 효과를 가지는 등 현대사회에 있어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은 문화라는 커다란 본질에서 예술의 형태로 구체화 된 것이고, 또한 예술의 형태로 구분되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문화를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가 없어 우리는 그것이 마치 문화예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사장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마치 문화예술분야의 범위는 제도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또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말하는 문화예술의 범위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등이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의 전부가 아닌가하는 착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방문화원의 문화 사업이 문화학교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기타 문화 사업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 말이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생활문화 사업이 지방문화원의 사업과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말이다.

라. 생활문화예술의 특성

문화정책의 흐름이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문예술중심에서 시민생활예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때 문화예술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소수전문가들만의 것이었던 예술이 최근에는 예술의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형태로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연결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 교육이 대중화되고 문화자본이 민주화되면서 창작자와 감상자의 관계였던 전문예술가와 시민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문화예술 공동체를 형성해오고 있다.
생활문화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예술 지상주의적인 예술이나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파악하는 도구적 예술과는 차별화된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적 예술이다.

지금의 생활문화예술은 동호회의 형태를 가지며 문화예술동호회는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취미를 가진 문화공동체 성격의 동호회로 정의되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확대하고 개인의 호기심을 중심으로 문화행위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변화를 촉구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공동체지향성을 가진다.

문화예술이 내면의 성장을 지향하였다면 생활문화예술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인 자아실현의 충족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 지역문화예술

'지역문화'란 '지역'과 '문화'의 합성어이다.
우선 '지역'이란 어떤 공통적 또는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졌거나, 혹은 광범위한 지역 활동의 흐름으로 묶인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범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역은 내부적 결집력(internal cohesion)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범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이 등장하기도 하고, 기존의 지역이 사라지기도 한다.
한편 '문화예술'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학습에 의해 이루어 놓은 행동양식, 지식, 가치,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한 하나의 사회생활양식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은 한 사회나 집단을 특정 짓는 정신적, 물적, 지적, 정서적 특성인 동시에 삶의 방식 및 물질적 소산물 전반, 즉 관습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예술'이란 공통적인 요소로 연계된 일정한 공간의 생활양식 전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향유하고 있는 문화, 즉 지역의 전통문화, 지역민의 생활문화, 미래의 창조문화 등을 포괄한다. 한편 지역이

외부지역과 구분되듯이 지역문화예술 역시 지역적 독자성과 개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예술은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을 특징짓는 관습의 덩어리인 것이다. 즉 흔히 지역문화예술이라 하면 지역의 예술 활동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역문화예술은 지역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생활양식의 전체로 보아야 한다.

지역의 생활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확장해가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야하고 그에 맞는 지원 방법을 찾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생활문화예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지원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바. 해외의 생활문화

1) 일본의 사례

일본총무성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생활기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지역민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황은 2011년 기준 10세이상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26.4%로 이중 스포츠 문화예술학술 관련 자원봉사 비율은3.5%이고, 스포츠 문화예술학술 자원봉사자들은 연간29일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관련 사례로 세타가야 미술관 도쿄의 특별구인 세타가야구에 위치한 미술관에서 지역민들이 문화자원봉사자 감상리더가 되어 학생대상 안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 학생 5명, 8명 정도의 리더가 되어 연간 50~60회 정도 개최되는 감상교실 및 박물관 투어에 안내 역할을 맡아 일방적인 작품의 해설보다는 미술관에 흥미를 느끼고 친숙하게 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한가니시 문화창조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화자원봉사단체인 'ala

크루즈'는 회원의 자아실현과 삶의 보람 나아가 시민의 문화·예술의 창조에 기여라는 목적하에 지역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원봉사조직이 신규문화시설과 연계한 경우이다.
세 번째 사례로 NPO 법인인 '토비우메노카이'는 문화와 예술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더욱 많은 시민이 문화와 예술과 만나서 어울리게 하는 것이 조직구성의 목적으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모두 포괄하는 주민들의 문화예술공동체형성이 되고 있다. (조현성 2012).

2) 영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 'voluntary and amateur arts group'가 있다.
이는 자기계발 네트워킹 또는 여가활동으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고 그 단체 구성원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영되는 예술그룹을 지칭한다. 영국인의 예술참여중20% 정도는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영국 내 약49,140개의 자발적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있어 1년간 약710,000번의 공연 및 전시를 개최하고 약159백만명이 관람했으며 1회 공연 및 전시마다 220명이 관람한다.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Arts Counci England, 2008).

3) 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2010년 기준 자원봉사 참여율은 26.3%, 1인당 참여시간은 33.9시간으로 문화자원봉사 참여율9.9% 참여율을 보였다. 문화자원봉사자의수는 1,970,442명 2009년 기준로 문화향유 수준이 높은 사람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공연예술감상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2.7배 높고 클래식 및 재즈라디오 청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2.2배 높았으며 독서가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2.6배 높게 참여율이 나타났다.(American for the Arts, 2010).
미국의 연구에서 문화향유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조사됐다.

4) 기타 사례

□ 문화원의 문화학교와 지역의 문화센터 비교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 운영현황]

구분		구분	강좌명
전통	경기민요장구	악기	클래식기타
	서도민요장구		어쿠스틱기타 (통기타)
	남도민요장구		오카리나
	가야금병창		첼로 레슨1
	난타		첼로 앙상블1
	한국무용		첼로 레슨2
	사물놀이	기타 일반	디지털사진
	규방공예		요가
	전통생활자수		서양화
	한글서예		수채화
	한문서예		인물소묘
	문인화		펜화
	한국화		벨리댄스경력자
	채색민화	아동	청소년예인챔버오케스트라
	닥종이인형		초등미술
	캘리그라피와 수제도장		표현미술

[의정부예술의전당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현황]

구분	강좌명	구분	강좌명
음악	음악아 놀자	미술	직장인을 위한 미술
	꿈꾸는 아리아리랑		놀이미술
	사물놀이		과학실험실의 화가
	즐거운 성악		화가와 떠나는 명화여행
	함께해요 가야금		화가와 떠나는 명화여행
	관악합주	연극	나도 무대의 주인공!
			칙칙폭폭 신나는연극놀이
	즐거운 첼로	무용	굿거리 소고춤
	바이올린을 즐겁게		한량무
	해금		꿈꾸는 발레
	함께하는 피아노		동초수건춤
	직장인을 위한 성악		태평무

[의정부 동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운영현황]

구분	강좌명	구분	강좌명
아동, 청소년	음악줄넘기 A(초등)	성인	국 학 기 공
	신나는 방송댄스(초등)		노 래 교 실
	뮤지컬잉글리쉬		벨리댄스
	청소년 기타교실		나이아가라 치매예방
	쿠킹 아트(6~7세)		문인화
	키즈 미술(7세~초등)		중국어 회화(초급)
	역사야 놀자(2~4학년)		중국어 회화(중급)
성인	경기 민요		생활영어
	생활영어(저녁반)		캘리그래피
	컴퓨터(기초)		커피문화교실
	블로그, 동영상		필라테스 요가(A)
	컴퓨터 (엑셀*파워포인트)		필라테스 요가(B)
	컴퓨터 (한글 2010)		천연화장품.비누
	컴퓨터 (엑셀)		홈 패션
	우 크 렐 레		팬 화
	사물놀이(A)		가요명곡과 팝송
	사물놀이(초급반)		일어 회화
	클래식기타교실(초급)		한문서예
	홈 베이커리		생활댄스
	탁구교실(초급)		스포츠댄스
	요 가(A)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 강좌]

구분	강좌명	구분	강좌명
아동	이야기가 있는 숲	공예,예술	사랑스러운 Basic아기옷
	북아트로 만나는 역사		감성 손뜨개
	창의 팡팡 ! 꼬매아트!!		두뇌건강 보드게임
	이야기가 있는 독서교실		아트 페인팅
	놀이로배우는 창의수학		다육공예 DIY
	영어문법이랑 놀자		생활 속 아로마테라피
	요리쿵조리쿵역사사회		우리엄마는 파티플래너
	두근두근 과학아 놀자		재활용공예
	자연에서 놀아요		동양매듭 전통악세사리
	동화나라 여행		창의육감놀이
	엄마표 오감 미술놀이		토탈 플라워 아트
	스토리텔링 놀이수학	어학,인문학,자격증	글로벌회화교실
	창의영재 보드게임		학부모아카데미 초등
공예,예술	한지공예		학부모아카데미 중등
	아트애즈 테라피		4050 은퇴를 은퇴하라
	패션&페이스페인팅		건강耳침
	우드버닝(전기인두화)		비전리더쉽캠프
	손뜨개교실		두뇌건강 FUN FUN
	냅킨소품공예		약초관리사 자격증 과정
	생활소품 DIY		청소년 바리스타교실
	나무공예 DIY		多 맛난 요리교실
	포크아트 &톨페인팅		우리집 토론리더 전문가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동화여행
	토탈플라워아트		알뜰하게 꿀피부만들기
	톡 톡 톡! 아트		웃음치료
	교육마술배우기		4050 미래인생설계
	그림책과함께 스피치수업		역사북아트 전문가 양성
			일본어 배우기

생활문화사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예술이란 장르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는 면만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지방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지방문화원이 생활문화 사업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지방문화원은 다시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찾아야한다.
지방문화원 만의 생활문화사업을 아니 정확히 지방문화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생활문화 사업을 또 지방문화원만이 할 수 있는 생활문화사업을…

사.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

요즘 들어 의정부문화원은 이야기라는 단어에 목말라있다.
모든 문화사업의 시작을 이야기라는 단어에서 찾으려한다.
어르신들의 이야기, 주부의 이야기, 청소년들의 이야기, 남편들의 이야기, 자식들의 이야기, 선생님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공간의 이야기, 예술작품이야기, 음식이야기 등등 무수히 많은 ○○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문화원의 앞으로의 사업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어색하고 어렵고 경험도 없지만 이것이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공통의 요소이며 또 미래를 찾아가는 생활문화의 사업의 열쇠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문화원은 재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문화원도 재미있고, 시민들도 재미있고, 일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수혜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재미있는 그런 사업 우린 그 키워드를 소소한 이야기에서 찾는다.

첫 번째 이야기『지금만나러 갑니다. 한마음 실버밴드 』
한마음 실버밴드 사업은 어르신들의 과거의 꿈에 대한 이야기다.

단순히 악기를 가르치고 노래를 배우는 그런 밴드육성 사업이 아니다. 젊은 시절 미8군 밴드의 공연을 보며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고 싶다고 꿈꾸던 젊은 청년이 이제 백발이 되어 그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 평생 택시를 몰아 홀로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할머니의 유일한 취미인 운전하며 노래 부르기 언제고 기회가 된다면 택시 밖의 멋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 한명 한명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실버밴드 만들기 사업이다.

이제 그렇게 각자가 꾸었던 꿈이 모두의 노력으로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망막하기만 하던 어르신 밴드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여기저기 노인정과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다닌다. 희망과 사랑을 가득 담은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

현재 한마음실버밴드를 위해 의정부문화원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젠 어르신들이 우리 문화원을 돕고 있다. 홍보도 하고, 또 다른 후배 뮤지션을 양성하고, 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고 우리 의정부문화원에는 자랑스런 한마음 실버밴드가 있다.

두 번째 이야기『어르신 닥종이인형반 탄생 』

어르신 닥종이인형반은 인형이 가지고 있는 환상 그리고 친밀함에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또는 추억이 좋은 재료가 되어 만들어진 또 하나의 생활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응답하라 1960』이다 1960년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지금의 어르신들의 기억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우리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 살아가며 어떠한 추억을 또 어떠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강의실에 가득하다

사실 의정부문화원에는 닥종이인형 강좌가 있었다. 이미 그 역사가 20년 가까이 된 우리문화원의 대표 문화강좌였다. 하지만 수강생이 점점 줄어들어 2015년 폐강의 위기에 처했고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꼭 지키고 싶은 강좌였고 의미있는 강좌였기 때문이다 그 고민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우리는 원인을 생각했고 또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너무도 당연한 곳에 있었다. 앞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했던 문화예술교육에 치중된 즉 기술과 결과에 치중한 지금의 문화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구성원들간의 이야기가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생활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어르신 닥종이인형반은 대기자가 많아 고민이 되는 우수한 강좌가 되었다.

올 8월 우리는 닥종이인형반 『응답하라 1960』 프로젝트의 첫 전시가 진행되었다. 너무도 많은 호응과 부러움에 참가자들의 자존감은 높아만 갔고 여기저기에서 전시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이야기 공동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이들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 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닥종이 인형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예쁜 옷을 입혀 새로운 장르로 변화를 할 것이다.

아직은 그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도전이 의정부문화원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은 문화원, 문화의집,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내 활동중인 예술가들과 생활문화예술 관련 인적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교육활동을 진흥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일상의 문화를 발견하고 나누고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예술가와 단체의 역량을 활용해 생활문화교육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대상 생활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경기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생활문화예술 사업이다.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우리문화원이 진행해왔던 생활문화교육사업과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가 그 지역의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어가 생활문화가 되고 생활예술이 되어 가는지 고민하고 있다. 또 이러한 지역의 생활문화예술을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 개발하는데 앞장서야하는 문화원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매개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고 있다.

2016년 10월 29일 남양주문화원을 시작으로 11월 20일 의정부문화원까지 15개의 다양한 기관이 생각하는 생활문화예술 사업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축제가 진행된다.

경기문화재단의 생활문화플랫폼 축제기획단은 이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 독특한 살림 노하우를 가진 사람, 술을 잘 빚는 사람 등등 다양한 이웃들이 있다.

그러한 개성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 어느새 마을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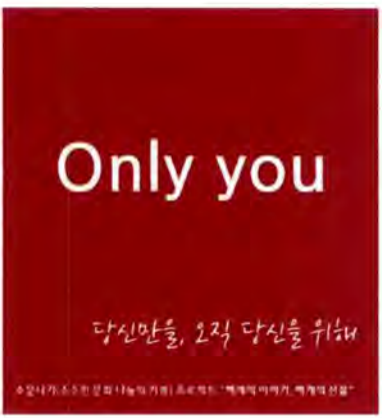
그것이 생활문화다. 따라서 생활문화는 강좌 수강이나 관람 위주의 소위 '문화생활'과 구별된다.

기능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 그렇기에 문화예술 활동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부터 시작 하여 주민들의 역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마을에 다가갈 수 있도 록 해줘야 한다.
이번 생활문화플랫폼 축제에 는 그러한 과정들이 녹아 있다.
주민들이 서로의 능력과 공동 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마을의 특성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 문화'라면 그 때 주민들은 문화 생산자, 즉 생활문화디자이너가 된다.
그리고 생활문화디자이너들을 모아내어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엮어내는 장소가 바로 '생활문화플랫폼'이다.』

[생활문화플랫폼 축제 참가 단체 및 프로그램]

구분	자역/단체	행사명
문화원	이천문화원	내 생애 첫 술잔
	의정부문화원	백 명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선물단
	시흥문화원	2016함께하는 생활문화
	수원문화원	어서와~생활문화는 처음이지
	남양주문화원	지구마을공작소
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광명생활문화디자이너 축제 _ 광명생활문화「PICK ME UP!」
	남양주 진접문화의집	우리동네 하더라 쉐프 축제
	성남서현문화의집	성남 생활문화 네트워크 축제
	화성봉담문화의집	상기2리 마을 이야기 사진잔치
기타	광명-세상의 모든 나무	게릴라목공
	고양-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수작가무
	안성-문화예술놀이터 우리	미생(美生)살롱의 생활문화 포틀럭 파티
	안산 신나는문화학교 경기지부 A-TEEN 문화공간 쉼표	고잔마술스토리, 고(告)고(GO) 파티
	양평산중협동조합	강상 산중마을 문화나눔 축제
	파주이야기가게	파주 이야기잔치



의정부문화원이 진행하는 생활문화 플랫폼 사업

『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 프로젝트
『백개의 이야기 백개의 선물』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플랫폼 참가 사업인 『소문나기』프로젝트는 45개의 문화학교 강좌와 1,000여명의 회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정부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생활문화예술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다.

처음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지원하며 그간에 지속 되었던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과 별다른 것 없을 거라는 부담 없는 생각은 첫 번째 워크숍에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생활문화예술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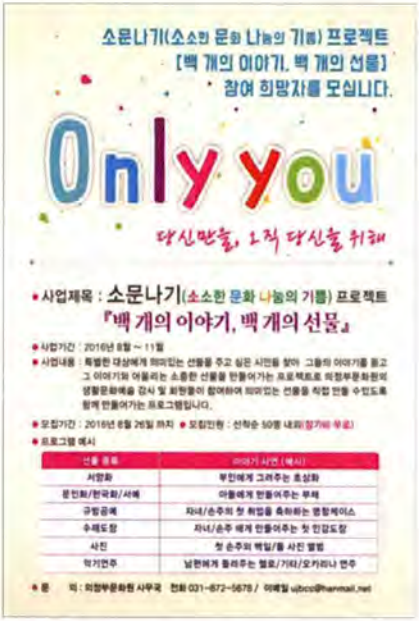
『문화에 예술교육의 옷을 입히는 작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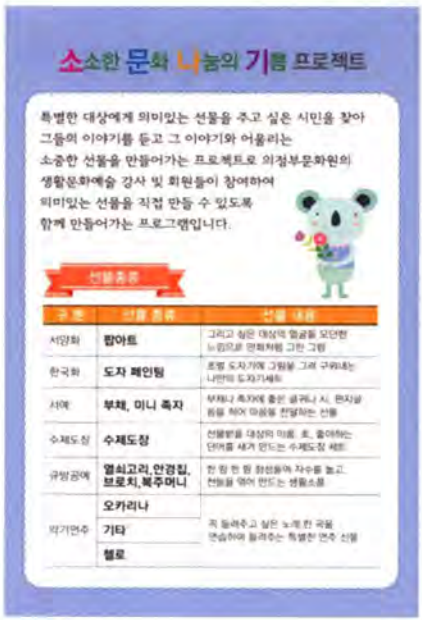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해준 김영현 선생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첫째 문화원에서 활동하던 생활문화 강사 및 동아리들이 지역의 문화적 이슈를 만들고 생활문화 활동의 제 2단계를 실천해야하며

둘째로 생활문화 실천 플랫폼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와 이슈들을 통해 네트워크 강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삶에 다가가기 위한 사업이여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의정부 지역의 문화 활동의 네트워크와 허브의 역할을 문화원이 찾아가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쉽게만 생각했던 이번 사업이 엄청난 부담과 반성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는 미처 몰랐다.





『백개의 이야기 백개의 선물』사업은 우리 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선물이란 도구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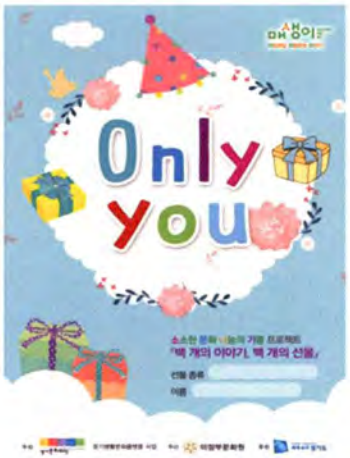
선물을 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연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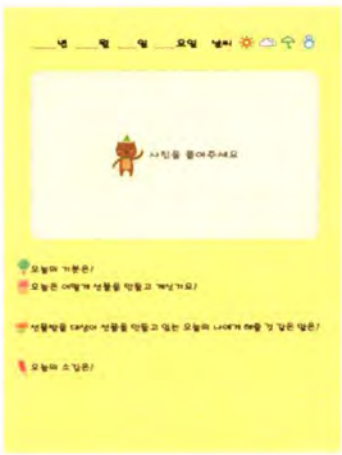
처음 공고를 내고 홍보를 시작하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우리의 사업을 이해하고 동참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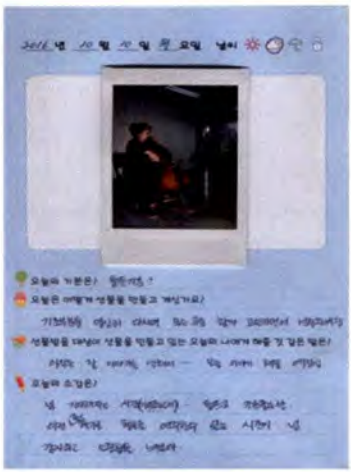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걱정과는 반대로 기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참가 의사와 함께 다양한 사연을 보내왔다. 물론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환상이 그들의 시선을 잡은 것이라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시작된 우리의 소문나기 프로젝트는 컨설턴트

김영현 선생님의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가득담은 그러나 참 쉬운 설명회를 통해서 점점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100명의 생활문화선물단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매일 써가는 선물노트]

100개의 선물을 만들어가는 100명의 선물단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의 열정이 단연 최고다.
그동안 문화원에서 진행해온 문화예술 강좌에 참가하는 분들도 열정이 가득했지만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은 좀 특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통해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울이 또 공감해가는 문화공동체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아직은 어설프고 또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 의정부문화원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활문화예술 사업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작업이었다.
2016년 11월 20일 오후3시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백 명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선물단』토크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100명의 선물단과 100명의 선물을 받을 대상자들이 같은 자리를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지해주며 그동안 준비한 선물을 감상하며 하나가 되는 문화공동체 문화가족이 되는 날이 될 것이다.

아.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첫째 문화에 예술의 옷을 입히자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의 보고이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구성원이 살아오면서 집약되어진 지역의 문화 이야기가 있다.
지식, 가치,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한 하나의 사회생활양식 전체를 정리하고 발굴해내서 그에 맞는 표현 방법을 예술이라는 친근한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이 정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민요의 기법을 배우는게 아니라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노래로 만들어 내고 부르면서 지역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활예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 강좌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자.
문화원과 유사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기관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차별성을 잃어 버린지 오래이다. 문화원은 시민들의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왜 악기를 배우고, 왜 춤을 배우고, 노래, 서예, 그림 등등을 배우려고 하는지 또 그들이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작 그들이 문화원의 생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형태의 생활문화예술 사업을 찾아야한다. 획일화 되고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셋째 우리 동네만의 재료를 찾자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어디에 가서도 찾을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있다. 서예, 무용, 미술, 음악, 밸리댄스, 하모니카, 기타, 오카리나 등등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강의는 없다. 예를 들어 이천문화원의 내생의 첫 술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들 수 있으며 의정부의 예로 부대찌개와 연결되는 음식이야기, 천상병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음악, 미술, 무용 등의 프로그램 등 수많은 소재를 활용해야한다.

넷째 이웃의 강사를 찾아가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문가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왔던 문화예술 전문 강사 뿐만 아니라 김치전문가, 자전거수리전문가, 액자전문가, 악기수리전문가, 블로그 및 SNS전문가, 물고기 키우기 전문가, 애견전문가, 가정용 화초 전문가, 살림전문가, 육아전문가 등등 무수히 많은 생활 속 달인들이 존재한다. 이젠 그들의 이야기와 노하우 등이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생활문화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지금까지 문화원이 키워온 노하우와 만나 경쟁력 있는 생활문화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여 백

기존 강좌중심에서 탈피한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의정부문화원
박정근 사무국장

1. 생활문화/ 생활문화예술 익숙한데 낯설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 하고 어딘가 많이 익숙하며, 또 고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은 단어라 참 쉽게 생각하며 일말의 고민도 없이 "**우리가 이제껏 해온 일이잖아**"하고 결론을 내리며 관심의 중심에서 한발 벗어나서 바라만 본 단어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방문화원의 생성과 함께 시작하고 성장한 문화학교와 다양한 지방문화사업을 우리는 생활문화사업 또는 생활문화예술사업 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사업의 이름을 생활문화사업 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지만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후 여기저기서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경쟁하듯 다투며 꺼내들고 있다.
마치 새로운 문화예술사업의 패러다임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서 전국에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의 모든 곳에 생활문화예술사업 확산을 위한 방안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 단체의 생성부터 그 지역의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설립된
지방문화원은 태풍과도 같은 생활문화예술 확산사업의 중심에서 벗어나 또다시 주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너무 익숙하면 그 가치를 모른다 했던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생활문화에서 기인하기 때문인지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겐 우리 지방문화원들이 길게는 60년 동안 진행해온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문화원이 생각하는 생활문화사업과 요즘 들어 정립되어지는 생활문화사업과의 차이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해도 말이다.

그렇다면 지방문화원이 지향해 왔던 생활문화는 무엇이었을까?
아니 정확히 말해서 지방문화원이 처음 생각했던 생활문화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과거 문화원의 움직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그 해답을 찾아야한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정리되어지고 있는 생활문화예술의 방향이
바로 우리 지방문화원의 과거에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삶의 모든 기술이 문화가 되던 시대가 있었다.

생활속의 모든 이야기가 문화의 전부였던 시대는 일상에 소소한 삶의 기술이 가득했다.
우리는 뭐든지 직접 만들고, 짓고, 꾸미고, 세우는 과정을 통해 문화나 예술
또는 소통과 화합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필연적인 공동체의 삶을 영위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의 삶의 방식이 개인적, 기술 집약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편리함이 일상이 되고 삶에는 여유가 넘쳐났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트에서 사오면 되고, 수리가 필요하면 전화를 걸어 고치면 된다. 남는 것은 버리면 되고, 모자라는 것은 사면된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회 현상 속에 던져졌고, 수많은 편리함 뒤에
현실의 삶은 그만큼 고달프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그 편리함 속에 일상의 기술을 잃었으며 공동체는 사라지고 오로지
돈이 있어야 작동하는 서비스 시스템만 남았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우리는 삶의 기술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었으며, 소통능력은 더욱 더 낮아져
오늘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잃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는 고립되고 피폐해진 삶에서 과거의 일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손수" 만드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늘 함께했던 공동체가 사라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를 쓰고" 산다.**
잘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앞만 보며 살아온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만 투자하며 살았으며 그 결과 결국 남는 것은 **경쟁적인 삶 속에 잃어버린 삶의 기술, 관계**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라는 자각이 시작되고 있다.
인문학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행복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묻고 있다.
편리함과 바쁨에 밀려난 우리의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며, 관계 맺기가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너무도 당연하고 보편적인 질문에 **2016년 우리는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이모든 것이 과거의 생활이며, 문화라고... 거기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요즘 들어 우리가 문화의 핵심 키워드로 생각하고 있는 생활문화예술은 기존에 우리 문화원이 지키고 확산시키며 발전 시켜왔던 문화원만의 생활문화예술과는 조금 다르다. 물론 원론적인 생활문화에 관한 접근은 같을 수 있겠으나 그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문화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1.5 세대를 위한 0.5세대의 풀이 방식이라 말할 수 있겠다.

과거 0.5세대의 풀이방식을 적용하여 지금의 1.5세대의 생활문화를 푼다는 것은 참으로 간단한 일이다.
간단히 말해서 구성원 모두가 모여서 수다 떨고 음식을 나누며 문제를 의논하고 실천하는 **'관심 공동체'** 또 함께 놀고, 춤추고, 노래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취향 공동체'**를 복원하는 것이다.
사라진 '관심 공동체'와 '취향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2016년형 생활문화운동이라 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문화공동체가 바로 우리 지방문화원이 말하는 생활문화라 하겠다.

2. 문화예술 = 문화 and 예술 인가? 문화 or 예술인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예술이라는 용어가 문화와 예술을 함께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문화예술은 기존의 기예중심의 예술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예술적 측면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소통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적 측면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문화예술은 문화라는 커다란 본질에서 예술의 형태로 구체화 된 것이고, 예술의 형태로 구분되어지지 못하는 또 다른 문화는 그것을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가 없어 그것이 마치 문화예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사장시켜왔다.

마치 문화예술분야의 범위는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에서 말하는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등이 전부가 아닌가하는 착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러한 인식이 **지방문화원의 통합적인 문화예술사업을 문화예술교육사업과 기타 문화 사업으로 구분하게 만드는 어이없는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든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 말하고 있는 생활문화 사업이 지방문화원의 사업과 이질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된 것은 아닌지 말이다.

생활문화예술의 특성

문화정책의 흐름이 중앙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문예술중심에서 시민생활예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때 문화예술은 지식과 능력을 가진 소수전문가들만의 것이었던 예술이 최근에는 예술의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형태로 문화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연결하고 있다.

생활문화예술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예술 지상주의적인 예술이나 경제 발전이나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파악하는 도구적 예술과는 차별화된 공동체 구성원의 자아실현과 상호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공동체적 예술이다.**

지금의 생활문화예술은 동호회의 형태를 가지며 문화예술동호회는 문화예술을 공유하는 취미를 가진 문화예술공동체 성격의 동호회로 정의되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자아실현을 확대하고 개인의 호기심을 중심으로 문화행위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하는 공동체지향성을 가진다.

문화예술이 내면의 성장을 지향하였다면 생활문화예술은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회적인 자아실현의 충족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원의 문화학교와 지역의 문화센터 비교

구분	강좌명	구분	강좌명
전통	경기민요장구	악기	클래식기타
	서도민요장구		어쿠스틱기타
	남도민요장구		오카리나
	가야금병창		첼로 레슨1
	난타		첼로 앙상블1
	한국무용		첼로 레슨2
	사물놀이	기타 일반	디지털사진
	규방공예		요가
	전통생활자수		서양화
	한글서예		수채화
	한문서예		인물소묘
	문인화		팬화
	한국화		벨리댄스경력자
	채색민화	아동	청소년오케스트라
	닥종이인형		초등미술
	수제도장		표현미술

[의정부문화원 문화학교 운영현황]

구분	강좌명	구분	강좌명
음악	음악아 놀자	미술	직장인을 위한 미술
	꿈꾸는 아리아리랑		놀이미술
	사물놀이		과학실험실의 화가
	즐거운 성악		화가와 떠나는 명화여행
	함께해요 가야금		화가와 떠나는 명화여행
	관악합주	연극	나도 무대의 주인공!
	즐거운 첼로		칙칙폭폭 신나는연극놀이
	바이올린을 즐겁게	무용	굿거리 소고춤
	해금		한량무
	함께하는 피아노		꿈꾸는 발레
	직장인을 위한 성악		동조수건춤
			태평무

[의정부예술의전당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현황]

구분	강좌명	구분	강좌명
아동 청소년	음악줄넘기 A(초등)	성인	국 학 기 공
	신나는 방송댄스(초등)		노 래 교 실
	뮤지컬영글리쉬		벨리댄스
	청소년 기타교실		나이아가라 치매예방
	쿠킹 아트(6~7세)		문인화
	키즈 미술(7세~초등)		중국어 회화(초급)
	역사야 놀자(2~4학년)		중국어 회화(중급)
성인	경기 민요		생활영어
	생활영어(저녁반)		캘리그래피
	컴퓨터(기초)		커피문화교실
	플로그, 동영상		필라테스 요가(A)
	컴퓨터 (엑셀*파워포인트)		필라테스 요가(B)
	컴퓨터 (한글 2010)		천연화장품 비누
	컴퓨터 (엑셀)		홈 패션
	우 크 렐 레		꽃 꽂 이
	사물놀이(A)		가요명곡과 팝송
	사물놀이(초급반)		일어 회화
	클래식기타교실(초급)		한문서예
	홈 베이커리		생활댄스
	탁구교실(초급)		스포츠댄스
	요 가(A)		

[의정부 동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운영현황]

구분	강좌명
아동	이야기가 있는 숲
	북아트로 만나는 역사
	창의 팡팡 ! 꼬매아트!!
	이야기가 있는 독서교실
	놀이로배우는 창의수학
	영어문법이랑 놀자
	요리쿵조리쿵역사사회
	두근두근 과학아 놀자
	자연에서 놀아요
	동화나라 여행
	엄마표 오감 미술놀이
	스토리텔링 놀이수학
	창의영재 보드게임
공예,예술	한지공예
	아트메즈 테라피
	패션&페이스페인팅
	우드버닝(전기인두화)
	손뜨개교실
	냅킨소품공예
	생활소품 DIY
	나무공예 DIY
	포크아트 &톨페인팅
	팝아트 초상화 그리기
	토탈플라워아트
	톡 톡 톡! 아트
	교육마술배우기
	그림책과함께 스피치수업

구분	강좌명
공예,예술	사랑스러운 Basic아기옷
	감성 손뜨개
	두뇌건강 보드게임
	아트 페인팅
	다육공예 DIY
	생활 속 아로마테라피
	우리엄마는 파티플래너
	재활용공예
	동양매듭 전통악세사리
	창의육감놀이
	토탈 플라워 아트
어학, 인문학, 자격증	글로벌회화교실
	학부모아카데미 초등
	학부모아카데미 중등
	4050 은퇴를 은퇴하라
	건강百점
	비전리더업캠프
	두뇌건강 FUN FUN
	약초관리사 자격증 과정
	청소년 바리스타교실
	多 맛난 요리교실
	우리집 토론리더 전문가
	동화여행
	알뜰하게 꿀피부만들기
	웃음치료
	4050 미래인생설계
	역사북아트 전문가 양성
	일본어 배우기

[의정부시 평생교육비전센터 강좌]

생활문화사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예술이란 장르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지방문화원의 문화학교와 유사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프로그램과 비교해볼 때 매우 유사한 수준과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교육에는 오히려 타기관들이 더욱 다양한 접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많은 기관이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시민중심으로 생활문화를 변화하려는 노력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화예술교육사업이라는 면만을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다.
지방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지방문화원이 생활문화 사업에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히 이야기하자면 지방문화원이 말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인한 전통문화사업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생활문화 사업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사업 역시 단순 강의식 교육사업에 집중되어있는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은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정확한 명제를 가지고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지방문화원은 다시 고민하여야 한다. 그리고 찾아야한다.
지방문화원 만의 생활문화사업을 아니 정확히 지방문화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생활문화 사업을 …

4.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

요즘 들어 의정부문화원은 **이야기**라는 단어에 목말라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 주부의이야기, 청소년들의 이야기, 남편들의 이야기, 자식들의 이야기, 선생님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공간의 이야기, 예술작품이야기, 음식이야기 등등
무수히 많은 **○○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문화원의 앞으로의 사업을 찾아가고 있다.**

물론 어색하고 어렵고 경험도 없지만 이것이 과거와 현대를 이어주는 공통의 요소이며 또 미래를 찾아가는 생활문화의 사업의 열쇠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문화원은 재미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문화원도 재미있고, 시민들도 재미있고, 일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수혜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재미있는 그런 사업 우린 그 해답을 소소한 이야기에서 찾는다.

4.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

첫 번째 이야기『지금만나러 갑니다. 한마음 실버밴드 』

첫 번째 이야기『지금만나러 갑니다. 한마음 실버밴드 』

한마음 실버밴드 사업은 어르신들의 과거의 꿈에 대한 이야기다.
단순히 악기를 가르치고 노래를 배우는 그런 밴드육성 사업이 아니다.

젊은 시절 미8군 밴드의 공연을 보며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고 싶다고
꿈꾸던 젊은 청년이 이제 백발이되어 그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
평생 택시를 몰아 홀로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할머니의 유일한 취미인
운전하며 노래 부르기 언제고 기회가 된다면 택시 밖의 멋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 등등

한명 한명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실버밴드 만들기 사업이다.
이제 그렇게 각자가 꾸었던 꿈이 모두의 노력으로 현실이 되었다.
그렇게 망막하기만 하던 어르신 밴드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가득 담고
여기저기 노인정과 사회복지 시설을 찾아다닌다.
희망과 사랑을 가득 담은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

현재 한마음실버밴드를 위해 의정부문화원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젠 어르신들이 우리 문화원을 돕고 있다. 홍보도 하고, 또 다른 후배
뮤지션을 양성하고, 문화원의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고있다.

우리 의정부문화원에는 자랑스런 한마음 실버밴드가 있다.

두번째 이야기『어르신 닥종이인형반 탄생 』

두번째 이야기『어르신 닥종이인형반 탄생 』

어르신 닥종이인형반은 인형이 가지고 있는 환상 그리고 친밀함에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재료가 되어 만들어진 생활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제는 「응답하라 1960」이다 1960년대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지금의 어르신들의 기억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 우리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 살아가며 어떠한 추억을 또 어떠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강의실에 가득하다

사실 의정부문화원에는 닥종이인형 강좌가 있었다. 이미 그 역사가 20년 가까이 된 문화원 대표 문화강좌이다. 하지만 수강생이 점점 줄어들어 2015년 폐강의 위기에 처했고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꼭 지키고 싶은 강좌였고 의미있는 강좌였기 때문이다 그 고민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우리는 원인을 생각했고 또 해답을 찾기 위해 고민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너무도 당연한 곳에 있었다. 앞에서도 수차례 이야기했던 문화예술교육에 치중된 즉 기술과 결과에 치중한 지금의 문화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생활에 문화의 옷을 입히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어르신 닥종이인형반은 대기자가 많아 고민이 되는 인기 강좌가 되었다.
올 8월 닥종이인형반 「응답하라 1960」 프로젝트의 첫 전시가 진행되었다.
너무도 많은 호응과 부러움에 참가자들의 자존감은 높아만 갔고 여기저기에서 전시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이야기 공동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번 작업이 끝나면 이들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 할 것이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닥종이 인형으로 만들어 갈것이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예쁜 옷을 입혀 새로운 장르로 변화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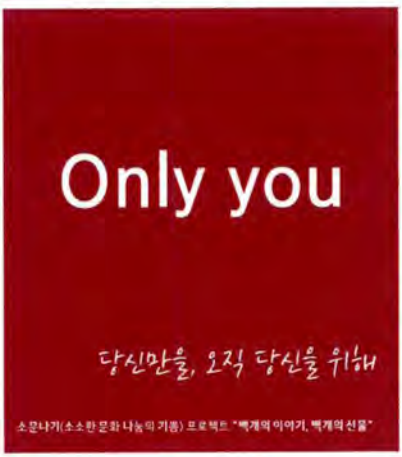
아직은 그 결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도전이
의정부문화원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 프로그램으로 탄생할것이다.

세번째 이야기 생활문화플렛폼 사업

[생활문화플랫폼 축제 참가 단체 및 프로그램]

구분	지역/단체	행사명
문화원	이천문화원	내 생애 첫 술잔
	의정부문화원	백 명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신통단
	시흥문화원	2016함께하는 생활문화
	수원문화원	어서와-생활문화는 처음이지
	남양주문화원	지구마을공작소
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	광명생활문화디자이너 축제 _ 광명생활문화 「PICK ME UP」
	남양주 진접문화의집	우리동네 하다라 쇼프 축제
	성남서현문화의집	성남 생활문화 네트워크 축제
	화성봉담문화의집	상기2리 마을 이야기 사진전지
기타	광명-세상의 모든 나무	게릴라목공
	고양-문화기획협동조합 별작부롬	수작가우
	안성-문화예술놀이터 우리	미생(美生)살롱의 생활문화 모둠학 파티
	안산 신나는문화학교 경기지부 A-TEEN 문화공간 쉼표	고잔마을스토리 고(잔)고(GO) 파티
	영광산중협동조합	강상 산중마을 문화나눔 축제
	파주이야기가게	파주 이야기잔치

의정부문화원이 진행하는 생활문화플렛폼 사업
『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 프로젝트 『백개의 이야기 백개의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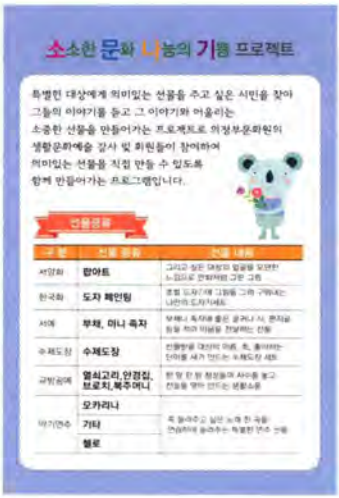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플랫폼 참가 사업인 『소문나기』프로젝트는 45개의 문화학교 강좌와 1,000여명의 회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정부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생활문화예술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다.

처음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지원하며 그간에 지속 되었던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과 별다른 것 없을거라는 부담 없는 생각은 첫 번째 워크숍에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생활문화예술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화에 예술교육의 옷을 입히는 작업』이었다.**

세번째 이야기 생활문화플렛폼 사업



세번째 이야기 생활문화플렛폼 사업

『백개의 이야기 백개의 선물』사업은 우리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선물이란 도구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선물을 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연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처음 공고를 내고 홍보를 시작하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우리의 사업을 이해하고 동참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많은 걱정과는 반대로 많은 분들이 참가 의사와 함께 다양한 사연을 보내왔다. 물론 우리가 하고자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환상이 그들의 시선을 잡은것이라 생각이 드는건 사실이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매일매일 써가는 선물노트]

세번째 이야기 생활문화플렛폼 사업

100개의 선물을 만들어가는 100명의 선물단에는 그들의 이야가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분들의 열정이 단연 최고다.
그동안 문화원에서 진행해온 문화예술 강좌에 참가하는 분들도 열정이 가득했지만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은 좀 특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통해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이야기에 귀기울이 또 공감해가는 **문화공동체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아직은 어설프고 또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 의정부문화원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활문화예술 사업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작업이었다.

2016년 11월 20일 오후3시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백 명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선물단』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콘서트에는 100명의 선물단과 100명의 선물을 받을 대상자들이 같은 자리를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지해주며 그동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하나가 되는 문화공동체 즉 **문화가족이 되는 날이다.**

5.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첫째 문화에 예술의 옷을 입히자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의 보고이다.
지역의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구성원이 살아오면서 집약되어진 지역의 문화 이야기가 있다.
지식, 가치, 신념, 예술, 도덕, 법, 관습 등을 포함한 하나의 사회생활양식 전체를 정리하고 발굴해내서 그에 맞는 표현 방법을 예술이라는 친근한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이 정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민요의 기법을 배우는게 아니라 우리고장의 문화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내고 부르면서 지역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생활예술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 강좌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자

문화원과 유사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기관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차별성을 잃어버린지 오래이다. 문화원은 시민들의 삶에 녹아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왜 악기를 배우고, 왜 춤을 배우고, 노래, 서예, 그림 등등을 배우려고 하는지
또 그들이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작 그들이 문화원의 생활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한다.
그리고 그에 맞는 형태의 생활문화예술 사업을 찾아야한다.
획일화 되고 정형화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5. 지역생활문화발전을 위해 문화원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셋째 우리 동네만의 재료를 찾자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전국 어디에 가서도 찾을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져있다.
서예, 무용, 미술, 음악, 밸리댄스, 하모니카, 기타, 오카리나 등등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강좌는 없다.
예를 들어 이천문화원의 『내생의 첫 술잔』 프로그램 같이 지역만의 이야기와 소재를 찾아 음식, 음악, 미술, 무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소재를 활용해야한다.

넷째 이웃의 강사를 찾자

우리 주변에는 수 많은 전문가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왔던 문화예술 전문강사 뿐만 아니라 김치전문가, 자전거수리 전문가, 액자전문가, 악기수리전문가, 블로그 및 SNS전문가, 물고기 키우기 전문가, 애견전문가, 가정용 회초 전문가, 살림전문가, 육아전문가 등등 무수히 많은 생활 속 달인들이 존재한다.
이젠 그들의 이야기와 노하우 등이 시민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생활문화가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되어 지금까지 문화원이 키워온 노하우와 만나 경쟁력 있는 생활문화프로그램으로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여 백

03 동아리운영사례 및 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 방향성 모색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 심포지엄 토론

생활문화 활동의 지역거점으로서 문화원의 역할 찾기

오늘 심포지엄이 향후 지방문화원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문화사업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의미 있는 담론생산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
장소 : 수원문화원 소강당

좌장 다섯 분의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자1의 토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1 발표를 들으면서 '문화원 국장님들과 직원들이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원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생활문화동아리 네트워크의 중요성과 생활 문화의 의미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합창단 동아리 네트워크를 추진하려는 중인데 많은 참고가 된 것 같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이야기했는데 아마도 정보화시대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제1의 물결이 농업화, 제2의 물결은 산업화, 제3의 물결은 정보화입니다. 그렇다면 제 4의 물결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감성의 시대, 소통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감성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우뇌의 작용입니다.
서로 감성적으로 인간관계의 회복,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 봅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인문학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문화 예술인데요.
앞으로 문화원이 문화 예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서로 공유하는 사업으로 보다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생활문화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에 대해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운영된 지방문화원의 이른바 <문화학교>는 이젠 자리를 잡았고, 다양한 각도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것이 답이다! 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생활 문화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생활문화'라는 표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해온 프로그램들이 사실 모두 생활문화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박정근 의정부 사무국장님이 "문화에 예술의 옷을 입힌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교육에서 네트워킹이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인 다양한 예술문화단체, 동아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정보의 교환은 되겠지만, 단순히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만으로는 기존에 있는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활문화 동아리들을 문화원 차원에서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라고 했을 때 문화원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지역 내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좌 프로그램들은 기존 방식으로 운영되어도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킹은 문화원이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문화원의 역할 중에는 '봉사'에도 있는 만큼 문화원이 네트워킹의 허브 역할을 한다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유휴 공간을 활용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하고, 예술가, 아마추어 예술가 동아리들의 네트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생활문화 활성화와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의 연관성이구요. 창작센터, 아트팩토리 등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가와 지역민들의 밀착 연계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면 좋을 듯합니다.

동두천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 계신지, 하고 있다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나명철 과장님께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동아리들이 네트워크가 생겼을 때 자생력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화성문화원 김명수 연구원께는 전통 음악이 지역에서 뿌리내리려면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화성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동아리 형태로 묶어서 활동 한다고 한다면 지역민들의 생각과 의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좌장 세 가지 질문 중 생활문화센터의 동두천 국장님께서 함께하는 네트워크 운영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동두천 생활 문화 동호회가 구성되고 현재 2년 차 운영되고 있는데, 매월 월례회의 방침은 세웠으나 2-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아직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는 못하고, <매마수>에 참여하고, 문화 주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입니다. 예산 측면 등 문제 때문에 자체적 프로젝트를 추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좌장 예산과 기량의 측면, 지역의 인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죠.

용인 용인 통기타 네트워크는 내년이 3년 차입니다. 사회 통념상으로도 3년을 버티면 성공한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2년 차까지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보는 형식이 더 큽니다.
3년 차에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의 한계와 목표를 가지고, 왜 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해로 잡았습니다.

각 구별로 6-7개의 동아리가 만들어졌고 용인이 3개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약 20여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원이 만들어 줬지만 내년(2017년)에는 3개 지역별 축제에서는 참여하고 있지 않는 주민자치센터를 끌어 들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명분을 찾게 하려고 합니다.
설령 공연 수준이 좀 낮다 하더라도 1년 사업 과정의 결과가 600명 합창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다른 느낌이 있을 것이라 보는 거죠. 지금으로서 제도적인 기대는 없고, 3년을 거치면서 겪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성 지역민들의 공감대 부분은 중요합니다. 지역축제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문화재가 왜 소중하고 왜 없어졌는가? 축제화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보여줄 것이냐에 따른 고민이 필요합니다.

'논 메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편의에 따라 모 형태를 깔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단위의 예산과 계획이 있다면 실제 논을 1시간 정도 메거나, 마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선모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거나 해서, 실제로 재연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해요. 형태만 구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죠. 예를 들어 술 한 잔 하면서 하는 노래는 굉장히 단조로운 노래로 들리지만 공연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생동감 있게 들렸던 경험이 있어요. 실제를 살려서 공연으로 할 때에는 이 단조로움이 공연의 형태로 보여 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을 얻기 힘든 거죠. 아직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던 실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형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좌장 전체적으로 다섯 꼭지가 각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동두천문화원이 생활문화센터로서의 출발 지점에서 어떤 시설과 내용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할지. 이것이 다른 문화원에 어떤 사례가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화성의 경우 문화원의 가장 본질적인 전승 문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전승 문화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 구성체의 변동이나 생산 양식들의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 원형들을 이미 잃어버린 상황이고, 그사이 농업 생산 사회에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종교들의 이입으로 인해 전래해 왔던 전승 문화의 이질감들은 예전에는 당연하게 추구했던 전승 문화 자체를 놓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지에 문화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특별법인 지방문화원진흥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논부터 사야하고, 장례식도 그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무대화된 고유성, 전승 문화 자체가 세트화 되어버리고, 박제화 된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회다지 소리가 북부, 남부, 경상도 양식이 다 다른데 통일화 되어 버린다는 뜻이에요.

토론자2 많은 시간을 갈고 닦아서 발제를 해 주신 것에 대해 놀랍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지역문화진흥법에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의 두 구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방문화원이 지역 사회에서 본질적인 미션으로 주어져 있는 지역 문화를 어떻게 끌고 갈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방문화원의 미션이지 않습니까?

진흥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최근에는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중심으로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유문화, 그동안 지역문화,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위해 애쓴 노력을 인정하고…' 등의 문구들을 들이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원이 그동안 해왔던 소위 <문화학교>라는 틀을

이것이 주민 관점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재해석해 내지 않는다면 '화석화된 전통문화'일 따름이지 '이어지는 전통문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벗어나지 않으면, 생활문화의 리드를 해나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생활문화를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지역성의 고민이 좀 약하거나 빠져 있거든요. 지역 기반이 아니라면, 우리 지역의 과거의 전승되어 온 연원에 대한 연결이 없다면, 그냥 '생활문화'일 따름이지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생활문화'는 아니라는 생각이고, 전통문화도 마찬가지로 '무대화 된 고유성', '화석화 된 전통문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민 관점이 아니라면,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재해석해 내지 않는다면 '화석화된 전통문화'일 따름이지 '이어지는 전통문화'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문화원이 열심히 해왔고, 생활문화사업들을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지금의 생활문화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맥락에 닿아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성이 발표했듯이 우리는 과연 전통이라는 것, 옛 것이라는 것들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형보존'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 생활문화의 소재를 지역에서 찾는다는 것이고 생활문화의 대상과 근거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없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행해질 수 있는 생활문화인 것이지 '우리 지역의 생활문화'는 아닌 거죠.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은 생활문화의 소재를 지역에서 찾는다는 것이고 생활문화의 대상과 근거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을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두천은 동두천의 학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부분은 지역에 대한 현실, 정체성,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녹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센터식의 강좌를 벗어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생활문화라고 혼동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될 만한 지점입니다. 고향의 고는 옛 고(古)아니라 연고 고(故)입니다. 옛것을 파보면 우리의 지금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고, 옛것을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더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것을 올드(old)한 것 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재해석 능력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생활문화를 우리는 얼마 만큼 변형시키고 활용하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가, 즐길 수 있게 만들 것인가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님이 말씀하신 '관심공동체'라는 개념을, 저는 '지역에 대한 관심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취향공동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지역에 대한 논의와 고민들,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의 생활양식을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질 수 있다면

지방문화원이 최근의 어젠다(Agenda)인 '생활문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의 본질적인 자기 규명과 반성을 오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일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를 견인해 나갈 만한 소명감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먼 길이지만 분명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토론자2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화두를 던진 것인데, 한 시간 남짓의 정해진 시간이긴 합니다만,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지방문화원과 함께 향후 문화원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확립하고 새로운 미션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 대단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저를 광주에서 올라오게 한 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간 지방문화원이 지역 내에서의 선발 주자로서, 맏형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로서의 위상이 너무 많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무너졌던 것에 대해서 연합회 차원에서 별다른 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문화단체나 기관에서 문화원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 그다지 염려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냥 시장의 선 순환적 구조에 의해서

어떻게든 흘러가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의 <문화학교>가 곧 어르신사업으로서 치환되고 있다고 보고 문화원 하면 <어르신문화사업>으로 대표된다고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을 그들만의 집단으로 간주해 버리고, 지역에 있는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은 문화원을 그냥 그렇게 가는 곳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예회관의 경우는 같은 문예회관연합회라는 구조를 통해 훨씬 더 많은 규모와 많은 지원과 많은 정책적 배려를 통해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기초문화재단 등이 지역마다 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문화원이 최근의 어젠다(Agenda)인 '생활문화'라는 이슈를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일들의 본질적인 자기 규명과 반성을 오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일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2의 말씀처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취향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누었으면 좋겠네요.

평택 20명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들입니다. 가장 큰 것은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외부의 사례를 보면 재정 지원보다는 공간이나 시스템 구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 지원이 없다면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 지원에 가장 중점을 둡니다.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서 오히려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나 회원 구성에 제약이 생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 공공성을 따지다보니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 훼손되는 부분이 큽니다.
지원 단체에서는 재정만 지원할 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는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런 점들로 인해 자율적 운영이 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는 학습 동아리부터 시작이 되고, 발전을 하면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면서, 참여형 동아리로 변화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어려운 부분은 공연 장소, 필요 시스템 등의 구축을 공적 기관에서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분만 지원해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단체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강사나 회원들이 어떤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문제 입니다. 시작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지만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식사나 교통비 등을 요구하고 직접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력 향상이 되면서 또 다른 지원 등을 바라게 돼요. 그런 점에서 목적이 순수해지지 않게 되는 것들을 느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연형 동아리들에 지원되고, 학습 동아리나 탐구 동아리들에게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여서 분별 있게 지원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연형'이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50~60%가 장비 등의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문화원이나 예총 등에서 무료로 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단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좌장 솔직한 이야기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역마다 편성이 되어있고, 생활문화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전라도 광주의 경우에도 많지 않은 예산으로 이미 시에서 명단이 내려지고 그 안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도 그런 형식인데, 하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평택 국장님의 발제 안에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의 개혁이 필요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손을 댄다던지 하는 방안이 필요 할 듯 하네요.

직접적으로 물어봅시다. 평택문화재단이 없는 상태에서 평택 지역에서의 문화원의 위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평택 평택의 경우에는 평택문화재단이 없다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내용이 지정되어 내려오는 돈들이 있었습니다. 인쇄소마저 지정해주었죠.
언론사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서 향후 그러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후 점점 줄었고, 올해(2016년)의 경우에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역에서 문화원에 대한 신뢰가 조금 높아졌다고 봅니다.

평택시 예산이 1조8000억. 47만 인구에 비해 많은 예산인데, 사실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 중 문예관광과가 쓰는 예산은 극히 미미합니다. 문화 예술 관련 예산이 굉장히 작은 형태라 지역 사회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은 예총이나 문화원을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자라는 의견들도 있고요. 평택은 3개 권역(평택, 안중, 송탄)을 통합하다 보니, 문예회관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예회관 운영을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 도시와 가까운 곳은 활발히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중이나 송탄 쪽과 같이 도시에서 떨어진 곳은 1년의 대관이 10차례도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활성화 시키거나,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아직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좌장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는 문화원, 재단,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경험도 있었고, 지방문화원 컨설팅을 한지 10 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 지방문화원에 대한 여러 상황을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문화원적 기반 자체가 무너지려고 하고 있다.'는 점인데, 앞으로도 생활문화의 근간에 대한 헤게모니도 갖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 권력이 아름다운 권력일 수도 있고 정치적 권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 동두천의 경우에는 자연스레 생활문화센터가 2년 전에 생겼어요.

시민들이나 문화원으로부터 생활문화센터가 뭐하는 곳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활문화라는 말이 많이 자연스레 오르내리고 '문화가 있는 날'이 생기고 현수막들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에게 자연스러운 단어로 다가갔던 거죠. 사실상 프로그램 센터 운영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동두천시가 재정이 없습니다. 2015년 2월에 시작했는데 공간만 제공되었을 뿐 프로그램이나 예산 지원은 전혀 없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시기에 개소된 곳이 서산생활문화센터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그곳도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생활문화센터가 생긴 겁니다.

예산지원 때문에 그 곳과 통화를 하면서 자료를 받았는데 예산지원이 1억 좀 넘고 지원 인건비도 지원이 되어, 2억 이상이 초기 투자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동두천문화원의 경우 전혀 그런 지원이 없어요. 공공근로(일자리 차원)의 경우 행정사무 능력이 없고, 근무시간도 9-3시까지 근무합니다.

어떤 경우는 운영이 저녁까지 지속 되는데 문화원 임원이나 이사님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해 왔고, 프로그램 운영 예산도 기존의 동두천문화원 내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용해 왔습니다. 노인회 등 관계없는 단체도 홍보를 마련해서 장소를 빌려준다는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문화센터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예산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모든 것이 움직일 때마다 예산이라 아쉬움이 많습니다.

실버밴드는 처음 만들 때부터 5년이 목표였습니다.

이제 4년차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능이 있는 어르신 대표 두 분을 선발해서 공모사업의 서류를 쓰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4년 차 부터는 공모사업, 시(市)에서 하는 사업들을 스스로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게 한 것이 연 천 만 원 정도 돼요

의정부문화원사무국장님의 발제에서 '한마음실버밴드'가 자발적으로 움직인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분들이 예산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지가 궁금하네요.

좌장 의정부 국장님과 용인문화원 과장님이 '자생성'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문화원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디테일(detail)들이 나중에 생활문화 동아리가 향후에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바로 만들어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원에 가면 원사가 있어도 서예원 등 계속 있는 것들만 있는데, 이렇게 가면 이 공간 자체의 효율이 떨어지고 나가게 되는 과정에서의 다툼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성장해서 독립하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의정부 실버밴드는 처음 만들 때부터 5년이 목표였습니다. '5년 후에는 독립 한다'였던 거죠. 어르신들이 처음에 악기를 배우거나 할 때, 하고 싶은 동기와 사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아야

한다!'였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이 있어야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열정이 대단했어요. 한 번 공연을 나가는데 열 분이 움직여요. 그런데 문제는 스텝이 10명은 움직여야 했어요. 차량운행, 음향장비 등의 스텝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2년 차 부터는 스텝교육, 음향교육, 악기세팅 등의 교육을 따로 했는데, 시간이 무려 2년 걸렸습니다.
2년 후 그분들이 맨 처음 직접 설치를 하기 전에, 세팅 연습을 몇 번씩 반복해서 하셨고, 이제는 공연을 갈 때 한 사람 정도만 따라 가면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4년차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직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능이 있는 어르신 대표 두 분을 선발해서 공모사업의 서류를 쓰는 법 등을 가르쳤습니다. 4년 차 부터는 공모사업, 시(市)에서 하는 사업들을 스스로 공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게 한 것이 연 천 만 원 정도 돼요.
많이 도와드리지 않고 조금만 도와 드려도 되는 기간이 무려 5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자발적으로 홍보를 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이 과정까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 사업과 병행을 했고 5년차가 끝난 후에 이제는 지원을 안 합니다. 한 번에 준비해서 자생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과정이 없으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지역문화가 지역에 기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천문화원 사무국장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문화원은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과정들이 필요한데 각각의 문화원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제 딸이 5학년인데 수학을 너무 못해요. 이야기 도중 나와 다른 생각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칙연산을 배우는데 이 친구는 모든 수학의 영역을

다 다르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각각의 단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을 가기 위한 과정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문화원이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형태로 변해온 것도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다시 정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작에서부터 조금씩 변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계를 설정해야 하는데 시작과 동시에 변해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목표를 두고 있되 그곳을 도달하는 과정을 세분화해서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못 갔던 이유 첫 번째는, 인력의 지속성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장이 목표를 설정해도 중간에 국장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직원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라도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활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려는 건 목표가 필요합니다.
문화원의 위상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원은 홍보에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다른 주위 시민들이나 정치인들에게 문화원은 동아리, 문화교육을 실행하는 많은 곳 중의 하나 일 뿐인 것입니다.
2017년 예산에서 의정부문화원의 '문화학교' 예산이 없어진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화원의 문화학교 예산을 없앤다는 것 때문에 찾아 갔는데 문화원의 강좌가 다른 단체들과 별 차이가 없으니 문화원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이야기해도 전달이 잘 안되고요.
그 시점에서 'SNS나 블러그 등으로 홍보를 안 해서 그렇다', '문화원의 존재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해서 집중 홍보를 했고, 문화원 여유 예산과

목표를 향해 못 갔던 이유 첫 번째는, 인력의 지속성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장이 목표를 설정해도 중간에 국장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직원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나마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라도 목표점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활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려는 긴 목표가 필요합니다. 문화원의 위상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인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지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들을 시청에서 보고 있었더라고요.
문화원이 하는 사업들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요.
그 후 문화학교 예산이 없어진다는 말도 없어졌어요. 문화원다운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얘기도 해주구요. 문화원다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문화원도 이제 알려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정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조급해하면 30년-50년 된 문화원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좌장 용인문화원 과장이 자생성에 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용인 생활문화동아리를 빨리 자생시켜 지역으로 내 보내고, 새로운 동아리를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통해 만들어 진 동아리가 쉽게 지역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인통기타네트워크는 3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간 교류이든 동네를 가든, 단체로 만났을 때 거기에 맞게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구전략으로 생활문화진흥원을 내고 중간 단위로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경우도 생활문화사업을 몇 년 간 추진했고, 현재는 동아리 연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연합체로 활동 했을 때 지원이 끊기면 바로 없어진다는 것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일부러 장르를 한 장르로만 통일했습니다. 그 분들이 기타를 배울 때 생활도 하면서 악기를 알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단체를 통해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듯이 용인통기타네트워크는 3년 차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간 교류이든 동네를 가든, 단체로 만났을 때 거기에 맞게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600명 통기타합창단을 모아보려는 것은 또 다른 예술적 경험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한 장르로 지역적 모임을 만들고, 이주민과 원주민의 만남으로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려고요.
장르네트워크의 핵심은 '만남 자체가 지역 간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면 문화원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고, 그때마다의 예술적 경험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북 완주군이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인구가 9만 5천 밖에 안 되는데 140개 동아리에 1,80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전북 완주군이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인구가 9만 5천 밖에 안 되는데 140개 동아리에 1,800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문화예술은 여유가 있는 도시에서 이루어진다고 들 생각하는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 욕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은 문화원이 생각을 좀 해 봐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좌장 전라북도 완주의 경우는, 지역적 특성 자체가 도시 근교였다가 새로운 혁신사업들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집단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귀촌자들이 많다보니까, 이 둘을 결합시키기 위해 저녁 시간에 건강을 케어하고 새로운 식구들에게 영농기법 등 적정기술 전수 등과 연관 지어서 많은 동아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역 혁신의 동력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의정부나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수장들이 문화 마인드를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평택도 마찬가지로 1조 8천억원을 가지고 수장이 100억만 사용하는 것처럼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수장들이 어느 정도의 문화 마인드를 가지느냐. 그리고 의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이 동조를 해주느냐의 차이인거죠. 문화원장과 이사들의 협조나 마인드 등 접점이 다르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다시 이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역에 기반 한 예술과, 현재 유행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는 생활문화예술 가운데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들이 있는가? 가령 너무 동네 위주로 가면 문화원이 오히려 뒤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길러낸 동아리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지역을 안고, 평생학습이나 예총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단순히 '취향동아리'가 아니라 '관심동아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백화점 문화센터나 마트의 문화센터 등. 그리고 주민센터의 생기발랄한 춤 등이 인기가 많을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안에서 문화원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토론자2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발제하신 분들처럼 지역에서 진도를 밟아가고 있는데 함께 해나가다 보면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결국은 함께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가도 중요하고요.

'관심공동체' 라고 하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적어도 그것을 묶어주는 기반은 지역이고 지역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정체성과도 관련된 것이고요.

인간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고향에 머물고자하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의 연원에 대한 따스함 같은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녹여 내고 다시 재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어야 '봉사'가 아니라 '활동'이 됩니다. 복지부분에서는 서비스가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화에서, 특히 생활문화에서는 '서비스'를 버리고 '활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일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아이들에게 계속 용돈을 주면 어느 날엔가는 용돈을 안주면 안 놀겠다고 하는 시점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산과 인력이 중요한데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야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 논다고 돈을 줘야 할 것인가?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이나 놀이를 보급한다던지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줘야하는지에 대한 예산을 올바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력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봉사는 기본적으로 실적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적관리 시스템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에서 지향해야 될 자원, 자발적인 것을 담보하는 것은 실적관리 시스템은 아닙니다.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느냐. 생활문화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민들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줘야 하는 것이고, 불을 지필 수 있다면 문화원 내의 동아리 육성이건 지역 사회에서 다함께 가는 방식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은 문화원에서 길러낸 동아리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지역을 안고, 평생학습이나 예총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단순히 '취향동아리'가 아니라 '관심동아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좌장 그러면 토론자1의 노하우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대중이 좋아하는 현대적인 문화프로그램과 지역에 기반 한 생활 속 삶의 기술로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사례. 용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토론자1 제가 생활문화라는 표현이 쉽게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한 것처럼 갑자기 생활문화활성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활문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활성화시키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문화원의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각계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 그쪽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문화원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에 기반 한 문화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화원이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역사문화, 전승, 보전사업이 중요한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 교육프로그램은 그중 일부분이예요.
문화원마다 다르겠지만 교육프로그램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기반 한 문화교육의 경우에는 단순한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서양화 등의 프로그램들이 다른 사업과 연계를 가질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경우는 '지역역사문화바로알기사업'을 1999년부터 지금까지 지역문화유적투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줄어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전에는 연간 참여인원이 만 오천 명까지 됐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모임이 있으면 신청하고, 코스 10개 중 선택하고, 해설사가 동승 설명하고 4시에 돌아오는 프로그램인데, 지금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평소에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민이나, 외부에서 이주해온 주민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인해 지역에 대한 의식이 달라지는 거죠.
문화학교 사업은 다른 곳처럼 비중을 크게 두지 않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역학입니다.
2010년부터 지역학을 정착시키려고 하면서 관내 6개 대학에 지역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어요. 교양 수업으로 하고 있고, 관련해서 지역축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데, 지역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요즘에는 시민, 공무원들에게 외지에서 들어온 기업체들에게 우선적으로 용인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좌장 네.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광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시티투어 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참가비가 2,000원이예요. 회당 버스 탑승 인원이 4명, 8명이 평균입니다. 별로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고 지역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문화원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자2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특히 화성에서는 문화원의 현재 문제이자, 해결해야할 문제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원형과 전형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현전화'라고 이야기 하고 싶어요.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시대에 맞게'라는 의미로…
광주의 어떤 탱화에 보면 보살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요. 그것을 본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파문!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뛰어넘지 않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려면 그에 대한 기반들이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용인학이든

형태학이든 그 안에서 같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세련되게 말이죠. 즉 서울에서 소비되는 것이 금방 광주에서 대구에서 소비되더라도 우리 안에서 우리만의 방식으로 소비되는 양식을 가지고 새롭게 창출하는 문화원이 되어야하고, 과거의 독립적인 존재로 있던 문화원이 현재의 다양한 문화 생태계에서 위치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도연합회 오늘 제목이 경기도지방문화원 생활문화 담론형성 심포지엄입니다. 그것과 겸해서 '생활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야될 것인가?', '지역문화, 전통문화에 대해서 문화원이 가야할 방향' 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원은 그동안 방향을 설정하는 공식적인 담론형성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늦었지만 올해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분히 경기도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향후 우리가 문화원담론으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으면 겸해서 함께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좌장 생활문화를 이야기 하지만 모든 관계들이 다 얽혀있는데 실제 무방비가 아니라 어찌 보면 다 포용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 끌고 가야 하는 이슈가 되는 것들, 하지 못했던 것들을 겸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시장, 농촌의 창고들, 빈집 등을 활용해서 마을 박물관, 지역민의 사랑방 등을 만들어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토론자1 생활문화에 한정하지 말고 확장해서 문화원의 활성화 방안, 대안으로서의 문화원의 미래를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작클러스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공유하고 나누는 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작은 예술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작이에요. 감성시대, 소통시대의 기반은 창의적 발상. 즉 창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문화선진국의 예를 보면 공동화 현상과 같은 과정을 다 겪었어요. 앞으로 우리도 필연적으로 공동화되는 도심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문화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눈을 돌려서 시장, 농촌의 창고들, 빈집 등을 활용해서 마을 박물관, 지역민의 사랑방 등을 만들어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작클러스터의 경우 전문성 있는 예술가를 끌어들여 레지던시를 운영, 지역민과 주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일깨워주고 이해시켜주고 지역의 현안에 대한 공동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하는 것 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생활문화와 직접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문화원의 방향이기도 하고, 나오시마, 교토 창작센터 홋카이도를 다니면서 보고 사례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이슈로 보자면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만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술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들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이해되네요.

동두천 생활문화와 문화원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문화원 입장에서 생활문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생활문화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일상과 자발성' 일상성은 잘 되어 가는데 자발성, 자생력은 의정부처럼 잘 움직이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는 부족해요. 그런 자발성, 자율성에 동기부여를 잘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용인 문화원이 과거에서 현재를 연결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현재에서 미래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생활 문화 활성화라는 것은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표와 만남, 그것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모양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이야기하고 싸우고 하지만 또 고민하는 지점들도 생기게 마련이죠. 생활문화 활성화는 과거, 현재에서 미래까지 연결 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미래의 이슈를 무엇을 잡았으면 하는 건가요? 확장성을 갖자?
용인 문화원의 정체성, 존재의의를 보통 어르신, 역사 등으로 인식하는데, 회원들이 다양해져야 다양한 이슈가 생기겠죠.

의정부 문화원이 변하고 문화원이 문화원다운 프로그램, 사업을 문화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데 내가 무장을 안 하고 전쟁터를 갈 수 없잖아요. 문화원 직원, 국장, 회원, 원장, 이사들이 무장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교육이 안 되어 있고, 다르게 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무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생활문화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참여하는 사람 들보다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지역생활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저희 동아리가 하고 있는 것 중 펜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배우기 전에 지역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켰습니다. 의정부의 역사 부분들. 교실에 어느 펜화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그린 펜화 책이 있어서 비치를 해두었어요. 2년을 배운 분들이 지금 의정부를 소개하는 책을 직접 그려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그림을 공부하면서 1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권은 역사편', '2권은 동네 지역별 이야기'로 작업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를 자세히 몰랐는데 세밀하게 보니까 정말 다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같이 지역생활문화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화성 저는 아직 지역과 많은 호흡을 해 보지 않아서 조심스럽네요. 강원도 구술조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하나 말씀 드리면, 주민들이 어떤 대회에서 정선아리랑을 하면 경기민요에 밀린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우리가 보존해 놓지 않으면 유행이 바뀌었을 때 다시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개발, 관객 개발을 통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옷도 서민적으로 입고 재연을 하길 바라는데 그분들은 평범한 옷이 많이 위축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곳에서는 예쁘고 화려하고 듣기 좋은 가락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생깁니다.

지역에 대한 올바른 자부심은 건강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중심적이다 보니 그쪽이 더 잘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지역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세계 최고가 되는, 최고인 것이 자부심이 아니라 옆에서 살아 숨 쉬고 독특한 것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어야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정말 지역적인 것이 잘 살아나고 고유한 문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역학을 잘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프로그램이 전통이어야 하느냐? 시대에 맞는 것이어야 하느냐?
문화원의 주요목적사업이 전통문화 보전 계승 발전입니다. 그런데 보전하고 계승은 잘하는데 발전에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재미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보면 재미있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마트 보다는 시장을 가죠. 예술도 그들만의 예술을 보기를 원합니다.

평택문화원에서 <한국소리터>를 운영하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서양클래식과 '덩기덕 쿵덕'이라는 우리소리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에게는 서양 음악보다 국악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애들은 '한 번도 직접 접해보지 못했다', '방송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보고 들었는데 국악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것을 좋아할 만한 관객을 개발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통적인 프로그램, 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꼭 사람이 많이 오고 참여해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 가지고 가야 할 보전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유행도 바뀌듯이
우리가 보존해 놓지 않으면 유행이 바뀌었을 때 다시 만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개발, 관객 개발을 통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토론자2 작년부터 지역학을 시에서 하고 있어요. 문화원에서 기획을 같이 합니다. 작년에는 문화 탐방을 했는데 풍수 기행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마을을 선택해서 들어가자 해서 마을이 겪고 있는 문제들, 마을의 주민들이나 마을이 갖고 있는 자원들. 그것들을 알아보는 시간들로 한 시간을 할애했어요. 전통문화자원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서 지역학이 그런 방향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지역 학습이다. 단순히 평생학습이 아닌 것입니다. 딱딱하고 화석화 된 지식이나, 옛것에 대한 지식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작업이 온고지신(따뜻한 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전통자원, 향토 다 좋은데 그러한 것들을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게,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관심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선행되고 기반이 되어서 생활문화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도 고유문화,

전통문화 향토문화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모두 지역문화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단어의 이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은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것들만 잘 잡을 수 있다면 문화원은 충분히 미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좌장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담론 형성, 경험, 연구했던 것들을 논의했습니다. 다른 문화원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고,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모아서 의논하는 자리가 가지는 의미는, 생활문화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공간, 사람, 히스토리에 관한 문제,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더 크게 지방문화원이 지역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과 지방문화원 내부를 구성하는 성원들이 어떤 역량 속에서 지역 사회 미래를 책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되고 공유할 가치가 있습니다.
약간 부족하지만 깊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연합회 내년도에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슬기롭게 대응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느껴왔습니다. 그동안 문화원이 만나서 '이렇게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장(場)이 적었습니다. 비영리 독립법인 구조로 개별적, 지역적 차원을 넘어 협의하고 나누는 장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전통자원, 향토 다 좋은데 그러한 것들을
말랑말랑하고 따뜻하게,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관심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작업들이 선행되고 기반이 되어서
생활문화가 만들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마련된 자리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형식의 공간을 도연합회 차원에서 더 많이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 백

03 동아리운영사례 및 문화원의 생활문화사업 방향성 모색

실행편

경기도 문화원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사례

문화원 프로그램은 착해야만 하는가?

| 이천문화원

정말 멋지게 술 마시는 이천사람들

『 내 생애 첫 술잔 보고서 』

2016.

이/천/문/화/원

2016년 내 생애 첫 술잔 보고서

Ⅰ 생활문화플랫폼 준비 ····· 3

1. '생활문화플랫폼' 이란 ····· 3
2. 내 생애 첫 술잔 취지 ····· 4
3. 생활문화공동체 실천 사례 특강 ····· 5
4. '내 생애 첫 술잔'은 지역문화가 될 수 있는가! ····· 5
5. 이천생활문화추진단 모임 ····· 6
6. 간담회 및 생활문화공간 방문 ····· 7

Ⅱ 내 생애 첫 술잔 ····· 9

1.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첫 번째 만남 ····· 9
   『이천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2.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두 번째 만남 ····· 11
   『가양주 만들기』
3.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세 번째 만남 ····· 13
   『내 생애 첫 술잔 빚기』
4. 내 생애 첫 술잔 모니터링 및 컨설팅 ····· 14
5. "정말 멋지게 술 마시는 이천사람들" 홍보 ····· 15
6.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네 번째 만남 ····· 16
   『어떻게 술을 문화로 빚을 것인가』
7.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다섯 번째 만남 ····· 17
   『풍류, 이천아리랑』

8.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자발적 모임 ····· 19
9.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여섯 번째 만남 ····· 20
『풍류, 한국무용배우기』
10.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청소년팀 첫 번째 만남 ····· 21
『내 생애 첫 술잔 빚기』
11.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청소년팀 두 번째 만남 ····· 22
『어떻게 술을 문화로 빚을 것인가』
12.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청소년팀 세 번째 만남 ····· 23
『가양주 만들기』

III 생활문화플랫폼 축제 ····· 24

1. "정말 멋지게 술 마시는 이천 사람들" ····· 24
『내 생애 첫 술잔 축제』
2. 『내 생애 첫 술잔』은 지금부터 시작! ····· 27

I. 생활문화플랫폼 준비

- 매일매일 생활문화이야기 -

1. 생활문화플랫폼이란?

우리 주변에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 남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 독특한 살림 노하우를 가진 사람, 술을 잘 빚는 사람 등등 다양한 이웃들이 있다. 그러한 개성들이 서로 손을 잡으면 어느새 마을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것이 **생활문화**다. 따라서 생활문화는 강좌 수강이나 관람 위주의 소위 **'문화생활'와** 구별된다. **기능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다. 그렇기에 문화예술 활동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의 변화부터 시작하여 주민들의 역할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이 마을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주민들이 서로의 능력과 공동의 관심사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마을의 특성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 **'생활문화'**라면 그 때 주민들은 문화 생산자, 즉 **생활문화디자이너**가 된다. 그리고 생활문화디자이너들을 모아내어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엮어내는 장소가 바로 **'생활문화플랫폼'**이다.

옆집에 살던 이웃이 생활문화디자이너가 되고 관심 두지 않았던 공간이 무대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일상의 몸짓들이 만나 축제가 된다. **그것은 어느새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관계가 되고 문화가 된다.**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보고 낯선 것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삶이 응원 받는 생활문화플랫폼이길 바란다.

2. 내 생애 첫 술잔 취지

▶올바른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모임

우리조상들은 예로부터 제사와 전통혼례 등 여러 의식과 행사를 할 때 필수적으로 술을 사용했고 다양한 곡주(穀酒)를 제작해 왔으며 술을 마실 때는 풍류와 멋을 즐겼다. 또한 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고 부드럽게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적당량의 음주는 건강에 이롭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술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심각한 장애 초래, 음주운전, 무분별한 회식문화, 폭력, 비행, 범죄, 만취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문화 등 과음으로 인한 문제와 폐단이 늘어나고 있다. 술을 처음 마시기 전에 술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에 대한 주법(酒法)을 배워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실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재 음주에 대한 교육과 실천방안 모색의 절실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천문화원은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통의 '향음주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지역 문화예술인, 생활문화동아리회원 등 성인이 술의 원료인 이천쌀과 술잔과 술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자기 등 이천의 대표적인 특산품을 활용하여 술의 부정적인 면을 일신하고, 올바른 음주예절을 교육하여 멋과 낭만, 풍류가 있는 새롭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만들고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이천지역의 생활문화 실천플랫폼(이하, 내 생애 첫 술잔)을 기획했다. 2016년 2월 디아지오코리아가 전국 대학생 12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본인을 포함하여 현재 대학생들의 음주방식에 문제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68%가 그렇다. 첫 음주 시기는 청소년 시기가 60%, 음주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받은 적이 없다가 54%, 술에 대한 교육은 합법적 음주 가능 나이가 되기 전에 필요하다가 88%가 이를 뒷받침한다.(아시아 경제 2016. 3.2 참고)

3. 생활문화공동체 실천 사례 특강

▶생활문화플랫폼 공감대 형성

지난 2016년 6월 29일 오후 5시 서희1관에서 이천문화원 생활동아리 대표·총무·이천문화원 문화학교 강사 등을 대상으로 특강 시간을 가졌다. 이 모임은 내 생애 첫 술잔을 진행할 생활문화·인적자원을 모집하고, 내 생애 첫 술잔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김영현 생활문화플랫폼축제기획단 단장이 진행한 '생활문화공동체 실천 사례' 특강과 현재 이천문화원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행하는 자발적인 문화 활동이 작품이 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관계가 문화가 되어 생활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생활문화공동체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생활문화플랫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별히 이천의 지역문화예술분야 전문가와 동아리회원,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 특산품인 이천쌀과 도자기 등을 활용하여 이천을 특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만들고 지역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4. 내 생애 첫 술잔은 지역문화가 될 수 있는가!

▶1차 사업설명회 및 이천생활문화추진단 구성

6월 모임에 이어 2016년 8월30일 오후 3시 서희 1관에서 생활문화 동아리대표, 생활문화동아리 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내 생애 첫 술잔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을 구성했다. 사업설명회에서 지난 6월에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개강한 문화학교 강좌를 소개하고 그 가운데 '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김재섭의 가양주만들기, 박원목 교수의 와인교실 등 2개 동아리와 술잔과 술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동아리 1개를 소개하고 점검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축제기획단 단장 김영현 님의 **'내 생애 첫 술잔은 지역문화가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의 특강은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이천지역문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이천은 신규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중 문화 수준이 높고 다양한 문

화적 욕구를 갖춘 계층이 늘어나고 있고 30~50대 연령층의 경우 일과 여가활동이 동등하게 중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여가활동 시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도 크다. 또한 술의 원료인 쌀, 술병과 술잔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등 지역특산품이 있어 우리민족 고유의 멋과 맛을 담은 풍류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이에 이천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동아리와 강사들은 지역사회에서 어른으로서 자기 역할을 찾고 지역의 청소년과 어른에게 이천스타일 음주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통해 '이천 출신은 주도를 안다'는 이천의 새로운 음주문화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날 1차로 성인팀 30명과 양정여고, 이천고등 청소년팀 30여명, 이천생활문화디자이너 4명 등 올바른 음주문화를 위한 시민모임인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자체활동, 찾아가는 활동, 지역연계 활동 등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업 필요성과 협력 기관 구성 및 공감대 확산 등에 대해 공유하며 역할을 나눴다.

5. 이천생활문화추진단 모임

▶2차 사업설명회

뒤를 이어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천문화원에서 이천생활문화추진단, 강사, 원목회 회원, 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2차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내 생애 첫 술잔 이천생활문화추진단과 1차 사업설명회에 대한 피드백을 나누고 음주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 및 필요성을 재고했다. 또한 '이천시민이 변화의 기본 씨앗이 되자, 이천의 청소년과 어른이 함께 '풍류와 멋과 낭만'이 있는 즐겁고 재미있고 올바른 주법(酒法)를 만들자, 이천의 문화적 이미지 발현하자, 등 이천스타일의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실천방안과 방향성에 대한 설명회와 시민들의 토의를 하며 이천문화원을 중심으로 음주예절교육활동 다양하고 새로운 음주문화 실천플랫폼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6. 간담회 및 생활문화공간 방문

▶술은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6시. 장독대에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이 익어가고, 술독에서는 술이 익어가고 대추나무에 대추가 알알이 여물어가는 가을 저녁.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우리음식연구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음식연구소는 가양주 만들기의 명인인 김재섭 선생 자택이며 가양주 만들기 수업을 진행할 곳이다. 또한 11월12일에 있을 축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일행은 우리음식연구소 정원을 둘러본 뒤 김재섭 선생이 손수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요리한 맛깔스럽고 깊은 맛을 품은 도토리묵 무침, 돼지고기 김치찌개, 고들빼기김치, 민들레 무침, 손수 담근 가양주 등 자연식을 먹고 마시며 간담회를 이어갔다. 건전하고 멋스러운 이천스타일 음주문화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장소(우리음식연구소-내 생애 첫 술, 가양주 만들기, 들꽃마을 도예공방- 내 생애 첫 술잔 빚기)를 답사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날 조명호 이천문화원 원장,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미경 이천문화원 과장, 이동재 이천생활문화디자이너, 김영현, 송하원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축제기획팀 그 외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플랫폼축제기획팀 관계자와 국악인, 무용가, 가양주 명인 등 프로그램 진행강사, 프리랜서 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영현 생활문화플랫폼축제기획단 단장은 "이천은 술의 원료인 쌀, 술잔과 술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자기 등 생활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특산품이 많은 고장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천스타일의 새롭고 올바른 음주문화 생활플랫폼을 만들고 인문학적 지역문화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고 말했다. 또한 "향음주례(鄕飮酒禮)와 음주가무는 풍류라고 하는 우리민족 고유의 멋과 낭만이 숨어있다. 이를 현대에 맞게 재해석해서 이천 스타일의 음주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술은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인데, 그것에 인문학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이천의 다양한 생활동아리회원과 생활문화추진단 및 문화예술인 강사 등이 선두가 되어 지역의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올바른 음주 문화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천 출신은 주도(酒道)를 안다'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등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우리음식연구소에서 간담회에 이어 우리 음식연구소 근처에 있는 들꽃마을 도예공방을 방문했다. 들꽃마을 도예공방은 세 번째 만남 '내 생애 첫 술잔 빚기'를

진행할 곳이다. 참여자들은 도예체험장을 둘러보면서 앞으로 만들 프로그램을 진행할 최현숙 작가의 작품을 감상했다. 들꽃마을 도예공방에는 일본인 체험단이 찾아와 만들어놓고 간 다양한 컵과 잔들이 작업대 위에 진열돼 있었다. 앞으로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이 만들 잔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도예체험장을 둘러본 뒤 최현숙 작가의 작품 전시장에 들러 최현숙 작가가 손수 내려온 커피와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영현 생활문화플랫폼축제기획단 단장은 "흙으로 도자기술잔을 빚을 때 그 잔에 생활문화추진단 각자의 이야기와 의미를 담기를 바란다" 는 조언과 "이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또 참여자들은 둥그런 원탁테이블에 모여 앉아 향음주례의 정신을 이어가되 그것에 굳이 얽매이지 않고 이천스타일의 새로운 음주문화를 만들어가고 프로그램 과정 속에 그것을 녹여내자는 데 마음을 맞췄다. 간담회는 9시가 넘도록 진행됐는데, 현장을 답사하고 토론하는 중에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새삼스런 깨달음을 얻으며 다음을 기약하고 간담회를 마쳤다.

II. 내 생애 첫 술잔

- 인문학적 지역문화브랜드로 녹여내기 -

1.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첫 번째 만남

▶『이천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2016년 10월4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희1관 4강의실에서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첫 번째 수업을 가졌다. 이날 주제는 '이천을 새롭게 디자인하자'이다.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이천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대표 및 회원, 이천문화원 여성회 회원, 이천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명호 이천문화원장은 "요즘 청소년들에게 주법(酒法)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때문에 음주문화의 폐해가 심각하고 음주문화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조상들의 음주문화에는 흥과 멋과 덕담이 있었다. 조상들의 음주문화와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가양주 명인, 이천아리랑 전수자, 술의 원료인 쌀, 술잔과 술병으로 사용되는 도자기, 산수유 정과 등 이천지역의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여 새롭고 아름다운 생활문화를 만들자. 또한 이천문화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를 추구하고 생활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주도(酒道)를 통해 청·장년간에 만남과 소통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뒤를 이어 이동준 이천문화원사무국장은 '향음주례와 술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했다. '자연에 대한 경외인 술을 인간은 삶의 고통을 잊고자 마셨다. 술은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매개체이지 목적은 아니다. 음주문화는 도전적인 프로젝트이지만 인간사회에서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우리 전통의 향음주례를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어렵다. 향음주례의 정신을 이어받되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천 고유의 독창적이고 재미있고 올바른 이천스타일의 음주문화를 만들고 사람이야기를 풀어내야한다' 등을 강의했다.

▶나의 첫 술에 대한 다양한 추억담

첫 번째 모임의 꽃인 나의 첫 술에 대한 추억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서로에 대해 참여 동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생활문화추진단의 나의 첫 술에 대한 다양한 추억담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은 그 사례다.

-사례1) "처음 술을 접한 건 고등학교 때입니다. 선배 둘이 술을 사주면서 담배도 피워보라고 줬어요. 담배는 한 모금 피웠는데 물 석 잔을 마셨어요. 그때 담배는 내 것이 아니구나! 생각했구요. 하지만 소주는 맛있었고 마셔도 취하지 않은 기억이 납니다. 그 기억으로 지금까지 말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례2) "어른들 심부름하다가 막걸리 주전자 끝으로 한 모금 마신 게 첫 술에 대한 기억이예요. 기억에 남는 것은 둘째 아들을 가졌을 때 외갓집에 큰일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이 설탕을 타서 먹는 막걸리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마시고 싶다하니까 그걸 한 대접을 주셨고 그걸 원샷 했어요. 너무 맛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술을 잘 받지 않아서 먹질 않아요. 그 시절 그 막걸리 맛이 잊히지 않는 기억의 술잔이예요."

-사례3) "외갓집에서 외할머니가 술을 담그셨을 때 술 찌개미에 설탕을 타서 먹어본 게 처음 마셔본 술이예요."

-사례4) "나는 술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사람들은 말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좀 달 바꿔볼까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례5) "나는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가 계모임을 다섯 개나 하셨어요. 할머님들이 모이시면 노란 주전자에 든 것을 드셨는데 궁금해서 옆에서 조금씩 마셔봤는데 사이다 맛이 났던 거 같고 취하지 않았어요. 진짜 술이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버지가 장롱에서 깡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뚜껑에다 뭔가를 한 잔 따라 드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몰래 한 번 마셔봤어요. 그러고 나는 대여섯 시간을 자고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게 양주였던 것 같아요."

-사례6) "나의 술에 대한 역사는 길어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술 찌개미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 지금은 크리스천이지만 옛날에는 고사를 지냈는데 매년 고사를 지낼 때마다 아버지 몰래 한 번 씩 마신 기억이 납니다. 제대로 마신 건 고등학교 3학년 때 크리스마스이브 날 소주에 환타 타서 한 잔 먹었다가 뻗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선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마신 게 지금까지 왔답니다."

-사례7) "나는 대학생 때 교수님과 다 같이 맥주 한 잔 하던 게 첫 술자리예요. 그 당시에는 그걸 왜 마시는지 몰랐어요. 너무 맛이 없어서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술을 안 마시는 집안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안 드셔서 나는 술하고 가깝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직장을 술 회사를 들어가게 됐고 매일 저녁 '술은 좋은 거다' 라는 세뇌를 당하면서 매일 접하게 되다 보니, 술은 진짜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술을 많이 마시는 체질은 아니지만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술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사례8) "고등학교 시절,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생일인 학생들을 위해 담임선생님께서 파티를 해주셨어요. 샴페인도 한 잔씩 따라 주셨답니다. 밤엔 친구 여섯 명이 모여서

맥주 한잔 마시고 대전역 광장에 둘러 앉아 그 당시 유명했던 노래 김종찬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절이 그립다. 친구들과 만나 대전역 광장에서 또 불러보고 싶구나."

이 외에도 나의 첫 술에 대한 추억 이야기는 정말 다양했다.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은 박수를 치고 깔깔대면서 공감하고, 어릴 적엔 이해 못했던 부분을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술에 대한 추억을 풀어놓으면서 내 생애 첫 술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고 올바르고 건전한 음주문화가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것 가운데 좋지 않은 음주문화를 답습하게 하면 안 된다는 절심함을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음주문화를 어떻게 생활 속에서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된 시간이었으며 술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 주고 몰랐던 서로를 알아가는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은 입을 모아 말했다. 꺼내어 풀어놓을 수 있는 추억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추억이 이천스타일의 음주문화를 만드는데 자양분이 되리라 믿는다.

2.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두 번째 만남

▶『가양주 만들기』

'내 생애 첫 술잔'은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의 자발적인 실천 아래 10월18일 화요일 10시 이천시 신둔면에 위치한 우리음식연구소에서 '가양주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만남은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두 번째 수업이다. 가양주는 집에서 만든 술을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집에서 술을 만들어 마시곤 했다. 이날 우리음식연구소에는 바구니에 담긴 대추와 장독대가 반질반질 거리며 양지바른 곳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고 김재섭 선생님은 미리 불린 쌀을 시루에 안치고 뚜껑을 덮어 장작불을 때고 있었다. 세월과 현대의 속도감 있는 문명의 발달에 의해 잊혔던 장작불을 보면서 잠시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은 말했다. 고슬고슬하게 찐밥에 효모를 섞으며 맛을 보기도하고 술을 빚으면 손이 부드러워진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알게 됐다. 김재섭 선생님은 결혼하고 시댁에서 명절이나 집안의 여러 행사에서 술을 담그다 보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상이 됐고 지금에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그 말씀에 매일, 그리고 자주 하던 일이 문

화가 되고 고생스럽지만 꾸준히 한 일이 명인에 이르게 한다는 새삼스런 진리를 깨닫는다며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고개를 끄덕였다. 또한 찐밥에 효모를 입혀 3일간 발효를 시키고 물을 붓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술은 발효음식이라는 사실과 동동주나 막걸리 등 집에서 직접 담근 술을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시면 설사를 멈추게 하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경험적 사례를 들었다. 김재섭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를 놓칠세라 눈을 반짝이고 귀를 쫑긋 세우며 부지런히 따라다녔다.

매화주나 국화주 등을 담그고 싶으면 발효된 찐밥에 물을 부을 때 국화나 매화 등을 한줌 정도만 넣으면 된다고 한다. 이때 몸에 좋다고 하여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다. 또한 과일주를 담그고 싶다면 이 과정에서 넣으면 안 되고 와인처럼 다른 과정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가양주 만들기 과정에서 평소 알지 못했던 술의 긍정적인 면과 우리 전통주에 대한 자부심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음주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한 가정에 돌아가서도 술을 담가봐야겠다고 했다. 한편 효모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고 이천 관고시장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이 효모를 직접 만들어 파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이라고 김재섭 선생님의 말씀에 사라져가는 우리 것을 배우고 익혀 그 맥을 이어가는 젊은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게 됐다.

< 가양주 만드는 순서 >

1. 24시간 이상 불린 쌀을 찌어 시루에 안친다.
2. 쌀을 안친 시루의 뚜껑을 닫고 40분~45분 정도를 불을 때 고슬고슬하게 찐다.
3. 찐밥을 따끈할 정도로 식혀서 좁쌀효모를 입힌다. 쌀 한 말에 효모 8봉지를 넣는다. 효모를 입힐 때는 손으로 고두밥 덩어리가 풀어지게 문지른다.
4. 효모를 코팅한 밥을 용기에 담아 이불 등으로 덮어 25~27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 두고 3일 동안 발효시킨다. 이때 매일 밥을 한 번씩 뒤집고 골고루 비벼주면

서 덩어리를 풀어주고 밥알에 코팅이 골고루 되도록 밥알을 손으로 싹싹 문질러 준다.

5. 효모를 입혀 3일간 둔 밥알에 드라이이스트 코팅을 한다.
   (드라이이스트는 쌀 한말에 두 봉지. 누룩냄새를 원하면 누룩을 첨가한다.)
6. 코팅한 밥알을 술 담을 통에 넣는다.
7. 코팅한 밥알을 담은 통을 따뜻한 온열기 위에 올려놓는다.
8. 코팅한 밥알에 물을 조금씩 붓는다.
9. 물과 코팅한 밥알을 골고루 섞는다.
   -물의 비율: 여름에는 밥알과 물의 비율이 1 : 1, 겨울에는 1 : 1.5(국화, 솔잎, 인삼, 칡 등을 넣고 싶으면 이때 조금 넣는다)
10. 처음 발효 때와 마찬가지로 뚜껑을 덮는다.

*주의 : 뚜껑을 꽉 닫으면 발효되는 동안 폭발위험이 있으므로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세 번째 만남

▶『내 생애 첫 술잔 빚기』

가양주 만들기에 이어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은 10월 18일 화요일 10시 들꽃마을 도예공방에서 세 번째 만남 '내 생애 첫 술잔 빚기'를 실시했다. 신둔면에 위치한 들꽃마을 도예공방은 한 번에 100여명 이상이 도예체험을 할 수 있는 한적하고 넓은 공간이다. 이날 수업을 진행한 최현숙 작가는 이천문화원 생활도예동아리 강사이며 20여 년째 이천에서 도자기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천생활문화추진단과 도예동아리회원, 이천 시민들은 도예체험 장에서 흙, 손물레, 조각칼, 스펀지 등을 앞에 놓고 도예작가의 술잔 빚는 과정 설명을 들은 뒤 자신만의 술잔을 빚기 시작했다. 이날 술잔 빚기는 코일링 기법으로 작업했는데 흙을 조몰락조몰락 주무르고 문질러서 동그랗고 굵기가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이어붙이는 과정은 마음만큼 쉽지 않았다.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첫 술잔에 부여하고 싶은 의미, 새길 문구 등을 고민했고 술잔을 빚으며 그동안 같이 술을

마셨던 사람, 앞으로 마실 사람 등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그대에게, 처음처럼, 사랑하며 살자 등 다양한 문구가 나왔다.

< 내 생애 첫 술잔 빚는 순서 >

1. 흙을 주무르고 문질러 길이와 굵기가 일정하게 동그랗고 길게 만다.
2. 동그란 밑판 위에 길고 동그랗게 빚은 흙이 잘 붙도록 꼼꼼하게 손본다.
3. 집중하여 올리고 붙이고를 반복한다.
4. 술잔에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가, 누구를 생각하며 만들 것인가 등 생각하며 정성과 사랑을 넣어 만든다.
5. 잘 빚은 잔을 손물레 위에 올려놓고 다듬은 뒤 이름과 생각해 두었던 의미 있는 문구를 새긴다.

같은 재료와 같은 도구로 만들었지만 술잔은 모두 제각기이다. 이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구인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생애 첫 술잔이 빚어졌다.

4. 내 생애 첫 술잔 모니터링 및 컨설팅

▶10월 18일 오후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은 11월 12일에 실시할 내 생애 첫 술잔 축제에 관한 사전 토의를 했다. 이를 토대로 10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성진, 송하원 생활문화플랫폼기획단,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미경 이천문화원 과장, 송명자, 이동재, 김희정 이천생활문화디자이너 등이 이천문화원에 모였다. 이날 주제는 내 생애 첫 술잔의 진행상황과 11월 12일에 개최할 내 생애 첫 술잔 축제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이었다. 이날 참여자들은 열띤 토의를 했는데 '그간 이 사업은 이천문화원과 시민모임인 이천생활추진단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로 이천스타일의 음주 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해 왔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이 처음 만나는 축제의 자리에서 서먹하고 어색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게임이나 놀이 등을 하며 마음을 여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 이벤트 과정에서 작은 선물도 주면 축제가 흥이 있어진다.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이천스타일의 주법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자. 그런 의미에서 이천스타일의 주법을 만들자. 기관장들을 초대할 건데 평소 행

사의 수순처럼 기관장이 인사말을 길게 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행사 중간에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인사하는 방식으로 하자, 전통적인 향음주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법도 번거롭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은 이어받되 현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이천스타일의 주법을 만들자. 축제에 차릴 술과 음식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집에서 직접 담근 가양주와 이천의 특산품인 산수유 정과 등을 내놓고 그 외에 차릴만한 특산품을 생각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내 생애 첫 술을 마실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청소년이 이미 술을 마셔본 경험은 있으나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고 학교의 입장도 있을 것이니 학교 교사와 의논해보기로 했다. 축제는 성인과 청소년이 술을 매개로 하여 풍류와 멋을 즐기고 소통하는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자. 건전하고 올바른 음주문화를 알리는 시간으로 만들자, 버스에 정말 멋지게 술 마시는 사람들, 올바른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모임 등 홍보를 하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송하원 생활문화플랫폼기획단 팀원은 팔에 붙여서 간단하게 자신의 알코올 체질 반응을 검사할 수 있는 에탄올 테스트 패치가 보건소에 있으니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축제날에 그것을 붙이는 행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자신의 알코올 반응 테스트 결과는 대화의 소재로 이어질 수 있고 자신의 체질을 알게 되어 술을 조심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데 참여자들은 동의했다.

5. 『정말 멋지게 술 마시는 이천사람들』 홍보

▶2016년 10월 19일(수)~2016년 10월 23일(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린 이천쌀문화축제장 부스에 '정말 멋지게 술 마시는 사람들' 이란 플래카드를 걸고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이천 전통 가양주 시음행사를 진행했는데 이천 시민들과 행사를 찾은 관광객들은 이천쌀로 직접 빚은 가양주를 맛보며 깊은 맛에 감탄을 했다. 그리고 생활문화추진단은 술을 마실 때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과음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절제하여 적당량의 술을 마셔야 한다는 등 이천스타일 음주 문화를 홍보했다. 이천쌀문화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다.

6.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네 번째 만남

▶『어떻게 술을 문화로 빚을 것인가』

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천문화원에서 네 번째 만남으로 '우리는 어떻게 술을 문화로 빚을 것인가' 라는 주제의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전통 향음주례에는 경건함, 절제, 겸양, 청결, 협동정신, 질서의식, 감사 등의 정신이 들어있다. 하지만 이 의식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하여 음주문화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술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지 목적은 아니다. 좋은 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뒤끝이 맑아야 한다. 작화치훈계(酌和輝訓戒)!술 마실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이천사람들은 주례(酒禮)를 알고 예(禮)를 아는 고장이라는 이천스타일의 음주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등의 강의를 했다. 강의에 이어 이미경 이천문화원 과장과 생활문화디자이너의 진행으로 이천의 주례(酒禮)와 내 생애 첫 술잔 축제에 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 토의에는 이천생활문화추진단과 동아리회원, 음주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 주성진 생활문화플랫폼 코디네이터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천의 음주문화에 대해 열띤 토의가 진행됐는데 '술을 건전하게 마시는 문화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라는 반문을 던진 시민도 있었다. 이 반문은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생긴 질문이었기에 누구든 가질 수 있는 질문이다. 하지만 최근 술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니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음주 원칙에 따라 건전하고 멋스러운 이천스타일의 음주문화가 나올 것이라 기대되고 지금의 작은 움직임이 문화를 만들어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고 기대한다고 시민들은 말했다.

이날 '어른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주법을 가르쳐야 하겠는가?' 라는 논제에 한 남자 시민은 예전에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며 친해졌고 힘자랑도 했다며 남자청소년은 남자끼리 술을 마셔보게 해야 한다고 하여 폭소를 자아내게 했다. 축제날에 이천의 주례에 대해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함께 만들어가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시민 의견도 있었다. 이 문제는 촉박한 시간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인과 청소년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없는 아쉬움이었다. 또한 축제날에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과 청소년팀이 처음 만나는데 서로 관계를 맺고 대화의 소재를 무엇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참여자들 가운

데 있던 주성진 코디네이터는 요즘 청소년들은 어른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한다. 해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생각해봐야 한다 등의 아이디어를 냈다.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 자기소개 등으로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시민의견도 있었다. 축제날엔 내놓을 음식으로는 가양주, 산수유 막걸리, 산수유 정과와 게걸무정과, 이천한우로 만든 소고기 육포 등 이천특산품과 견과류, 은행 등이 나왔다. 축제날에 성인에게는 직접 빚은 가양주를, 청소년에게는 따뜻한 목도리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테이블 세팅에 관한 토의도 있었다. 둥그런 원탁 테이블에 다양한 안주거리를 놓은 큰 도자기 쟁반을 놓고 각 사람 앞에 안주와 술잔을 놓을 수 있는 쟁반을 놓는다. 도자기 술병에 가양주와 식혜를 담고 도예공방에서 직접 빚은 도자기 잔에 따라 마시자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날 이루어진 이천스타일의 주례(酒禮)에 대한 토의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참석자들은 성인들의 의견과 나중 청소년팀 모임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천스타일 주례를 만들자는 의견에 동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천스타일의 음주예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 성인팀-이천의 음주문화는 이랬으면 좋겠다! >
-술을 권할 때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술자리에서는 모두가 주인공이다.
-술자리에서는 취하지 않게 조심하여 마신다.
-상대가 술에 취했다 싶으면 권하지 않고 술에 취했을 경우 정중하게 사양한다.
-내 술잔에 풍류를 담아 건배한다.
-술자리에서 이천 이야기를 한다.
-술자리를 멋지게 마무리 한다.

7.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다섯 번째 만남

▶『풍류, 이천아리랑 배우기』
11월1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천문화원에서 성인팀 다섯 번째 만남 '풍류 이천아리랑'을 실시했다. 풍류는 사전에 의하면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또는 '운치가 있는 일' 로 나온다. '아취(雅趣 : 아담한 정취 또는 취미)가 있는 것' 또는 '속

(俗)된 것을 버리고 고상한 유희를 하는 것'으로 풀이한 학자도 있다. 자연을 가까이 하고 음악을 알고 예술에 대한 조예, 여유, 자유분방함, 멋, 즐거운 것 등을 내포하는 용어라고도 한다. 이러한 풍류를 우리 조상은 잔칫날이나 행사에서 술과 함께 즐겼다. 이에 이번 음주문화에 대한 풍류 수업은 이천아리랑으로 잡았다. 이천아리랑은 올해 이천문화원전통예술 강좌로 진행됐다. 이번 수업을 진행할 전경미 강사는 이천문화원 전통예술 강좌인 '경기민요와 이천아리랑' '가야금 병창'을 지도하고 있다. 아리랑은 2012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세대와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속에 광범위하게 녹아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정서적 고향'이다. 이날 전경미 강사는 2010년 sbs 다큐스페셜에서 일본 카시와 고등학교 취주악연주단의 아리랑 공연 동영상으로 수업을 시작했다. 일본의 카시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는 세계 취주악 대회에서 아리랑 연주로 1등을 했다. 일본의 카시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1등을 한 배경에는 카시와 고등학교의 음악 담당 이시다 슈이치 선생이 있었다. 그는 10년 전,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우연히 들은 아리랑에 감동을 받아 한국을 계속 오가며 아리랑을 배웠고 카시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가르쳤다고 한다. 그 후, 카시와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팀은 일본 고등학교 전국대회 우승은 물론, 세계 취주악 대회에서도 아리랑을 연주하여 1등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한 해 70여 차례 일본 전국 순회 공연을 할 정도로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아리랑은 미국 교회에서 찬송가로도 불리고 있다고 한다. 1990년 'christ, you are the fullness'라는 제목으로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 발간하는 찬송가집에 수록됐는데, 미국찬송가 편집위원인 에밀리 브링크는 멜로디가 정말 아름답다고 극찬했다고 한다. 이렇듯 아리랑은 세계 음악인이 최고 힐링 음악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아리랑이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기본정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민요인 아리랑을 세계인들은 그 나라 정서와 문화에 맞게 변주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업 시간에 배울 이천아리랑은 이천문화원이 이천아리랑을 부른 어르신들께 직접 녹취한 녹취록을 토대로 하여 전경미 강사가 재편집한 것이다.

이날 이천생활문화추진단 및 전통예술강좌 동아리 회원, 시민 등은 아리랑에 대한 동영상을 본 후 이천 아리랑을 배웠다. 전경미 강사는 장구로 장단을 맞추고 흥을 돋았다. 소리는 아침엔 잘 나오지 않는다는데 이날 참여자들은 '아리랑~ 아리랑~ 어~러리에~~ 어리랑 에헤루~ 어~러~리~야 아리랑~'의 구성진 가락을 목청껏 따라 불렀다. 아리랑은 우리 민요이지만 지방마다 고유의 특색이 있는데 이천 아리랑은

후렴구가 장례식 때 상여를 메고 나가며 곡을 하는 소리와 닮았다는 설도 있다. 이천생활문화추진단은 이천 아리랑을 배우며 이 민요 속에는 농경 시대를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한과 설움이 담겨 있음을 몸소 체험했고 또한 우리 조상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삶의 고통과 힘듦을 잠시 잊었을 거라는 추측을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 몸이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춤을 추게 된다는 자연스런 논리를 알게 됐다며 흥겨워했다. 그러면서 맘속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밖으로 배출되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는 시민도 있었다. 술과 음악은 실과 바늘처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날 이천문화원 국악동아리 회원이 즉석으로 이천아리랑을 불러주셔서 박수를 받았다. 이천 시민인데도 이천아리랑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내 생애 첫 술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문화에 대해 알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아이들에게도 꼭 알려줘야겠다고 시민들은 말했다. 이번 시간은 풍류와 함께 숨어있는 지역문화를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8.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자발적 모임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오후 생활문화추진단은 11월12일에 있을 내 생애 첫 술잔 축제에 관해 토의를 했다. 이날 모임은 자발적인 시민 모임이었다. 이천스타일의 음주문화가 만들고 내 생애 첫 술잔 축제에 진행할 첫 술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렸을 적 처음 술을 마신 기억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스토리로 만들고 통기타로 흥을 돋기로 했다. 또한 축제날 역할 분담에 대한 토의도 했다.

9.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팀 여섯 번째 만남

▶『풍류, 한국무용 배우기』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10시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서 '풍류 한국무용 배우기'를 실시했다. 이 수업은 성인팀 여섯 번째 만남이다. 이날 생활문화추진단은 강혜업 강사의 지도로 한국무용의 기본 춤사위를 배우며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강혜업 강사는 이천문화원 전통예술 강좌인 '우리 춤으로 힐링'을 지도하고 있다.

춤은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 팔다리와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뛰노는 동작이다. 그리고 한국무용은 흥이 어깨에서 구체화되어 리드미컬하게 온몸으로 퍼져 멋으로 승화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제사에서 주술능력을 배가시키거나 술자리에서 춤을 추며 흥을 돋우고 삶의 힘듦과 마음속 고뇌를 날려 보내곤 했다. 한국무용은 춤사위 선이 곱고 우아하고 끊어질 듯 이어지고 멈출 듯 하면서도 이어지는데 이 춤사위가 애절하면서도 꿈을 꾸는 듯 삶의 기쁨과 애환을 담고 있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러운 게 한국무용의 매력이기도 하다.

쿵쿵쿵쿵, 국악이 흐르고 손바닥을 폈다 뒤집고 발을 찍고, 가고, 세 번 뛰고, 한 번 두 번 셋에 내리고, 발코는 위로 가고, 안 쓰는 손은 자동으로 허리에 있어야 하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위로, 정면 보고 허벅지 치고, 손뼉치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얼씨구 절씨고, 무릎을 들고 하나, 둘, 셋, 넷, 박자를 맞추고 구령을 하면서 한 손은 올리고 등. 생활문화추진단은 전신과 좌우 사람이 다 보이는 기다랗고 커다란 거울 앞에서 서서 뱃살이 출렁이고 평소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쳤지만 우리춤의 기본 동작을 열심히 따라 했다. 이천서희청소년센터에 왔다가 참여하는 시민도 있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흥이 절로 나고 더불어 운동효과도 있겠다고 생활추진단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날 생활문화추진단은 여러 사람과 함께 춤을 추며 친밀감을 느꼈고 '춤은 몸짓으로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음악을 흥얼거리며 몸을 움직이는 행위는 무척 자연스러운 풍경이고 이것을 이천 음주예절에 아름답고 멋스럽게 적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는 말을 덧붙였다.

10.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청소년팀 첫 번째 만남

▶『내 생애 첫 술잔 빚기』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청소년팀의 첫 번째 만남이 시작됐다. 10월28일 금요일 오후 3시 양정여고 15명, 이천고등학교 15명 총 3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팀은 들꽃마을 도예공방에서 '내 생애 첫 술잔 빚기'를 진행됐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참여 동기는 다양했다. '술을 마시지는 않지만 앞으로 마실 것을 대비하여 미리 음주문화를 배우고 싶다.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끼리 마시니까 무분별하게 마셨다. 어른들에게 좋은 음주문화를 배우고 싶다. 음주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재미있을 것 같다. 도자기 술잔을 빚으며 음주문화를 가르쳐준다기에 친구와 같이 신청했다. 등이다.'

수업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사뭇 진지했다. 청소년들은 흙으로 술잔을 만들며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했다. '술잔 한 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천이 도자기 고장이라는 데 새삼 긍지를 느꼈다. 술 잔 한 개가 만들어지기까지 정성과 수고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다. 어른들에게 올바른 음주 문화를 배우고 싶다. 술잔을 빚으며 내가 만들 잔 속에 담고 싶은 의미와 앞으로 수업에 참여하면서 배우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등을 생각했다. 어른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이천만의 음주문화를 기대하고 상상했다.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과 공부와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잠시 잊는 좋은 시간이었다. 친구를 떠올리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라고 다짐했다' 등이다.

11.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청소년팀 두 번째 만남

▶『어떻게 술을 문화로 빚을 것인가』

2016년 11월4일 금요일 4시 청소년팀은 이천문화원에서 두 번째 만남 시간을 가졌다. 이날은 이동준 이천문화원사무국장은 '우리는 어떻게 술을 문화를 빚을 것인가?' 주제로 강의를 했고 이어 이미경 과장은 '향음주례와 현재의 음주예절'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마치고 청소년들과 이천의 음주문화에 대한 토의를 했다. 학생들 중 어른들 몰래 술을 마셔본 경험 있다고 말하는 청소년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아직 술을 마셔본 경험이 없었다. 이날,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천의 음주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말했다.

< 청소년팀-이천의 음주문화는 이랬으면 좋겠다! >

- 술자리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 술자리에서는 대화를 위해 휴대폰 사용을 자제한다.
- 윗사람이라고 아랫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는다.
- 건강을 위해 안주를 많이 먹는다.
- 취하지 않도록 적당히 마신다.

12.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청소년팀 세 번째 만남

▶『가양주 만들기』

2016년 11월11일 금요일 4시 이천우리음식연구소에서 청소년팀 세 번째 만남 '가양주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날 청소년팀은 동동주에 들어갈 누룩을 잘게 부수고 찐밥을 엉키지 않게 골고루 풀고 찐밥에 잘게 부순 누룩을 넣어 골고루 섞고 물을 붓

는 등 가양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학생들은 술을 쌀로 빚는다는 것과 이천에서 재배한 쌀이 술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쌀이 밥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또한 동동주에 누룩을 넣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무척 신기해했으며 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고 터득하기 어려운 것을 현장에 나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해가면서 알아가는 재미를 느꼈다고 즐겁게 말했다. 이날 청소년팀은 전통주에 대한 자부심, 술을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이롭지만 과음하면 해롭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도 했다. 이천에는 OB맥주와 진로소주 회사가 있는데 이천쌀로 우리 전통주인 가양주를 만드는 곳이 이천에 있다는 것에 많은 자부심을 느꼈으며 이것을 우리지역 특산품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III. 생활문화플랫폼 축제

- 정말 멋지게 술 마시는 이천 사람들 -

1. 내 생애 첫 술잔 축제

▶내 생애 첫 술잔이 그간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즐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2016년 11월12일 토요일 2시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이천우리음식연구소에서 '정말 멋지게 술 마시는 이천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내 생애 첫 술잔'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경기문화재단 지원 사업 '경기 생활문화플랫폼 조성사업-매생이(매일매일 생활문화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경기문화재단이 10. 29~11. 2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2016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축제의 일환이다. 2016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축제는 경기도의 15개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이천문화원은 그간 진행해온 '내 생애 첫 술잔' 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멋지게 술 마시는 이천사람들'이라는 주제 아래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그동안 이천문화원과 이천시민 및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생활문화동아리 회원 등이 음주문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문화를 배우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온 건전하고 멋스러운 이천스타일의 음주문화를 알리는 자리였다. 또한 술이 매개체가 되어 어른과 청소년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조병돈 이천시장과 조명호 이천문화장은 시작 시간보다 일찍 와서 '이천스타일 음주문화 실천하기' 서명란에 사인을 하여 동참을 하고 준비된 에탄올 패치 테스트도 참여하는 등 이천생활문화추진단과 축제를 함께 했다.

축제장을 찾은 이천생활문화추진단 성인, 학생, 시민들은 먼저 축제장 입구에 '정말 멋지게 술마시는 이천사람들'이라는 플랜카드가 부착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축제장 곳곳에 걸린 술에 대한 추억 이야기 글을 읽고 감사했다. 그리고 생활문화

추진단의 도움아래 팔목에 에탄올 패치 테스트를 붙여 자신의 알코올 체질 반응 검사를 했다. 에탄올 패치 테스트는 위험체질, 경고체질, 주의 체질 등으로 표시되는데 위험이나 경고 체질로 나올 경우 술을 마실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지만 주의 체질로 나왔어도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함을 인식하게 했다. 또한 축제장에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진행했던 내 생애 첫 술잔이 진열되어 있어 술잔을 빚은 청소년 및 성인들은 각자 자신이 빚은 술잔을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 마주하였다. 술잔을 찾아 둥그런 원탁 테이블에 청소년과 어른 등 8명씩 한 조를 이루어 앉았다.

원탁테이블 중앙에는 동그란 분청사기 쟁반에 산수유 정과, 무정과(게걸무는 정과로 만들기에는 다소 딱딱하여 먹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 시도를 못했다고 한다), 아몬드, 은행, 소고기 육포가 놓여있었고, 개인마다 네모난 나무 쟁반에 위와 같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집에서 직접 빚은 국화주와 식혜가 백자 술병에 담겨 있었다.

2시부터 시작된 축제는 성인과 청소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아리랑으로 축제의 문을 열었다. 성인팀은 이천아리랑을 배웠지만 청소년팀은 시간적인 어려움으로 배우지 못하였다. 참석한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후렴구를 함께 따라 부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 뒤를 이어 길놀이 공연으로 흥을 돋았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같은 조원들끼리 일어서서 배려하는 인사말을 한 마디씩 건네며 얼굴을 익혀가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축제가 진행돼는 과정에서 조병돈 이천 시장을 비롯하여 내빈들은 술에 대한 에피소드로 인사말을 갈음하는 등 청소년들과 시민들과의 관계를 좁히는 노력을 했다. 그 내용은 젊었을 때 부모님께 주법에 대해 배웠으나 취직을 하게 되고 회식문화를 알게 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됐는데 우주가 도는 경험을 했고 또한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주법이 있으니, 우리 이천 청소년들은 어른들에게 제대로 된 주법을 배워 풍류와 멋이 있는 이천스타일의 음주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뒤를 이어 유광렬 전 이천문화원 원장은 술을 많이 마셔 땅이 도는 경험을 했다며 이번 기회에 바르고 건전하고 음주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명호 이천문화원 원장은 직장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잤는데 깨어보니 옷을 벗고 있었다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있었다며 술은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이롭지만 과음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행사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생활문화진단인 송명자 생활문화디자이너는 그간 시민모임의 토론과 토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만든 음주문화를 발표하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음주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고 성인은 국화주, 청소년은 식혜를 각자 빚은 도자기 술잔에 따라주고 건배를 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술 따르는 예법과 이천스타일의 음주 예절을 알려주고 청소년들은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축제는 이천생활문화추진단원의 특별공연인 '나의 술 이야기' 퍼포먼스와 청소년팀 여학생의 보랏빛 향기 노래, 남학생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휘파람 공연 등의 풍류가 있고 멋이 있는 술자리로 무르익었다. 2부에서는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하는 게임으로 진행하였다. 6행시 짓기를 통해 각 조원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6행시 짓기를 할 때는 선물을 받기 위해 더욱 열정적으로 준비를 한 조도 있었으나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술이 매개체가 되어 웃고 즐기며 아이디어를 모으는 행복하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참여자들은 말했다. 6행시 가운데 '이렇게 살기 좋은 이천에서 천고마비 계절에 의미 있는 음주문화를 주선해주신 이천문화원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은 참여자들에게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이동준 이천문화원 사무국장의 작(酌)!에 대한 강의로 축제가 마무리 됐다.

2.내 생애 첫 술잔은 이제 시작!

▶'술은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기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또 인류가 수렵활동을 하던 원시시대에 식물과 과일 등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효모와 섞여 자연적으로 발효되면서 생긴 액체를 인간이 마셨는데 그 황홀한 맛에 이끌려 인간이 계속 만들어 마셨다. BC 9000년 경 신석기시대에 포도가 발효되어 술이 되었고 그것을 인류가 마시기 시작한 최초의 술이다.'라는 등 술에 대한 기원은 다양하다.

우리나라 술이 언제 처음 제조되었는지 기원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한다.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과의 투쟁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하여 술에 대한 이야기와 양조법이 중국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술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은 『고 삼국사기』로서, 고구려를 세운 주몽(동명성왕)의 건국설화이다. 이 설화로 비추어 보아 우리나라의 술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사업과정을 통해 봤듯 술은 인간의 역사와 따로 볼 수 없는 식품이다. 이런 술을 매개로 하여 짧은 기간 동안 '내 생애 첫 술잔'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술이 매개체가 되어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들고 그에 연장선으로 가치와 브랜드까지 만들 수 있다는 처음 취지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술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따라 문화가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천문화원과, 이천시 원목회원들, 학생들에게 체험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학교 관계자님과 교사와 학부모님들,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참여해준 이천생활문화추진단과 생활동아리회원, 생활동아리 강사, 이천시민, 김영현, 송하원, 김성진 생활문화플랫폼축제기획팀, 주성진 생활문화플랫폼 코디네이터, 기사로 홍보를 해주신 지역 신문 등이 함께 하여 가능했다. 또한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천의 음주문화를 새롭고 건전하게 만들어 가자는데 마음과 뜻을 모으고 공감하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서로 협력하고 행동했기에 가능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숙제는 많다. 이천스타일의 음주문화, 주법에 대해서는 시민들 생각을 더욱 모아야 하고 이천지역 생활문화자원을 찾아내어 문화로 만드는 등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도 많다.

이천문화원은 생활문화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진 이천의 인문학적 브랜드 '내 생애 첫 술잔'이 삶속에 녹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내 생애 첫 술잔'진행 상황을 각 지역 생활문화플랫폼의 사례와 공유하고 보다 발전적이고 의미 있는 지역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내 생애 첫 술잔은 이제 작은 씨를 뿌렸다. 그 씨앗은 햇볕과 비, 땅속 양분 등을 먹으며 싹을 틔우고 자랄 것이다. 나비와 벌, 바람 등을 만나 꽃을 피우고 어느 날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열매는 또 씨앗을 땅에 떨어뜨리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리라 믿는다. <끝>.

활동가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은 가능한가?
|
시흥문화원

2016 시흥문화원

생활문화플랫폼

차례

- 사업 영상
- 사업 설명
- 사업 진행
- 사업 평가

사업영상

사업설명

경기생활문화플랫폼 이란?

경기지역의 생활문화 거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문화적 소통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경기도의 생활문화를 육성하고 활성화 한다.

시흥문화원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문화플랫폼을 알리고 생활문화프로그램의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흥시에 숨어 있는 달인을 찾아서 생활 문화 전반의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설명

상수를 찾아라?

"**인생도처유상수**(人生到處有上手)"다. 인생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상수(고수)를 일컬은 말인데 우리 시흥에 상수를 찾아 강좌를 개설한다.

함께하자!

상수와 함께 강좌를 듣는 사람들이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확대하고자 학습과 친목을 도모한다.(워크숍)

즐김과 나눔!

다양한 생활문화를 나누고 함께한다.(생활문화축제)

사업진행

#모이자!

사업진행

#상수를 찾아라!
나만의 문패 만들기

사업진행

#상수를 찾아라!
생활요리

사업진행

#상수를 찾아라!
우리춤, 경고춤 배우기

사업진행

#함께, 즐김과 나눔!
워크숍, 축제

사업평가

긍정적 효과

- 참여자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고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였다.
-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관심과 실천을 이끌다.
- 주민소통과 자발적 참여의 장을 열다.

앞으로의 고민

- 주민 참여 기획 확대(기획, 운영)
- 기획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참여자에 대한 조력(홍보, 멤버십 형성, 사업 지속 등)

여 백

문화원 활동, 동네 골목으로 나가다
|
남양주문화원

2016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및 축제
성과보고서

2016. 12

남 양 주 문 화 원

2016남양주문화원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및 축제

Contents

Ⅰ. 배경과 성과 3

Ⅱ. 사업개요 6

Ⅲ. 세부사업내용 16

Ⅳ.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23

Ⅴ. 활동사진 27

2016 남양주문화 생활문화플랫폼 "**지구마을 공작소**"

Ⅰ. 배경과 성과

Ⅰ. 배경과 성과

2016 남양주문화원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및 축제 "**지구마을 공작소**"
생활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다.

시작, 생활문화의 다문화세계를 바라보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들은 비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의 일상과 더불어 어느새 우리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다문화생활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의 생활문화의 모습이 비추어진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현대의 다양한 생활문화는 우리 일상의 모습 조차 변하게 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와 집단과 어울리며 즐기는 삶의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인터넷, SNS, 매스컴 등 새로운 소통의 방식들을 바탕으로 삶의 영역들이 확대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올바른 관계 맺음'과 생활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날로 우리생활 깊숙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 다문화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은 어쩌면 우리 생활문화의 또 다른 모습으로의 변화와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으며 그 모습을 함께 들여다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은 큰 의미가 있다.

생활문화 속에 숨은 다문화 활동

"지구마을 공작소"에 담겨 있는 각각의 생활문화를 찾아 함께 느끼고 호흡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은 지구마을 공작소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 취지이며 최종적인 목표이었기에 수없이 되새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다문화의 일상들이 우리의 일상과 다름이 아닌 현대인의 삶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생활문화로 자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더욱 재미있고 즐거운 다양한 생활문화를 만들어감에 지구마을 공작소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다양한 문화에서 탄생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통의 놀이를 찾아서 체험하고 함께 하는 동안 어느새 하나가 되고 공감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을 자아내기도 했던 것이다.

2016, 생활문화에 다문화의 색을 입히다.

"다문화를 통한 생활문화플랫폼 구축"

생활문화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담되 그것이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수성을 통해 구현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생활문화의 특성화라는 또 다른 목표 구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담아 생활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써 남양주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남양주지역의 생활문화디자이너들이 새롭게 구성한 프로그램을 살펴보자. 남양주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인구의 증가로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의 모습을 "지구마을 공작소"를 통해 참여하는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함께 느끼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고 또 우리의 생활문화로 재탄생 시키면서 다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생활문화를 체험하며 알아보는 알찬 시간으로 꾸며지게 되었다.

남양주 생활문화플랫폼 "지구마을 공작소"를 통한 다문화와 함께 우리의 일상을 만들다.

사람들은 누구나 놀이를 즐기며 살아간다. 놀이를 즐기는 까닭은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이다. 다양한 놀이와 함께 펼쳐지는 생활문화의 즐거움은 일상생활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힘찬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다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외면만할 때 생활문화 자체가 부담이 되면 그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너무 어색해서 생활이 불편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활문화는 누구나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외국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다양한 생활문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생활문화를 잘 소통하며 함께 만들고 호흡해가는 모든 행동에서 자연스럽기도 혹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이도 분명 존재한다.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을 통한 현대인의 다양한 생활문화에서는 다문화와 함께 우리의 일상의 생활문화로 발전시키고 소통하며 관계를 맺어 나가는 자연스러움으로 자리잡고 발전할 것이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서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음은 세계화의 단면이 아닌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와 있는 것이다.

2016 생활문화플랫폼 "지구마을 공작소"

Ⅱ. 사 업 개 요

Ⅱ. 사 업 개 요

1. 사업명 : 남양주생활문화플랫폼 **"지구마을 공작소"**

2. 목 적

1)현대사회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생활문화에 대하여 재미있고 창의적인 접근과 생활문화 콘텐츠를 통한 실용적인 체험과 소통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2)다문화와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문화에 대한 공동체성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함과 동시에 생활문화의 다양한 방법론적 인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생활문화 디자이너 및 활동가들을 양성하여 각 지역 내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3)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재구성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통해 현대 생활문화에 적합한 다양한 활동과 체험 및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3. 개 요

1) 사업기간 : 2016년 8월 ~10월 29일

2) 주최/주관 : 남양주문화원

3) 컨 설 팅 : 전문단체

4) 후 원 : 경기문화재단

4. 사업방향의 선정

1)사업 프로그램의 발전적 성취

-생활문화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합하고 사업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생활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킨다.

2)지역 중심의 자체 사업진행을 가능케 하는 토대와 여건 마련

-경기문화재단 중심의 사업운영 체제에서 향후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각 지역별 강사 양성의 실질적 성과를 획득한다.

3) 지역문화원 중심의 지속적인 사업 확대와 지원방식 구축

-향후 본 사업이 각 지역 문화원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경기문화재단-지역문화원" 간의 협력/지원망을 구축하며 효과적인 사업 모델을 도출한다.

【연차 별 사업추진현황】

사업단계	연 차	주 요 추 진 내 용	비 고
시 범	1~2년 차 (2016~2017)	◦ 사업 프로그램 시범 및 현장 적용	
보 급	3~4년 차 (2018~2019)	◦ 지역별 강사 양성 및 지원	
확 대	5년 차(2020~)	◦ 지역별 프로그램 특성화 및 지원	

5. 2016 사업추진 개요

1)2016년도 사업 추진개념

(1차 과업) 강사 양성과정 / 예비강사 발굴

⇕

(2차 과업) 지역별 강사들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2) 사업 대상 선정 및 방향제시

- 사업대상 : 남양주문화원
- 강사 양성인원 : 8명 내외
- 사업대상/인원 : 지역 내 다문화 가족 및 시민 자율모집 150명
- 사업장소 : 문화원 또는 별도 공간(야외 공원 등)

☞프로그램 별 여건 및 사업대상과 인원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3)사업 추진단위 및 역할 분장

구 분	담 당 기 관	주요 역할 분장
총 괄	경기문화재단	○사업 총괄 및 지원
주 관	남양주문화원	○ 강사 모집 및 관리 ○ 사업 기획/진행
컨설팅	전문가	○ 워크숍 및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4)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 과업 설정

구 분	과 정	담 당 기 관	주 요 과 업
1 단계	사업총괄	경기문화재단	사업총괄
2 단계	프로그램 연구/개발/기획	남양주문화원	프로그램 개발/기획 강사/예비강사 발굴
3 단계	강사모집	남양주문화원	프로그램 별 3인 내외
4 단계	기획/강사 워크숍	경기문화재단 남양주문화원	생활문화플랫폼 사업내용 연합 워크숍
5 단계	현장진행	남양주문화원	프로그램 별 진행/관리 예비강사 발굴/관리
6 단계	사업성과도출 성과보고	남양주문화원	사업성과도출 및 결과보고

6. 기획 및 강사 워크숍 참여인원

1) 기획/강사 워크숍 운영

구 분	지 역	일 시	대 상	인 원
지역별 워크숍	남양주문화원	1차:7월10일(월) 13:00~15:00 2차:8월 16일(화) 11:00~13:00	강사/예비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7 명 6 명
방문 컨설팅 회의	남양주문화원	9월 12일(월) 14:00~16:00	강사/예비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8 명
통합 워크숍	경기문화재단	6월 8일(수) 16:00~18:00 9월 20일(화) 14:00~17:00	강사/예비강사 프로그램 기획자	6 명

7.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내용

1) 지역별 워크숍 교육내용

구 분	내 용	대 상
1차	.사업소개 .생활문화플랫폼 사업배경 설명	.프로그램 진행 강사 .예비강사
2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토의 .진행방향 토의	.프로그램 진행 강사 .예비강사

2) 통합 워크숍 교육내용 및 진행

시 간	주 제	내 용
13:30~14:00	등록	.참가자 확인
14:00~14:10	환대와 인사	.요는 인사/일정 안내
14:10~15:00	생활문화, 꿈꾸다	.축제 안내 및 질의응답
15:00~15:20	휴 식	
15:20~17:00	생활문화, 만나다	.그룹별 컨설팅 진행(1그룹당 4개 단체) .진행과정의 어려움 공유 및 협력기획 논의
17:00~17:20	생활문화, 모이다	.각 그룹별 토론 내용 공유 .상호컨설팅/상호학습
17:20~	마무리	.컨설팅 마무리 후 자율 귀가

8. 생활문화플랫폼 사업 프로그램 개발

구 분	영 역	소 재	담 당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다양한 다문화관련 생활문화 프로그램	의.식.주 / 놀이 등	다문화 강사
전통문화 관련 프로그램	전통 놀이/그림 등	전래놀이/12간지 그리기 체험 등	담당 강사

9. 기대 효과

1)2016년에 추진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합하고 생활문화플랫폼 활동을 최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발전적 성취

2)강사양성 워크숍을 통한 지역강사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 중심의 자체 사업진행을 가능케 하는 토대와 여건 마련

3)생활문화의 문화콘텐츠를 좀 더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예비강사 발굴 및 활성화

4)좀 더 다양한 다문화생활문화의 일상적 실천과 체험의 기회 확대로 생활문화의 발전과 네트워킹 실현

2016 생활문화플랫폼 **"지구마을 공작소"**

Ⅲ. 세부 사업내용

Ⅲ. 세부 사업내용

1. 단계별 사업 추진

1) 1단계 : 사업기획
(1) 사업 필요성 검토
-자체 사업진행 관계자 및 문화원 실무자와의 사업 필요성 공유
(2) 2016 사업 필요성 및 방향 설정
-생활문화플랫폼 시범사업 내용 이해 필요성 인식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한 사업 실현 및 분위기 조성
-현대 사회에서의 생활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다양한 문화컨텐츠 활성화 필요

추진단계	일 정	추 진 내 용
1. 사업기획	6월	.사업방향 설정 및 사업계획 수립
2.주관선정	7월	.공모사업 응모/사업 선정
3.강사모집	7월	.프로그램 활동강사 모집
4.강사양성	7월~8월	.자체 워크숍 진행 .통합 워크숍 진행
5.프로그램구성	8월	.프로그램 개발 확정 및 구성
6.프로그램진행	8월~10월	.일정 별 자체 프로그램 진행
7.평가/보고	11월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8.추후보완	11월~	.향후 사업계획 수립

17

(3) 사업진행 단체 선정
-사업 성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사업주관 단체 선정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이해와 현실적 진행으로 다양한 성격의 실행 단체 발굴 및 사업진행

2) 2단계 : 공모사업

(1) 공모사업 선정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사업추진 단체 및 프로그램 선정(경기문화재단 공모사업)

(2) 사업 프로그램 보완/확정
-자체 및 통합 컨설팅과 워크숍을 통한 사업진행 방향을 이해하고 최종 프로그램 확정

3) 3단계 : 강사모집
(1)진행 강사모집
-프로그램의 주제와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취지와 목적 안내 후 자발적 참여구성
-프로그램 별 3 명 내외

4) 4단계 : 강사양성

(1) 자체 워크숍 진행
-자체 강사양성을 위한 기초 워크숍 진행(1차/2차)
(2) 통합 워크숍 진행
-자체 워크숍을 토대로 남양주문화원 해당 전체 강사 참석
-주최측의 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진행 실습을 바탕으로 사업내용 이해 및 보완

18

5) 5단계 : 프로그램 구성
(1) 자체 프로그램 재구성
-양성된 강사진을 중심으로 워크숍에서 제시된 사업취지 및 배경을 이해하고 지역의 특징과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2) 지원 및 보완
-컨설팅 담당자와 함께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및 재구성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 지원 및 보완 실시

6) 6단계 : 사업진행
(1) 프로그램 별 진행
-담당 강사와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며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발전시킴
-예비 강사 발굴에도 관심 갖고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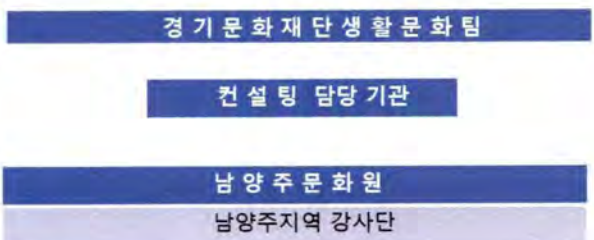
(2) 다문화 강사에 대한 사업 취지와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감
-다문화 프로그램 담당 강사에 의한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
-추가적인 예비강사 발굴

(3) 결과 보고서 제출
-전체 사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7) 7단계 : 사업 성과보고
(1) 사업보완
-사업 종료 후 강사단 평가 및 보완점 도출 후 적극적 보완에 임함
(2) 성과 보고서 제출
-사업 주관단체의 성과보고서 제출(남양주문화원 생활문화플랫폼 "지구마을 공작소")

2. 사업체계 구성

1) 사업체계



2)주요 업무분장

기관 및 단체	주요업무
경기문화재단	.사업 총괄 및 지원
남양주문화원	.사업계획수립/프로그램 진행/확산 .강사 모집 / 관리
컨설팅 담당	.사업 컨설팅 지원

3. 사업 진행 방향

1)프로그램 구성의 방향 제시

(1)자기주도적 활동 : 생활문화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아닌 각각의 특색이 담긴 활동을 다양한 현대 생활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펼쳐 봄으로써 생활문화의 현장감 있는 공감대 형성과 체험 활동

(2)직접적인 체험활동 : 다문화 별 생활문화를 다문화 강사에 의해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문화소통의 관계를 형성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

2) 남양주문화원 프로그램

구 분	프로그램	주 요 내 용
지구마을 공작소	중국 공작소 / 2시간	중국 판소리 경극을 감상하며 주인공 가면을 직접 만들어 봄
	일본 공작소 / 2시간 미국 공작소 / 2시간 멕시코 공작소 / 2시간 전래놀이 / 2시간 12간지 그리기 / 2시간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를 체험하며 전통 춤을 함께 추어 봄 미국의 대표 축제를 알아보고 함께 체험 멕시코 전통의상을 체험하며 전통 춤을 함께 추어 봄 전통놀이를 함께 체험하며 소개함 12간지 띠 별 그림을 직접 그리고 체험
축 제	지구마을 공작소 축제 한마당 / 2시간	지구마을 공작소 별 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와 함께 체험하고 소통함

4. 프로그램 일정 및 대상

(1)프로그램 구성

-다문화의 전통과 생활문화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함

-보다 많은 다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기 위해 지구마을 공작소를 편성하여 진행

(2) 세부 진행일정 및 대상

구 분	일 시	장 소	인 원
중국 공작소	8/20(토) 14:00~16:00	남양주문화원 소강당	15 명
일본 공작소	9/10(토) 14:00~16:00	남양주문화원 문화교실	22 명
미국 공작소	8/24(수) 14:00~16:00	남양주문화원 소강당	15 명
멕시코 공작소	10/01(토) 14:00~16:00	남양주문화원 소강당	17 명
12간지 공작소	10/08(토) 14:00~16:00	남양주문화원 문화교실	20 명
전래놀이	10/20(목) 14:00~16:00	야외공원	25 명
생활문화플랫폼 축제 "지구마을 공작소"	10/29(토) 13:00~15:00	호평역 광장	1500 명
계			1614 명

2016 생활문화플랫폼 "**지구마을 공작소**"

IV.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IV.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1. 사업 추진성과

1)2016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합하고 생활문화를 보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적 성취

사업단계	연 차	주 요 추 진 내 용
시범사업	1년차(2016년)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예비강사 발굴
보 급/활성화	2년차(2017~)	.사업 보급 및 활성화 .지속적 강사 발굴

2) 강사양성 워크숍을 통한 지역강사들의 역량 강화 및 지역 중심의 자체 사업진행을 가능케 하는 토대와 여건 마련

(1)향후 지역문화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하여 각 지역별 강사 양성의 실질적 성과를 획득함

3)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문화콘텐츠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진행함으로써 참여 및 성과 확대

(1) 다층적인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강사들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체화하고 사업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지역별 특성 및 강사단의 역량을 집중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편성/운영

☛남양주문화원(지구마을 공작소)

4) 지역 중심의 자체적인 생활문화 활동의 활성화 유도
(1)생활문화의 다양한 활동과 활용에 관한 인식을 확대하고 또한 생활문화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문화소통의 가치 공유 확대로 점진적 활성화를 유도함.

5) 다문화의 다양한 장르 소재를 통한 생활문화 활동으로 참여 활성화 및 인식 변화
(1)다양한 생활문화 소재 및 콘텐츠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활문화에 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유도하고 현대 실생활에서 미처 자각하지 못한 다양한 생활문화를 공유함.

2. 프로그램개발 성과

1)지역의 생활문화적 요소가 깃든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생활문화 프로그램 구성과 진행을 위한 전문적인 강사 양성과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 능력과 현장진행 능력을 향상시켜 자체적인 프로그램 재구성 단계를 통하여 점진적 확대 및 활성화를 마련.

2)전문 / 예비 강사양성 기틀 조성 및 자체적 시행의지 확대
-생활문화 사업취지 인식확대 및 강사양성 기틀 조성을 통한 다양하고 활발한 자체 사업의 시행의지를 확대하였음.
3)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실습중심의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전문강사와 지역 거주의 다문화 강사에 의한 사업진행으로 현장 중심의 실습형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사업 활성화 및 예비강사 발굴.
4)다문화의 다양한 생활문화 콘텐츠 개발
-다문화적 특성화 소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 진행
-다양한 다문화의 일상을 현대인의 생활문화로 공유하고 자발적 참여와 소통의 기회 마련.

3. 개선 및 건의사항

(1) 지역별 강사양성 확대 및 지속적 지원 요청

-지역별 지속적인 사업 실시를 위한 강사 컨설팅 실시 및 향후 강사양성 확대 요청

(2) 본 사업에 대한 향후 확대 실행 / 지속적 시행 요청 다수

-사업 종료 후 담당 강사 및 참석자 면담 시행을 통해 본 사업의 가치와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생활문화를 통한 문화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에 대한 호기심과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3) 다문화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현장 수요의 부응 필요

-다문화의 특성과 생활문화를 컨셉으로 계획된 본 사업의 경우 현장의 적극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더욱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발 필요

-다문화와 우리의 일상이 생활문화가 되는 사업으로 확대 및 활성화 필요

2016 생활문화플랫폼 "지구마을 공작소"

V. 활동사진

다문화 음식 체험

생활문화 축제

2.중국 공작소 프로그램

경극 가면 만들기 체험

만들기 체험

29

3. 미국 공작소 프로그램

미국 축제 소개

만들기 체험

30

4. 일본 공작소 프로그램

기모노 체험

일본 전통 음악 / 춤 체험

5. 멕시코 공작소 프로그램

멕시코 전통 춤 체험

전통의상 체험

6. 12간지 공작소

12간지 그리기 체험

12간지

33

7. 전래놀이 공작소 프로그램

전래놀이 체험

전래놀이 체험

34

8. 축제 장면

개막 난타 공연

강강술래 놀이

35

다문화 음식 체험

드림케쳐 만들기 체험

36

축제 장면

체험장면

37

전래놀이

미국 축제 체험

38

강좌활동의 적극적 확장,
관계가 문화가 되다
|
의정부문화원

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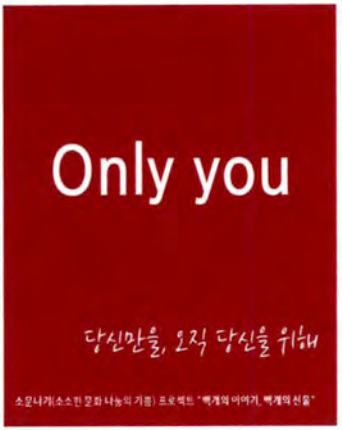
의정부문화원

Contents

01. 사업 소개 영상
02. 사업 설명
03. 사업 진행
04. 사업을 마치며…….

#02

사업 설명



의정부문화원의 생활문화플랫폼 참가
사업인『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 프로젝트」는
45개의 문화학교 강좌와 1,000여명의 회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의정부문화원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생활문화예술
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다.

처음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 지원하며
그간에 지속 되었던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과
별 다를게 없을 것이라는 부담 없는 생각은
첫 번째 워크숍에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생활문화예술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화에 예술교육의 옷을 입히는 작업」이었다.

#02
사업 설명

『소소한 문화 나눔의 기쁨』사업은 우리문화원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던 우리들의 소소한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선물이란 도구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시민들의 이야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선물을 해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면 그 사연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처음 공고를 내고 홍보를 시작하였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시민들이
우리의 사업을 이해하고 동참 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많은 걱정과는 반대로 많은 분들이 참가 의사와 함께 다양한
사연을 보내왔다. 물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했다기 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오는 환상이 그들의 시선을 잡은 것이라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02
사업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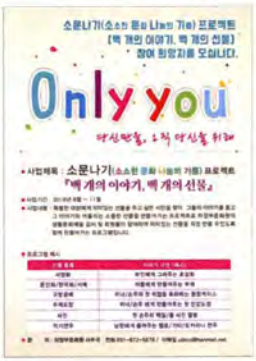
100개의 선물을 만들어가는 100명의 선물단에는 그들의 이야기가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의 열정이 단연 최고다.
그 동안 문화원에서 진행해온 문화예술 강좌에 참가하는 분들도 열정이
가득했지만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이들은 좀 특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통해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런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또 공감해가는 문화공동체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다.

아직은 어설프고 또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우리 의정부문화원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활문화예술 사업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기에 다음이 더욱
기대되는 작업이었다.

2016년 11월 20일 오후3시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서 이번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할『백 명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선물단』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콘서트에는 100명의 선물단과 100명의 선물을 받을 대상자들이
같은 자리를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지해주며 그 동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하나가 되는 문화공동체 즉 문화가족이 된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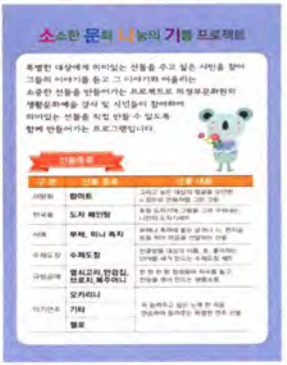
#03
사업진행

▶ 참가자 사연 모집



▶워크숍개최및참가자의견수렴

▶ 선물종류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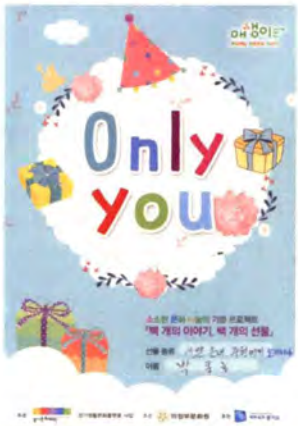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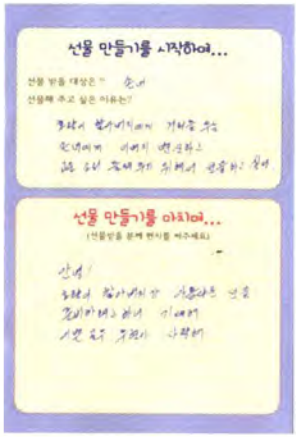
#03
사업진행

▶소문나기 프로젝트 선물만들기 수업 모습

#03
사업진행

▶매주 작성하는 선물일기





#03
사업진행

▶매주 작성하는 선물일기

#03
사업진행

▶소문나기프로젝트 콘서트 "백 명의 이야기가 있는 문화선물단"

#04
사업을 마치며…….

사업을통해얻은긍정적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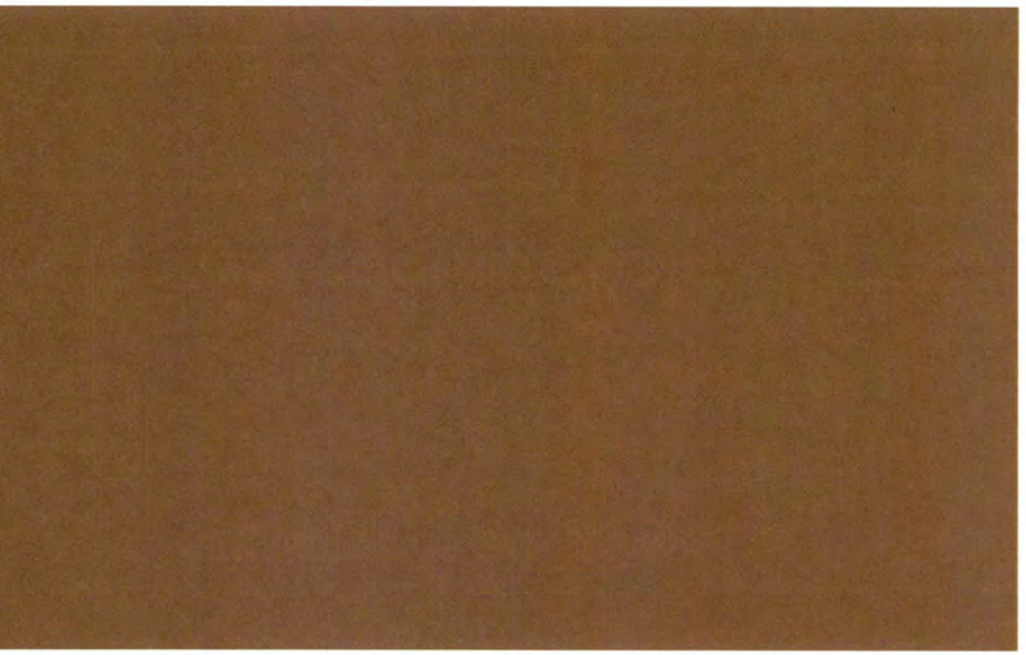
- 선물 만들기 과정을 통해 참가자 본인이 문화를 생활화
- 참자가와 선물 받을 대상과의 직,간접적 교감 증가
- 함께 선물 만드는 참가자들끼리의 멤버십 형성(새로운 관계 형성)
- 선물을 매개로 사업 참가자 주변인에 문화적 경험을 전파

향후 과제

- 사업참가자 간 멤버십 형성을 기획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력→사업 종료 후에도 참가자들이 문화생활을 지속해나갈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축제 당일 무대 위에 오르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참가자들이 있었음
  → 참가자와 피참가자의 구분 때문이라고 판단
  → 축제 진행 내용 및 발언권 등의 비율을 조정하여 사업참가자와 선물 받을 대상의 경계를 허물어 해소

여 백

04 문화원 활동에 대한 재점검과 가치부여하기



여 백

경기도 지방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 시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제언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전고필

목 차

1. 들어가며
2. 현 시기 문화 소비 현장의 경향성
3.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의 의미
4. 4개 문화원의 시범 사업 시행 현황과 발전방안
   1) 동두천 문화원의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생활문화사업의 활성화 모색
   2) 용인문화원의 통기타 동아리 네트워크 확장성 모색
   3) 평택문화원의 동아리 지원 허브로서 문화원 역할과 방향
   4) 화성문화원의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 동아리를 통한 전승 추진
5. 나가는 말

1. 들어가며

문화의 세기를 주창했던 21세기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다. 외부적 변화의 요인에도 성질자체가 변화로부터 독립적이었던 장르예술은 이제 생산자와 마니아층에 의해 존립된다고 할 정도로 삶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다. 파격적이다 시피 한 이 현상을 만든 원인은 무엇보다 생산양식과 주거양식의 변화라고 하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농경과 유목과 해양으로 분류되던 인류의 삶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변화했다. 기계문명의 발달은 인류가 사용하는 도구들을 인간의 손에서 공장의 기계로 옮겨왔다. 인간에게 잉여의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감은 공허했다. 살아가기 위해 종사해야 할 노동시간은 증대되었고, 쓰여 져야 하는 것들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살기 위해 구매해야 할 것이 늘어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주지도 도시 속으로 편재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1차 산업을 통해 생존하던 시대의 의식주 양식이 산업화로 인해 변화된 것은 수천 년 간 인류를 지탱하던 사회구성체의 재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구성체의 재편이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한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 변화하지 않는 예술의 성격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감성과 정신적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술도 본질적 가치는 변화하지 않지만 형식과 표현의 양식에서 새로움을 요구받고 있고, 스스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창조와 융·복합을 통해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 진행 중이다. 예술을 담아내는 총체라 할 수 있는 문화는 더욱 포괄적 의미망을 획득하고 있기에 더더욱 급변하고 있다. 예술이 고전적이라고 한다면 문화는 시류와 조응하는 유행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속도감을 가지며 우리 생활 곳곳으로 찾아오고 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지방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기실 어리석은 일이다.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이나, 인구통계학적 차이, 문화원의 입지 조건, 문화원 구성인자의 개별성과 특수성, 지역사회의 문화생산력과 요구 등에 의해 저마다의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몇가지 예외는 있다. 대부분의 문화원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은 한국문화원연합회의 공모사업, 광역문화재단의 공모사업, 자체 회비나 기금을 활용한 사업 등에서 당해 사업을 운영하며 각각의 차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운용하는 것의 성격은 사업주체의 의지 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점에서 취약점을 갖는다. 문화원이 갖는 고유한 가치와 역할은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창달을 위한 사업 등으로 크게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 문화교류와 문화예술교육, 다문화가족 문화활동지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광의적 해석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전반에 대한 모든 사업에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문화원 운영진의 실행의지, 지역상황의 변화와 요구 등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는 경우가 내재적인 요인이고, 외부적 요인으로는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의해 현장 문화원의 의지와 관련 없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실제 20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온 연합회의 '어르신'관련 일자리, 동아리, 봉사단 등의 사업으로 전국 문화원의 힘이 쏠린 것은 그에 상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이 부정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이 지닌 문화생태의 환경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정책 결정으로 인해 특정 세대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은 그간 문화원이 지역에서 문화관련 원로들만의 특정화된 거점이라는 인식으로부터 한발자국도 진일보하지 못하고 되려 쐐기를 박는 현상이었다는 점은 주목해 봐야 한다.

물론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되는 인구변화의 추이와 맞물려 나이든 세대에 대한 문화접근성의 신장, 삶의 경험을 문화적 가치로 확장하고 공유하는 것, 삶의 질 향상, 문화 창조력의 강화 등에 있어 긍정적 요인도 탑재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지역문화현장의 변화속도는 문화원이 이 사업에 매달리는 동안에 상상 이상의 진행을 해 가고 있었다. 특히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설립 사업,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한 공연지원사업의 강화, 생활권 문화시설의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의 개소,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의 추진, 생활문화동아리의 협회 설립 준비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중 생활문화와 관련한 시설지원과 조직화 등은 생활문화를 기반으로 일련의 활동을 전개해온 문화원에 있어서는 그 결실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원의 주이용자이자 지지자면서 지역문화 창조세력을 떠나보내야 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는 국면이 된 것이다. 지역문화의

불모지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며 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하며 흘렸던 땀의 결실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한 노력이 다른 차원의 조직으로 습합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 봐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간 지역문화의 생태계에 대한 관점이 너무 문화원 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1990년대 말 21세기 문화의세기가 온다는 준비기제로 태동한 생활문화근린시설 문화의집과 같은 경우도 지역문화생태계에서 모호한 존재감으로 그치게 말았던 상황. 작금에 광역문화재단이 등장하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원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데 그치지 않고, 기초문화재단까지 등장함으로서 지역관련 사업에 있어 비중이나 활동력이 약화되거나 고립됨을 느껴야 하는 지경에 이른 사실은 그야말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안될 외부적 환경에 맞딱 드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문화원이 갖는 우수한 특질은 여전히 건재하다. 무엇보다 지역의 속살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 지역의 인력, 지역의 자원, 지역의 재원, 지역의 문화, 지역의 환경, 지역의 요구 등에 제일 먼저 응답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역량과 영향력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를 오늘 시대에 부응한 생활문화 동아리 사업의 시범사업 몇 가지로 풀어 내보는 방식은 비단 경기도 지역에만 국한한 일이 아니라 전국 차원의 문화원에서 함께 제기하고 실행하고 분석해 봐야 할 일이라 여기며…

2. 현 시기 문화 소비 현장의 경향성

문화와 관련한 시장의 범주를 장르예술을 떠나 광범위한 소비현장의

트렌드를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시대의 상황 자체가 장르간의 융복합을 통한 창조의 시대이면서 유행에 민감하고 자신이 지닌 특질을 발견하고 공감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일상화 된 시대이기 때문이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경향성으로 문화에 접근하고 실천하며 결과를 생산하게 되는지와 유통 소비되는지는 문화원과 같은 문화현장에서 어떤 내용과 형식을 통해 담아내고 확대 재생산할 것인지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기획하는데 매우 유용하리라 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장앤파트너스그룹의 연구 결과를 보면 2016년의 문화트렌드는 크게 열가지로 보고되고 있다.[37]

첫째는 해시테그 세대로서 큐레이션을 통해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덕후, 혹은 오타꾸라고 말하는 신종 마니아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시대이다. 각자만의 개성 있는 일과 놀이를 통해 세상과 만나는 방식이 전개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가 놀이, 즉, 일상이 문화가 되는 시대가 된다. 과거 어느 분야를 전공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전문가가 되던 시대의 양식이 파괴되고 스스로 몰입하며 전문가로 성장하고 사회가 인정해주는 시대가 된 것이다.

네 번째는 예술에 대한 소비가 특정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 사물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의 이행이 빨라진다. 실생활의 곳곳에서 IoT(internet of things)의 활용은 기계나 장비운용에서 인간의 역할이 줄어듦으로서 상대적으로 문화 활동 영역의

확장이 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여섯 번째 모바일 미디어가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과거 공영방송의 시대에서 다채널의 시대로 이행되어 미디어가 발달되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가진 개별 주체들이 독립 미디어 기능을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일곱 번째는 자생을 위한 적극적인 실험과 생산이 새로운 판매 시장을 개척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덟 번째, 리스티클의 확산을 통해 개별적 관심사의 집합이 세상과 공유하는 가치의 확장으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점이다. 어떤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사화 하는 것을 리스티클이라고 하는데 이는 list와 article의 합성어이다.

아홉 번째는 공유문화의 지속과 확장이 증대될 것이다. 쉐어 오피스, 둘러앉은 밥상, 공유허브 등과 같은 사무공간, 장비, 장난감, 주방 등의 생활문화의 나눔과 공동 활용이 증대되며 한국형 모델이 형성될 것이다.

열 번째는 기업이 윤리경영에 대한 가치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핵심이면서 사회적 책임으로서 메세나를 비롯한 CSR에 참여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남혐, 여혐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실현되지 못한 한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 불안감, 남성우월주의 등의 영향도 매우 크며 이로 인해 갈등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화현장에서는 깊게 들여다보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마케팅에서의 트렌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의 소분화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소분시장은 대량생산 대량유통의 사회에서 구입한 제품을 혼자거나 가족이 소비하던 것에서 이웃이나 친구들과 나누어 소비하고 또 신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는 소비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와 신종 상품개발의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는 네오 비트족의 등장이다. 기성세대의 관행적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삶과 문화를 모색하는 세대는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요리나 만들기를 보면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가해서 만드는 새로운 창조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문화의 소비에서도 다른 경향이 나타난다.
이른바 스넥컬쳐라는 문화가 유행하고 있다. 스넥과자를 먹듯이 문화를 소비하는 트렌드다. 과거 다큐 10부작이 나왔다면 전체를 다 보아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짧게 편집한 줄거리나 핵심만 보고도 다큐를 다 본 것처럼 소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카드뉴스와 같은 패턴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바로 SNS를 통한 자랑질에 능숙하다는 것이다. 1인 미디어의 시대에 부응한 자기만의 고유한 생활을 타인과 나누며 공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1인 미디어의 시대에 부응한 개성 있는 표현과 발굴이 타자와 쉽게 공유되는 시대이면서 자기 긍지를 드러내는 방식이 대 유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YOLO의 시대와 병행된다. 관습처럼 살아왔던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You Only Live Once, 즉, 한번뿐인 삶에 대한 자기방식의 실천과 버킷 리스트처럼 열망하는 것을 스스로 도달하고자 하는 개별 가치의 성취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런 환경적 요인과 시대적 변화는 개별 문화원이 지닌 지역사회 내에서의

독자적 위치와 무관하지 않다. 아날로그시대의 문화접촉과 달리 현 시기의 문화는 지역과 거리와 공간에 상관없이 실시간으로 소통되고 공유되며 소비된다는 점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의 시작지점이자 활동의 촉매로서 유효하기 때문이다.

3. 생활문화육성지원사업의 의미

결국 문화의 일상화는 일선 현장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구현되고 있다. 과거처럼 장르 예술만이 문화활동의 범주로 인식하지 않으며 마치 편의점에 들르듯이 지역의 문화센터나 문화시설을 찾고 등록하고 영위하게 된다. 정부의 문화지원정책이 예술진흥을 주력으로 하던 시대에서 2004년부터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은 삶과 만나는 일상의 문화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보다 먼저 문화원은[58] 1990년대부터 문화원 문화학교 지정과 운영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유 및 참여활동의 증진에 초석이 되었다.

1996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문화의집 또한 생활권역에서 문화활동의 접근성을 신장하며 향유와 창작과 공유의 일상화를 꾀하여 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문화원은 복권기금지원사업을 통해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주도하며 91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74개소의 생활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소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실버프로젝트 등을 통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후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사업으로 진화되어왔다. 이후 문화원은 2009년부터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바꾸고 복권기금이 아닌 국고지원사업으로 안정적인 사업으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지역문화의 발전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던 어르신 사업은 그런 긍정적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원의 지역 내 위상을 어르신에 국한한 노년세대의 공간으로 확정하게 하는 한계를 보였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세대단절은 지역문화 생태계에 있어서 문화원의 활동 범주가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움츠리게 만든 원인이 되었고, 그 사이에 지역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은 문화원이 아닌 다른 기관과 시설과 단체 및 개인들이 시행하게 되었다. 물론 이는 지역문화생태계와 지속가능한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수많은 경험과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지닌 문화원이 상대적으로 함께하며 인적 비인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는 손을 쓸 겨를이 없었다는 점은 다시 제고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생활에 기반한 문화향유 및 생산활동을 전개해온 문화원이 생활문화의 핵심 분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통해 겪은 경험과 성취와 애로를 함께 나누며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생활문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보면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를 보면 구역의 범주를 지역으로 하고 있고, 대상은 지역주민, 목적은 문화적 욕구충족이며, 행동은 자발적이면서 일상적임을 담아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술과 생활문화는 변별성을 찾을 수 있다. 예술은 비일상적인 행위로서 특화된 가치를 지닌다면 생활문화는 일상적이면서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2016년 12월 대인예술시장에서 가진 지역문화네트워크 포럼에서 한국문화정책연구소의 김기봉상임이사의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 분석에서 그 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토론자인 고길섶은 생활예술이 주체와 대상의 문제라면 생활문화는 공간과 공동체의 재구성에 관한 문제라고 진단한다. 즉, 생활예술이 탈엘리트주의/탈전문가주의라면, 후자는 탈장르화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석한다. 예술이 전문가에 의한 이행양식과 경향성을 지니고 일정한 공간의 범주를 토대로 이뤄진다면 생활문화는 비전문가인 주민이 특정한 양식과 공간에 구해됨없이 문화적인 행위를 실행한다는 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광호박사는 생활문화를 생활예술, 생활기술, 생활교류, 기타 등으로 범위와 장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생활문화에 관한 담론과 경기도 문화원연합회가 생활문화동아리 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생활문화활성화 정책에 대응하는 지역문화원의 전략이 필요함과 현장 문화원 활동의 재점검 및 가치의 확인 기회를 갖고, 이를 통해 지역생활문화 활성화의 분기점이자 지역간 네트워크의 확산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에 따라 사업은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경기도 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시군 문화원의 대표적 생활문화사례를 선정하고 실행하도록 하였으며, 심포지엄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었다. 9월에 선정된 4개 권역은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확장 가능성을 개진한 동두천 문화원, 기존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 및 네트워크 확장을 모색한 용인문화원, 지역문화예술동아리 지원의 허브로서 문화원의 역할을 탐색한 평택문화원,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해 전통문화의 복원과 전승을 연구한 화성문화원이 그 대상이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현장을 토대로 활동해왔던 연륜과 특화된 문화원의 고유 사업으로 인식하고 이행해왔던 경험을 낱낱이 기록하고 공유하는

자리에 함께 한 것 11월에 있었던 심포지엄이었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보여 지는 한계와 가능성, 정책과의 결합성, 지역 내의 확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4. 4개 문화원의 시범 사업 시행 현황과 발전방안

1) 동두천 문화원의 생활문화센터를 통한 생활문화사업의 활성화 모색

동두천 문화원이 진행한 사업은 생활문화센터라는 거점 공간을 통해 지역생활문화동아리의 왕성한 활동을 촉진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더 많은 커뮤니티를 개설함으로서 공간적 개념을 인적 개념으로 확장하는 사업이었다. 생활문화센터의 지정학적 위치는 구도심과 신도심 사이에 입지하고 있어 시민의 접근성이 높고, 공간의 기능이 커뮤니티 공간과 북카페, 공방, 강좌 운영을 위한 소통방 등이 되어 있어 사용상의 편리성이 보장되는 곳이다. 아울러 물품보관 공간이 있고 커뮤니티 공간은 가변형의 형태로서 복합적인 전시공간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어 기존의 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경직된 분위기 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열린 공간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거기에 건물의 소유주는 고용복지플러스라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보니 전체를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 운영비 등이 절감될 수 있는 강점도 지니고 있다. 2015년 2월 개소하여 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문화의집과 공간의 구조나 운영방식이 유사함을 느낄 수 있다. 평균 이용률은 첫해인 2015년이 월 400여명이었다면 2016년에는 500여명으로 수직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용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이 7가지로 성인문해가 주3회 운영되고,

문인화와 서예가 주2회, 생활사진과 노끈공예, 화요시낭송, 가요교실 등이 주 1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본 활동에 더해 동두천생활문화동호회의 활동 거점으로도 운용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특별한 행사로는 행복누리 행복나눔의 행사를 통해 동호회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촉진한 점도 의미가 있다.

동두천 문화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의 현황을 보면 총 28개의 동아리 432명이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 5명에서 35명 정도가 활동하는 동아리는 확인된 외에도 더 존재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추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현황 속에서 동두천 문화원의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제언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보면

첫 번째는 운영의 안정성이다. 안정적 운영의 기본은 이 분야의 상근인력이 존재하느냐의 문제다. 전국 문화원이 겪는 애로 중의 하나가 바로 운영인력의 부족현상이다. 이로 인해 제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으로 문화원내의 상근 인력이 있고, 부설 사업 개념의 생활문화센터를 두고 있다면 이 곳에도 적어도 2-3인 정도의 인력이 내부 프로그램의 관리와 회원 관리, 네트워크 관리, 시설관리 등을 감당해야 한다. 동두천문화원에서 제기했듯이 이러한 부분은 생활문화지원조례를 통해 법제화하고 안정화 하는데 서둘러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는 재원의 안정성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빠듯한 것은 전국적 현상이다. 그럼에도 삶의 질과 지역의 생활수준을 선도하는 것이 문화분야이다.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창조력을 위한 센터의 안정적 재원은 시설의 업그레이드 뿐만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 개설, 다양한 문화체험 및 생산활동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법제화가 답이지만 법제화의

과정이 어렵다면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의 유치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획력을 가진 실무자와 지역 인력이 함께 도모해야 할 일이란 점이다.

세 번째는 공간운영의 합리성이다. 수고로움이 따르지만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은 안정화 부분에서 힘을 얻되 비워진 공간과 비워진 시간이 끌어들이는 유휴인력이나 예비인력을 견인해내지 못하고 누군가에게는 선점적 공간으로 규정되어 버린다. 전국의 각종 문화시설에 보면 거의 유사한 경향이 보이는 것이 소통의 공간, 체험의 공간에 특정 동아리만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내어주고 다시 운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곳이 많다.

현 사회가 가성비를 가지고 최고효율을 주장하듯 공공시설로서 문화센터 또한 공유지로서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자 준비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내려놓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운영 프로그램의 일몰제 등을 준비하고 시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솔직히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매우 정적이고, 문화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운영해도 그 특색에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한데 이 분야로 프로그램이 고정되고 공간이 독점되어 버린다면 향후 센터는 시대의 변화, 주민의 요구에 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할 수 있겠다. 거기에 더해 공간의 가변성과 변화요인을 효율화해야 한다.

정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면 대중의 인식은 강좌 공간으로 그치고 만다. 다양한 전시를 초대하는 것, 작은 콘서트장을 운영하는 것, 사람책 도서관, 생활기술 수리소나 발표회 같은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단지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친근한 접근력을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첩경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아무나 동아리 실과 같은 실험 공간을 제공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비워진 두 개의 공간을 동아리의 시간표를 통해 특정 요일과 특정 시간대 교대로 활용하는 거점을 두는 것이다. 어렵지 않은 운영이자 개방적 접근 통로를 여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장비 공유실을 운영하는 것이다. 각종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동아리가 지출해야 할 비용이 크다. 이젤, 보면대와 같은 것부터, 빔프로젝터, 드럼, 대북, 전통의상, 조명, 앰프 등과 같이 연습과 발표에 필요한 것을 공유하고 관리하는 거점으로서 생활문화센터의 물품보관실 같은 곳이 운영되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인력 대응설계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즉,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이곳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관계를 맺으며 근력을 강화하고 선배와 전문가들에게 공부하면서 지역을 끌어갈 예비인력으로 성장하는 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곳이나 유사하지만 인구절벽의 한계를 맞닥뜨리는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안전망을 준비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

일곱 번째는 동두천의 지역 특성을 가미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우선되어야한다. 앞서 제기했듯이 어느 지역에서해도 무방한 것이 아니라 동두천이기에 가능한 프로그램이면서 지역민의 자긍심과 향토애를 가질 수 있으며, 이웃을 존중하는 공동체 의식도 담아내는 무언가가 센터에서 발신되었으면 좋겠다.

동두천의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원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실천현장이다. 무엇보다 역동적으로 주민과 근접해서 활동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역의

생활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공간이자 시설이며 조직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간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채우고(소비자가 만드는 수요중심시장) 시민이 다시 가져가거나 나누는 경량화, 바이 바이 센세이션(Bye Bye Sensation)이 필요하다. 비워져 있을 때 드러나지 않은 동아리는 그곳을 향해 더 쉽게 노크할 수 있을 것이다.

2) 용인문화원의 통기타 동아리 네트워크 확장성 모색

용인문화원의 통기타 동아리의 네트워크 사업은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Marketing Segement)를 통한 타킷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구현하는 현상과 유사한 경우다. 2010년 세시봉 열풍으로 인해 음악계의 복고 열풍이 불어왔다. 추억속의 기타 선율이 다시 사람들을 열광하게 한 것이다. 모두들 "왕년"에는 한 가락 했음을 회고하면서 묵혀 두었던 기타를 다시 연주하기 시작했다. 이에 질세라 각종 문화기관과 시설에서는 강좌를 열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이 홈쇼핑을 통해 드러난 경우가 있다. 바로 재봉틀이었다. 과거 혼수품의 필수 품목이었던 재봉틀이 역할을 잊고 집안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것을 수예의 부활과 손의 부활, 적당한 불편함의 감수와 맞물려 일거에 수십만대가 팔리고 홈수예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기타가 지닌 낭만과 운율과 추억과 손의 기억, 사람을 흡입하는 능력 등을 보건데 자생적인 기타동호회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우선 이분들이 택한 것은 강좌를 통해 옛 기억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의 동호인과 어우러지는 수순을 밟았다. 즉, 동호회의 결성이 20여개 정도에 이를 정도로 급격하게 이뤄졌으며 수많은 곳에서 관련 강좌가 이뤄지는

상황이니 향후에도 더욱 많은 동아리들이 구성될 것으로 보여 진다. 지역문화의 중추기관으로 용인문화원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향후 생활문화관련 동아리의 탄생과 발전이 지역문화생태계와 어떻게 결합되고 스며들 것인지에 주목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용인문화원은 강좌의 현황과 동호회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을 지역내에서 권역으로 나누어 교류 활동을 진작하고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여 그 활동 영역 전반을 용인권 전체로 확장하며 통기타네트워크 전체를 망라할 구상을 하게 된 것이다. 생활문화 부분에서 단일 장르에 국한한 것이지만 향후 용인사회 내에서 다른 생활문화동아리도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활문화동아리로 자리 잡는데 활용도가 높은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추진 내용은 2015년 용인기타 동아리에 대한 현황조사를 6월과 7월 두달 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연이어 통기타축제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기흥구, 처인구, 수지구 단위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축제를 열고 후속으로 용인통기타네트워크를 창립하는 것으로 마감하였다. 매우 급박하게 움직이면서도 치밀한 프로세스를 가진 동아리 네트워크 탄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중요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자발적 열망이 컸다는 점이다. 강좌 등을 통해 연마한 연주실력을 나누고 싶어 구성한 동호회에 대한 애정과 더불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녔다는 점에 문화원이 착안을 잘 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강사의 대표와 동호회의 대표에 대한 상징적 의미와 현장

운영능력을 담아낸 조직 구성이었다는 점이다.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런 강좌를 마련한 문화기관이나 시설, 단체 등의 참여가 이뤄지는 구조였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이미 조직은 출범을 마친 상황이다.

세 번째는 지역 간 안배도 순탄했다는 점이다. 주민생활권에 맞게 3개구의 대표성과 현장성을 담아낸 구성이 적정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자체사업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고 응원해 준 점이다. 용인 내부에서만 타오르던 동호회가 인접한 성남과의 배틀을 진행한 점이나 김광석 추모 콘서트를 진행하는데 서로 힘을 합했으며 이것이 커다란 성취감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서 2016년에는 네트워크 조직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수립과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발표회 등을 계획 운영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중요한 것은 문화원의 역할이다. 단순하게 동아리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의지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생활문화동호회의 탄생과정과 성장과정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에 부응하는 매뉴얼을 준비하면서 선도자적 위치가 아닌 조력자이자 동반자적 관점과 행동철학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불어 이 영역에 대한 실무자가 초지일관 바뀌지 않고 동행했다는 점도 지금과 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기반이 된 것이다. 특히 모두가 열망하는 실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마스터클래스의 운영이나 혹은 지역간 배틀과 같은 형태로 응원하면서도 부추기며 끌어가는 테크닉이 군포와 성남, 용인의 생활문화 삼국열전으로까지 진행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실험의 과정과 성장과정이 다른 생활문화 전반으로 준비되어지고 초대하게 된다면 용인의 현장 기반형 생활문화동아리의 성장과 네크워크를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구축은 문화원이 구심이 되어 더욱 순항하리라 보여진다.

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보일 때 시대적으로 유행하고 주민 참여가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지역의 숙명처럼 안고 가는 동호회나 아직 세상과 만나는 방식에 익숙하지 못한 소규모 동아리. 그것이 생활문화인지 취미나 부업정도의 쭈뼛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망설이는 이들에게 생활문화가 곧 삶의 문화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련의 캠페인과 참여 확산에 힘쓸 일이라 여겨진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입장에서는 열망을 가져도 우선 참여 시간의 미확보, 장비의 구입비용, 공간의 부적절성 등이 제약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미 인지할 터이지만 이런 제약을 타개할 대안을 구축하는 것도 서둘러 진행했으면 한다. 물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용인문화재단이라는 파트너이면서 한편으로는 비등한 관계를 지닌 중간지원조직과 사업상 중첩되거나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말이다. 용인문화원이 통기타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이 타 문화원과도 공유되고 확산되었으면 한다.

3) 평택문화원의 동아리 지원 허브로서 문화원 역할과 방향

평택의 지리적 특색은 송탄시와 평택시, 평택군이 1995년 통합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도농어촌의 복합 도시로서 위치한다. 총인구는 47만 명이지만 권역간 삶의 거리가 멀어 격절된 느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몇 년 전부터 들어온 미군기지라는 지역적 이슈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확장되고 가동성이 높아진 평택항을 지닌 물류의

고장이라는 부가된 이미지도 생성되는 지역이다. 평택문화원이 문화원 고유의 사업과 더불어 병행하는 생활문화관련 사업은 2006년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된 웃다리문화촌의 운영과 2012년 개관한 한국소리터의 위탁운영까지 두 곳에서 집중되고 있다.

한편으로 지역 내에는 문화재단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고, 광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이 안정리의 미군기지 앞 옛 팽성보건소를 거점화하여 예술창작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평택시의 중앙로에 있는 평택남부문예회관에는 평택예총이 입지하며, 평택에서 진행되는 예술행사인 소사벌예술제, 스마트영상제, 락페스티벌, 억새축제, 물빛축제와 더불어 시민예술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시에는 청소년재단이 있는 바 청소년문화센터를 거점으로 운영하면서 공예를 비롯하여 체육까지 87개의 동아리를 운용하고 있다. 평택을 구성하는 22개 법정동과 행정동에는 공예동아리 8, 교육동아리 25, 무용 39, 미술 2, 음악 34, 전통 26, 체육 33, 기타 7 등 170개의 동아리가 실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기초조사와 더불어 욕구 조사를 5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바 활동공간에 대한 요구부터 강사료와 운영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간접지원은 성장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동아리간 네트워크의 형성 부분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즉, 기존의 자기 성취와 만족도 위주로 운영되던 동아리가 차츰 성장하면서 지역사회의 공헌활동 부분에 대한 기여와 전문인력과의 연계를 통한 질적 수준의 제고 요구로까지 발전하게 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런 현황을 기반으로 하고, 아울러 생활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원의 역할에 대한 평택문화원의 의견은 첫째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의제를 정책안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치의 거버넌스를 제도화 하는 방안, 둘째는 수요자 중심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책 실현과 세 번째는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접근성의 확대와 다양성 마련이고 네 번째는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의 발현과 사회공헌 활동의 강화를 들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원은 생활문화동아리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 지향점의 제시 및 총괄 운영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학습적 지원, 공연활동 지원, 공간적 지원, 장비지원, 행정지원, 소통지원을 현실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비전에 부응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을 특화된 동아리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성장과 성인 및 청소년 동아리와의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에 두고 있으며, 지역내 문화기반 시설을 비롯한 자원의 유기적 활용을 꼽는다. 더불어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동아리의 고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평택문화원이 제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은 매우 유용한 부분이다. 하지만 아쉬움이 몇 가지 남는다. 우선은 평택시의 문화행정에 관한 부분이다. 공급자 입장을 탈피하지 않은 관련 부서의 모습이 남아있다. 전문예술인이 문예진흥기금과 도 문화재단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공적 지원과 만난다면 민간 동아리 입장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채널은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이 보조금의 지급처와 쓰임이 생활문화와 연관성 보다는 사회단체에 대한 캠페인성 행사 보조금으로 쓰이는 것이 고착화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시의 정책에 있어 문화정책에 대한 자기전망과 비전이 부재한 것의 반증이 된다. 이를 풀어보면 시는 관행처럼 예총과 문화원 양강 구도 안에서 보조금의 지급 및 시 행사의 일부를 위탁 운영함으로서 단체와의 관계망 형성 및 유지 부분만 최소 관리를 한다는 느낌이다.

정작 청소년관련 재단의 문화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이들을 위한 출구이자 지역과 만나는 접점인 생활문화동아리에 활성화 부분은

재원도 없고 열정만 지닌 문화원의 역할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문화원과 예총 사이에 갈등의 관계는 추론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지역내 행사부분은 예총 중심으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운영 분야는 문화원으로 이원화 하면서 지역문화의 핵심 컨트롤 타워를 비워두는 한계에 봉착하기도 한다.

웃다리문화촌과 한국소리터를 운영하는 문화원은 이런 상황에서 문화원 본원이 있는 곳까지 세 곳을 운영하며 지역 내 다양한 문화기관과 시설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동아리를 규합하고 조직화하고 지원하며 성장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문화원의 의지와 열정과 실천력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냉철하게 평택의 문화정책과 행정과 재원과 실행력을 분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역의 생활문화동아리의 태생은 문화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언제까지 문화원이 산파 역할만을 내세울 수 는 없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생태계의 연결통로로서 문화원이 역할을 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이 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정책과 재원을 가져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문화진흥법에 준거하여 설립하게 될 문화재단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할분담이 먼저 조정되면서 진행하는 것이 수순이 될 것이다.

결국 지역문화의 중심축 그중에서도 생활문화의 허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문화원의 정책수행 의지와 지역내부의 특질을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선험적 경험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스스로 입지를 알고 있는 문화원에서 사업의 열의뿐만 아니라 실행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싶다.

또한 정말 깊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며 내어 놓은 허브로서의 기능을 가진 문화원 실행 계획이 구체화 되고자 한다면 용인문화원의 사례처럼 특정 분야의 동아리 먼저 샘플로 하고 성장과 자생과 사회공헌과 지역 공동체성을 확보하는데 어떤 내외부적 요인들이 작동해야 하는지를 운영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앞서 장황하게 제기했던 문화소비의 트렌드중 많은 부분이 평택의 변화하는 환경과 맞물리는 것이 어느 지역보다 많다는 것은 추론할 수 있으며, 그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청소년 동아리가 성장하고 있음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고 싶은 것은 웃다리문화촌의 운영중심이 전승과 체험 중심이라면 이 또한 비워낼 곳은 비워내며 동아리의 인큐베이팅 공간과 장비의 중심으로 실험 운영해 보는 방안과 한국소리터 또한 음악이나 공간의 상황과 어울리는 영역의 동아리를 고도화 해 내는 곳으로 병행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다.

4) 화성문화원의 생활문화기반 전통문화 동아리를 통한 전승 추진
화성문화원의 시범 사업은 전승문화 기반형이다. 이의 출발점은 어느 사이 문화원의 본질적 사업에서 열외를 당하고 있는 지역의 전통을 잇는 것들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역민의 요구에 기인하고 있다. 화성문화원의 김명수 학예연구원은 여느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전통문화의 단절원인을 사회문화적 배경과 사례에서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 번째는 인력의 부족이다. 초고령화와 인구단절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산의 부족을 꼽는다. 주된 원인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외부종교의 유입으로 인한 전승문화의 거부 현상이다. 추렴 혹은 각출로

충당되던 공동 비용은 이제 지불하고자 하는 이들이 사라진 것이다. 세 번째는 행정력의 부족현상이다. 공공부분에서 재원이 지급되어도 이를 처리할 지역 인재가 없고 실행력과 증빙능력이 없어 난항을 겪는 것이다.

이런 원인의 배경에는 사실 농경사회의 급속한 해체와 대량생산체제로의 변환이 가져온 생산패턴의 변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다.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에서 2차와 3차를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했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는 공동체 문화이며 농경사회에 기반 한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농경의 문화가 변화한다는 지점, 특히 줄다리기의 원재료인 볏짚의 길이가 품종 개량으로 작아지는 것, 볏짚이 초가를 만들고 소의 먹이가 되던 시대에서 대량으로 비육된 소에게 제공되기 위해 비닐포장을 해서 팔려가는 것 자체가 전통문화의 보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남녀노소 고루 분포하던 주거 인구가 고령화된 어르신만 남은 세대단절사회로 변화하고 생산양식은 기계화가 되고, 하우스 농업이 발달하게 되며 과거와 같이 두레 공동체 같은 모습이 파괴되면서 저절로 전승문화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된 것이다. 장례와 관련한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의 매장풍습이 이제는 화장 일변도로 변화하면서 장례과정을 담아냈던 공동체의 문화 또한 소멸했다. 그럼에도 문화원이 지닌 본질적 가치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것은 전승하고 명맥이 끊기려고 하는 것은 보전하는 것이 우선이고, 발굴된 것은 어떻게든 원형을 찾아 복원하고 전승하려는 의지와 실천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변화의 패턴은 사실 원형의 문화를 앗아가는데 시간을 가리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생활문화의 대부분도 대중문화에

근간한 소비형 문화나 과시형 문화로 유행을 따르는 것이 큰 흐름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화성시의 문화원은 기안동의 용줄다리기부터 농악과 호상놀이와 대보름 행사를 지원하고 있음은 예전 같으면 당연했을 사업이 이례적이라고 표현해야 하는 시점으로까지 넘어온 것이다. 그중 동아리를 통해 복원하고 계승하려했던 팔탄민요도 여기 속한다.

농경사회 마을 고유의 특색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민요는 전형적인 노동요 형식이다. 이런 노동요는 노동 현장인 논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 장례식에서는 변화된 형태의 장례요로도 차용되어 함께 쓰인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민요 안에는 경기남부와 북부간의 문화교류와 접촉의 흔적이 있으면서 지역 내부에서 다시 발전해온 양식이 있다. 그 토대에는 마을이 지닌 고유성과 지리적 인문적 특징, 그리고 제창자와 선소리꾼의 다름에서 기인해 온다.

1998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팔탄의 민요는 박조원이라는 분의 전승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2008년 박조원선생이 타개하면서 전수자도 없이 무형문화재에서 해제되고 만다. 가장 큰 부분인 전승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거기에 앞서 제기한 생산양식의 변화와 또 한켠으로 마을 내에 상존해 있는 소리꾼에 대한 비하가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소위 '어기'라고 부르면서 일은 안하고 노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창자가 전수하려는 의지를 꺾게 만든 것이기도 한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원곡에 대한 제대로 된 채증과 채집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된다. 시간이 흘러 마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성과 활용성을 들고 문화원을 찾아왔지만 정작 지역문화의 곳간 역할을 하는 문화원에도, 도지정문화재를 신청했던 시 문화재담당 부서에도 관련 자료가 없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다행스럽게 팔탄민요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진행한 학자가 있었고, 방송을 통해 음원이 확보된 것이 있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료를 구했다는 점이 복원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2년여 동안 복원을 위한 다양한 기관과의 접촉과 지원을 요청했지만 생각의 공유만 이뤄졌지 정작 주체가 되어 이를 끌어나갈 주도기관이 없어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이었는데 마침 이번 시범사업이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런 제반적인 곡절 안에서 전승문화의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한 계승이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그리 간단치 만은 않은 것임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원천 소스인 원형질의 문화를 아카이빙의 형태로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이를 복원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주민들이 있느냐의 문제다. 그러함에도 모든 인력, 행정, 재원이 궁핍한 상황에서 이 부분들을 보조해주는 비빌 언덕이 되어줄 기관이나 단체가 존재하느냐의 문제가 여전히 상존해 있다. 거기에 문화원형을 지키는데 필요한 물리적 공간 요소의 변질은 또 어떻게 방지하고 공존해 가느냐의 문제도 따른다. 화성문화원의 경우 이 안타까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며 팔탄민요가 지닌 지역문화적 관점과 공동체성과 발전가능성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재현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긴 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고유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곧 셋트화 된 무대를 차용할 수밖에 없어진다. 고유성이 무대로 변질되는 현상이 이뤄지는 안타까움이 있다. 자발적 인력의 부족은 대체인력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진정한 노동요나 공동체성과는 다르게 공연화 되는 것으로 변주된다. 이 점 또한 문화원에서는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팔탄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복원하고 계승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한 특색의

존중과 근원적 힘을 나누고자 하며, 지속성을 위해 평생학습의 개념을 이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자발적으로 끌어갈 주민자체의 역량을 끌어내고 강화해 가는 힘을 가질 동아리의 조직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모두 지난한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나 지역 소득을 염두에 둔 지역축제가 소읍단위로 태동하게 되면서 행사의 구성과 과시 효과를 위한 문화원형의 변질이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은 실정이다. 너무나 급격한 생산양식과 인구사회적 변화 앞에서 문화원의 지역문화에 대한 소명,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팔탄민요의 복원과정 및 주민 동력의 재구성을 통한 전승문화에 대한 생활문화동아리의 탄생을 주도해 갈 화성문화원의 어깨가 무거워 보인다.
다른 문화원에서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을 화성문화원에서 선험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니 가장 먼저는 이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대한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하고, 주민동력이 끊기지 않도록 응원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 사업을 담당하게 될 실무진에 대한 격려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나가는 말

생활문화와 관련한 정의와 해석은 예술과 배치된 길항의 관계가 아닌 공존의 관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이 가진 전문성과 미학성, 철학성 등이 사위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진다. 때문에 여전히 생활문화는 하급한 것으로 취급되고 진정한 꾼이 있어도 무시되고, 외면 당해왔다. 이로 인해 사회전반의 공동체성과 공공성 자체가 붕괴되어 왔음을 인지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어찌되었든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국정의 기조로 하고 생활문화진흥사업을 전개해왔으며, 재단법인으로 생활문화진흥원이라는 전담기관도 신설하고 각 지자체 현장에 생활문화관련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사업의 큰 맥락은 생활문화공간의 확보와 수용자 중심의 공간활용, 생활문화동아리의 결성 및 고도화에 대한 지원, 전국의 생활문화동아리 조직화 등이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사업의 과정에서 일선 현장은 다양한 형태로 자기 정체성을 표명하고 대응하게 된다.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대응방식은 그런 면에서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본 과제의 출발부터 마지막 심포지엄이 이뤄진 것 까지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이렇다.

첫 번째, 지역내 문화원의 위상이 소멸되어 간다는 위기의식이다.
현장의 일과 본연의 일에 모두들 열심히 임하고 있음에도 큰 줄기의 정책의 생산과 집행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어진 일에 매몰되어 세상의 흐름과는 동일선상에 놓이지 않아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진다는 안타까움이 베여있다.

두 번째는 지역문화의 선도그룹이었고 원년 멤버였다는 자긍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다. 지역의 문화인이나 동아리, 행정 모두에게 문화원은 소중한 존재였으며, 동반자였다. 하지만 이제 지역내 문화기관과 단체도 다양해졌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관점도 특정 예술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하고 복합화 되었다. 그런 변화를 감지하면서도 애써 이전에 가졌던 역할과 위상을 복기하고 일상적 흐름이 어떻게 지역문화의 자장을 변화하게 하는지 현장의 소리에 다가가지 않은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가장 많은 지역문화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특화된 문화원이 없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다. 적은 인원, 열악한 재정, 산재한 일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곳이 문화원이다. 하나하나의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에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통해 우리가 하고자 했고, 나누고 공감하고 지지받는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드러내는 것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은 완숙하게 하는데 그 많은 자랑질의 시대에 어느 문화원 하면 손으로 꼽는 사업이 드러나지 않는 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혹시 내 안에 매몰되어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이웃에서 일할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 보다는 '우리도 그 정도는 하는데'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는데 길들여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본다.

지역문화진흥법의 발효는 지역문화생태계의 기존 질서와는 확연하게 달라지겠다는 신호탄이다. 광역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문화원이 발언할 곳이 점차 줄어들었다. 거기에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는 지역내 일을 가지고 설왕설래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협력과 상생의 파트너로서 일하는 곳도 있지만 서로의 역할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났으며, 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못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갖게 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런 기회에 시장의 수요자인 문화향유와 생산자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개발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해진 재원과 사업만을 두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역문화발전에 역행하는 일로 보인다.

그간 문화원이 지역사회에 쌓았던 토대는 지역문화의 정신적 구심, 장소적 거점, 지원의 파트너로서 역사였다면 이제는 그 많던 자원을 생활문화의

현장에서 만나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로 가는 것도 필요하다.

동두천의 생활문화센터가 보여준 시설과 공간은 독립원사를 가졌거나 공적 공간에 함께 입주한 문화원의 내부 시설과 장비의 운영 방식에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고 있다. 고정이 아니라 가변형, 무거운 것은 버리고 경량화 하는 것이 오늘 문화의 흐름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용인문화원의 통기타네트워크는 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응을 바로 일선현장에서 문화의 동력으로 승화시킨 일이라 볼 수 있다. 이런 대중문화의 흐름 사이에서 지역민의 문화향유와 생산력을 높이면서 다양한 장르와 문화로 이어간다면 생활문화동아리의 구심으로서 문화원의 역할과 기대도 높아질 것이라 여겨진다.

평택문화원의 생활문화동아리의 허브화 전략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로 보여 진다. 하지만 행정과의 관계, 정책과정의 참여, 예산의 주도권, 지역내 타 기관과의 관계 등을 먼저 조율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더 큰 힘으로 출발했으면 하며, 현재 가용하고 있는 두 곳의 시설에서 생활문화동아리의 인큐베이팅 공간의 조성도 서둘렀으면 한다.

화성문화원의 전승문화를 생활문화동아리를 통해 계승하겠다는 전략은 전국 어느 문화원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와 같은 것이다. 현 사안을 깊이 있게 보고 분석하고 현장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와 실행력이 돋보인다. 이제 주민들의 숙원과 그 안에 탑재된 수익사업으로 활용과의 간극도 해소해야 할 것이고, 그 무엇보다 예산과 인적자원의 결합이 선행되어야 할 숙제이다. 집단지성의 힘으로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 한걸음씩 간다면 매우 유의미한 사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모든 사업의 귀결은 일상적 삶의 문화화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공간과 프로그램과 재원과 인력을 공급하는데 문화원이 혼신을 다해왔다. 하지만 이제 문화원이 아닌 다른 기관과 시설, 단체에서도 저마다 똑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화로 지역을 바라보는 시선을 초지일관 견지한 문화원이 산파가 되었기 때문 아닌가. 새롭게 생성된 기관과 조직을 존중해 주면서 지역문화의 선도자로서 문화원은 가장 지역적인 특질을 살리면서 지역문화의 미래비전을 함께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법고창신은 그런 면에서 터무늬를 다져온 문화원이 늘 견지해야 할 정신의 모태 아닌가.

각주_

57)2016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문화예술트렌드는 문헌 분석, 전문가 집단면접,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됨

58)한국문화원연합회 50년사, 한국문화원연합회(2013)

발행인 염상덕
편집인 최영주
진 행 지혜로운 봄
발행처 경기도문화원연합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875
인쇄 2016년 12월 28일
발행 2016년 12월 30일
제작 글그림

본 권에 실린 내용은 경기도문화원연합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은 '2016년 경기도 보조금'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주최/주관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협력문화원 | 동두천문화원, 용인문화원, 이천문화원, 의정부문화원, 평택문화원, 화성문화원
후 원 | 경기도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6층
031-239-1020
본 자료집은 2016년 경기도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